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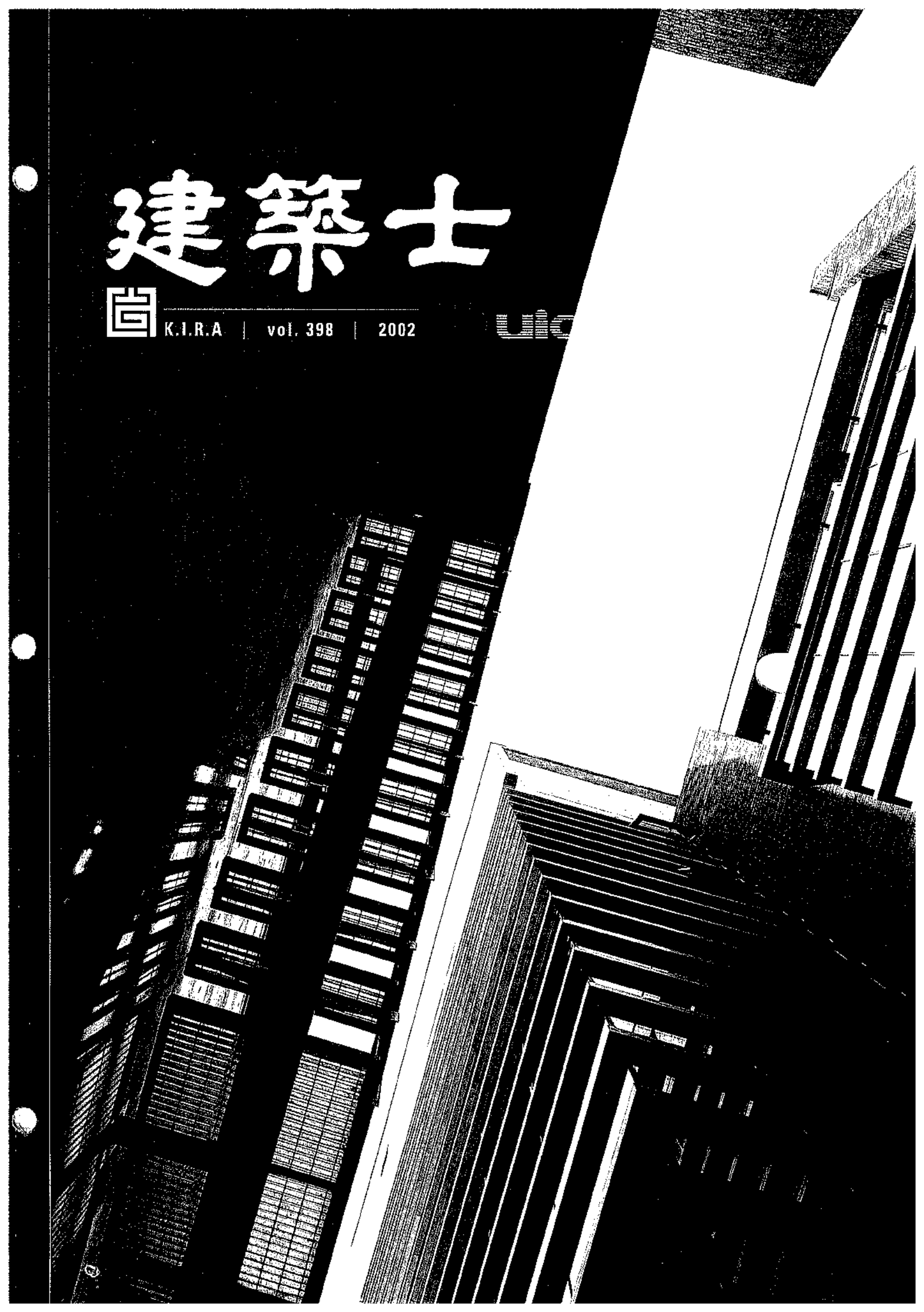
建築士



K.I.R.A

vol. 398

2002



여름철 냉방은 물론 영하 15°C 혹한기 난방까지!

LG 인버터 냉난방기

LG 인버터 냉난방기,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 LG인버터 냉난방기는 초달성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제품으로 2001년 8월부터 전국 학교 및 관공사에 보급 중입니다
- 전국 초, 중, 고교에 2000년 12월부터 시범 설치 운영 중입니다
- 국책연구 (00.12) 인 학교건물의 에너지절약형 냉난방시설 모형개발 에서 인버터 사이클 및 스크를 압축기 기술이 표준냉난방기로 채용되었습니다

정규기관 인증 및 규정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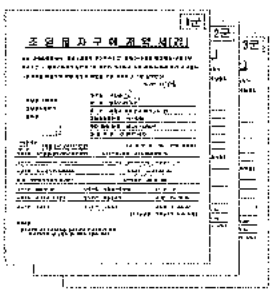
KT(Excellent Korea Technology) 마크 획득 LG전자의 인버터 신기술이 과학기술부와 한국 신기술 진흥위원회에서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미래산업 상품선정 LG전자의 인버터 신기술이 산업자원부의 인증을 받아 1998년 한국 미래산업 제품명 선정되었습니다

KS규격 획득 LG전자는 유가증권 'KS 사후 인증'을 통해 공로에 공정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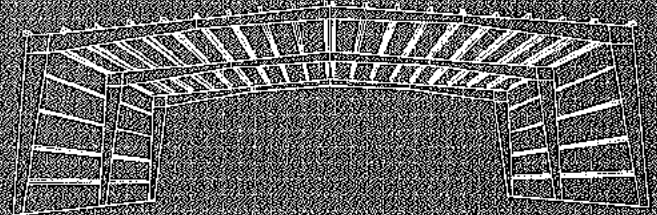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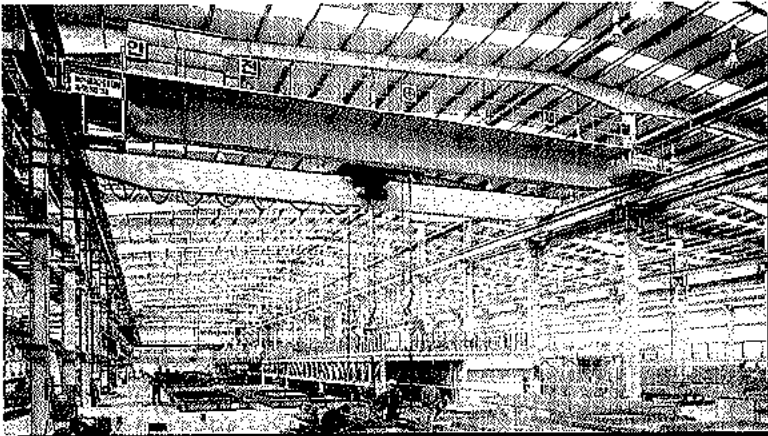
LG 인버터 냉난방기, 이래서 더 좋습니다!

- 에너지 절약형 인버터 냉난방으로 전기료 걱정이 싹!
최첨단 절전 인버터 회로 및 국산 고효율 스크를 압축기로 냉방은 28%, 난방은 32%의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자사 3.5 마력 정속형 히트펌프 대비, 자사 시험 기준)
- 영하 15°C의 추운겨울에도 43°C의 따뜻한 난방을!
인버터 기능이 있어 추운겨울에도 고온난방이 가능하여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 중앙공조 대비 초기 투자비용 34% 절감!
학교건물의 에너지절약형 냉난방 시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중앙냉난방 (냉수주기 방식 + FCU)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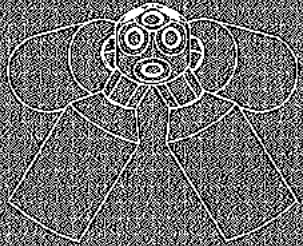


세계적인 한맥의 첨단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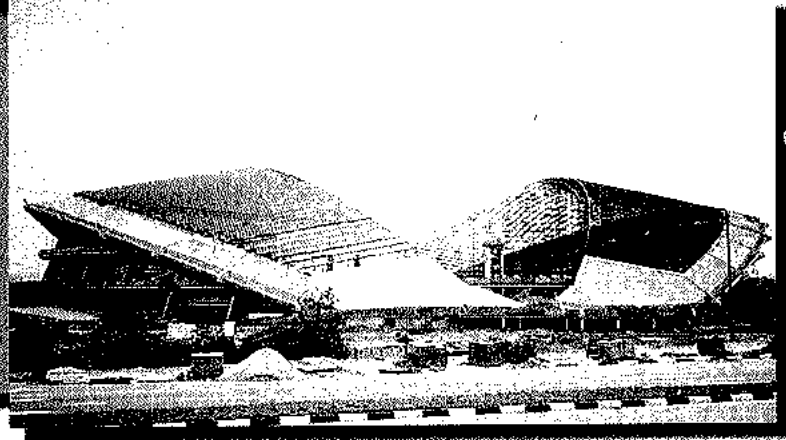
P.E.B & Space Frame



- P.E.B 용도 공장 물류창고 등
- 주요신적 육군정비함 36개 공장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자동차 생산자동차 기아자동차 한컴컴퓨터 금호타이어 태국비료공장 중국MOBIL석유 베트남 HUY-HOANG공장 등 국내외 800여개소



- Space Frame 용도 체육관 공장 Dome 등
- 주요신적 말레이시아 Shah Alam 종합경기장 인도네시아 Dome 일본 Ogawa 미국 Lejeune Center 대만 타이베이 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신상사, 동남아시아경기장 등 국내외 1,000여개소



지난 20여년간 특수철구조물만을 개발하여온 한맥기술진은 Computer Software를 응용하여 3차원 구조역학의 P. E. B(Pre-Engineered Building System)와 Space Frame System을 자체개발, 대규모 무주공간건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존 철구조물에 비하여 30% 원가절감은 물론 현장조립공법으로 공기단축을 실현하였으며, 연간 7만여톤을 제작·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Asia 최대의 특수철구조물 Maker로 외관이 미려한 혁신적인 철구조물을 세계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영업상담 (02)783-9999

기술제휴 : PASCOE BUILDING SYSTEMS, INC.



특수철구조물의 개척자



한맥重工業株式會社
HANMEAK HEAVY IND. CO., LTD.

-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사회공단 B-1 나-707
TEL: (031)499-0114(대), FAX: (031)498-0511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49(신기빌딩 4층)
TEL: (02)783-9999(대), FAX: (02)785-0030

http : //www.hanmeak.co.kr

대 관 안 내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평(198㎡)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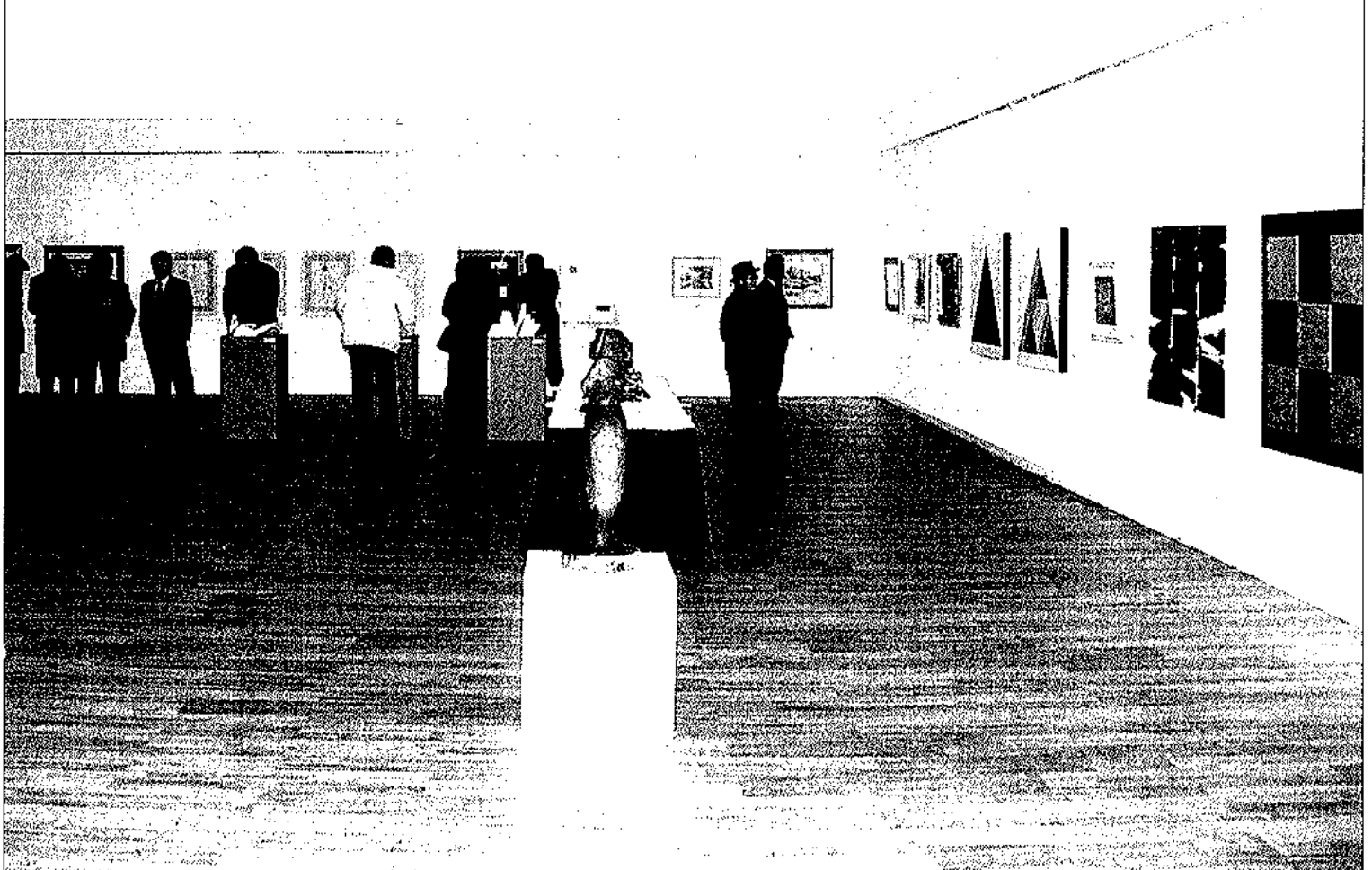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7만5천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은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는 건축과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대 관 문 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지점)

Tel _ 02-581-5711~4 Fax _ 02-586-8823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2년 6월호, 통권398호

차례 2002 6 398호



중곡2동 사무소+파출소(최동규 작)

30

31

36



발행인: 우남웅
 홍보편찬위원회: 정정치, 박영식, 김수경, 목대상, 민승렬, 최정일
 취재·편집: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이홍식 팀장)

칼럼	건축사 영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제정에 즈음하여	강인수	20
회원작품	미래산업(주) 첨단기술연구소	김상길·김희욱	22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이영일	32
작품리뷰	중곡2동사무소+파출소	최동규	40
	비평: 박탈된 것의 영토화를 위하여	이종건	52
기고	세계화와 한국적 가치의 공존	김희곤	56
	고뇌(苦惱)와 번뇌(煩惱)	박세진	64
연재	박물관의 개념적 변화와 건축적 대응(3)	김용승	67
건축만평		유원재	74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75
	현상설계		82
	해외잡지동향		100

82



86



90



Column

On Occasion of Setting Criteria for Scope and Cost of Architectural Service	Kang In-Soo	20
---	-------------	----

Works

Mirae High Technology Research Center	Kim Sang-Gil, Kim Hee-Ok	22
Seoul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Lee Young-II	32

Review

Junggok 2-dong Office & Police Station	Choi Dong-Kyu	40
Critique : To Territorialize the Privatized	Jongkeun Lee	52

Feature

Coexistence Between Globalization and National Values	Kim Hee-Gon	56
Distress and Agony	Park Se-Jin	64

Serial

Conceptual Changes in Museums and Architectural Response(3)	Kim Yong-Seung	67
---	----------------	----

Cartoon

Yoo Won-Jai	74
-------------	----

Architects' Plaza

Archi-Net	75
Competition	82
Overseas Journal	100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 Jeong Jeong-Chi, Park Young-Sik,
Kim Soo-Kyeong, Mok Dae-Sang,
Min Seung-Ryeol, Choi Jeong-II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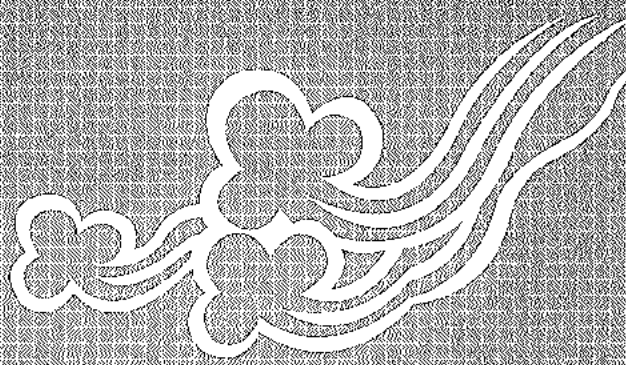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2002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문화大賞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가능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입니다.

기성건축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신인등용의 장으로서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나갈 2002 한국건축문화大賞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부문 및 대상

준공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 2000년 8월 이후 준공된 국내 건축물
- 응모자격 : 응모작품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로서 제출 인허가관련서류(건축물 대장, 건축허가서 등)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작품
- 응모자격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일반국민

■ 응모방법

준공건축물부문

- 가. 작품설명서, 건축물사진,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B4 규격의 사진첩 2부
- 나. 건축물대장 1부
- 다. 건축허가서 1부
- 라. 설계자·시공자·건축주 소개서 1부
- : 응모작품이 공동설계 또는 공동시공 작품일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를 구분 명시해야 하며, 외국사 참여작품의 경우 관련 사실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수상자가 공동출품일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 1인에 대해 시상함.

마.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폐널제출시일은 별도 통보

계획건축물부문

- 패널(가로90cm×세로120cm) 1매 및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모형(가로×세로 75cm×90cm 또는 90cm×75cm, 높이 75cm이내) 1점 제출
- 공동작품은 출품인원을 3인 이하로 제한함
- 작품주제: 문화유산으로서의 도시건축
(주제설명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www.kira.or.kr 참조)

■ **작품접수** |

접수기간

- 준공건축물부문 : 2002. 9. 9(월)~9. 10(화) 09:00~18:00
- 계획건축물부문 : 2002. 10. 11(금) 09:00~18:00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 ※ 출품원서는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 (출품료는 없음)

■ **심사위원** |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추후 명단발표)

■ **수상작발표 및 시상·전시** |

- 수상작 발표 : 2002년 11월중 (입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수상작 전시회 : (일정 및 장소 추후공고)
- 시상식 : (일시 및 장소 추후공고)

■ **출품제한 및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 발생시 입상을 취소 또는 출품무효 처리할 수 있음.

1. 다른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2. 공모요강에 명시된 출품물의 규격 및 제출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3. 작품집 등 제출도서 및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작성된 작품
4. 실제 저작권자(설계자와 시공자)와 제출서류상의 저작권자가 다른 작품
※출품자는 작품접수 이후 제출도서 및 서류상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우리 시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근거서류 및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출품규정** |

- 계획건축물부문은 패넬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재료의 사용을 금함
- 작품제출 당일 접수장내에서의 패넬 및 모형 제작작업을 금함
- 준공건축물부문 제출 사진첩중 1부는 사후보존용으로 반환하지 않음
- 준공건축물부문 대상 및 본상 수상작 패넬은 사후 상설전시를 위해 반출이 불가함

■ **작품반출(계획건축물부문에 한함)** |

- 일시 및 장소: 2002. 10. 14(월)~10. 15(화) 09:00~18:00 (단, 입선이상 수상작은 전시회 종료후 반출)
- 지정된 반출일에 찾아가지 않은 작품은 주최측에서 임의 폐기처리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시상내용** |

준공건축물부문

구분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관계자시상
대상(1점)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건축물부착용 명판	설계자: 대통령상 시공자: 국무총리상 건축주: 국무총리상
본상(6점)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상패 건축물부착용 명판	설계자: 건설교통부장관상 시공자: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주: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입선작(다수)		상패		설계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시공자: 서울경제신문사장상 건축주: 서울경제신문사장상
공로상		트로피		건축문화발전에 공이 큰 개인 및 단체에 수여

계획건축물 부문

- 금상 (1점)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은상 (2점) : 상금 각 200만원 및 상장
- 동상 (3점) :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선 (다수) : 상금 각 20만원 및 상장
※ 동상이상 수상자중 대학재학생에 한해 영어 인터뷰심사를 거쳐 2인을 선발,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 학생집버리대회 파견

■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 **후원 /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주택협회**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Tel. 581-5711~4)**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제정에 즈음하여

On Occasion of Setting Criteria for Scope and Cost of Architectural Service

강인수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기획실 이사
by Kang In-Soo

IMF시기,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설계 수주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때마침 1999년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이 폐지되면서 건축설계비가 IMF이전에 비해 $\frac{1}{2} \sim \frac{1}{3}$ 수준으로 격감하였고, 급작스런 설계비 수준의 하락은 건축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인해 많은 건설회사들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동안 법정관리나 화의에 들어갔던 건설회사들도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단기간 동안에 급성장하고 있는 사례를 접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독 건축설계 분야만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실질적으로 최근의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젊은 건축가들의 아근과 철야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은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경기 회복에 가장 많은 공을 세운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심지어 건축사들이 느끼는 건축설계는 더 이상 창작활동이 아니라 중노동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상황으로까지 치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지탱해온 끈끈한 인간관계마저 무너져 버려 건축계 전반이 붕괴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들기도 한다.

설계비 수준의 하락으로 간과할 수 없는 현상 중의 하나는 건축설계업무에 대한 경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건축설계비가 건설사업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 만큼 건축설계에 대한 위상도 낮아져 건축사사무소 선정시 설계능력보다는 소위 인허가 능력(?)이나 설계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설계사가 선정되는 웃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와 같이 건축설계직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건축설계 업무에 대한 경시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건축을 천직으로 알고 건축사사무소에 들어온 많은 젊은 건축인들이 건축을 등지고 있다. 그에 따른 결과로서 건축사사무소마다 경력직 사원들이 부족하여 설계업무의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설계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은 급기야는 건축문화 전반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도면의 품질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설계의 부실은 가까이는 건축주, 사용자, 시공사, 감리자, 건축사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부실설계의 피해는 사회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굳이 삼풍백화점의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질의 설계는 도시환경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건축설계비 수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1999년에 폐지되었던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다시 제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이 제정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건축주와 건축사가 설계비를 정하기 위한 단순한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 기준을 근거로 건축사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건축사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느냐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어떤 이는 계약전 설계서비스 제공 거부운동을 벌일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건축사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여 건축사들은 자신의 사무실 직원들이 더 이상 저임금 하에서의 착취의 대상이 아닌 건축생산활동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건축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질 높은 건축을 생산하기 위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건축사들이 자신의 직원과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건축사들의 건축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있어야만 건축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건축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야 비로소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 즉, 질 높은 건축디자인의 생산이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자체가 건축사로 하여금 정당한 설계비를 받게 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사에게 줄 설계비를 줄이는 만큼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 건축주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을 설득하여 정당한 설계비를 받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건축사들이 설계수수 못지 않게 설계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그에 걸맞는 건축디자인 생산에 대한 신뢰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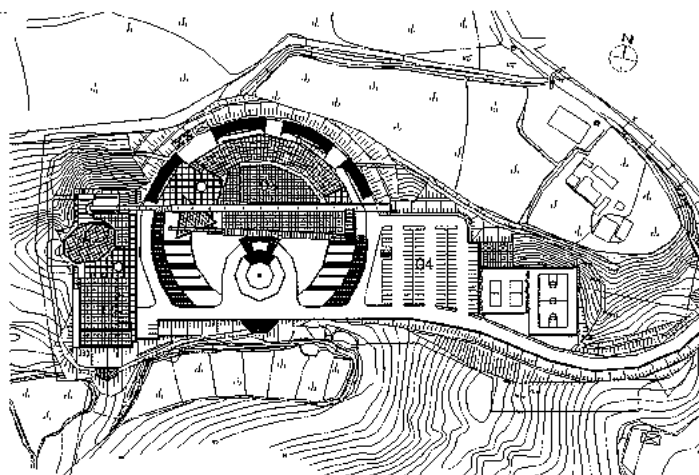
미래산업(주) 첨단기술연구소

Mirae High Technology Research Center

김상길 · 김희옥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Gil, Kim Hee-Ok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산1, 산2, 산8-1, 산8-2
대지면적	38,413 m ²
건축면적	5,596.92m ²
연면적	15,559.30 m ²
건폐율	14.57 %
용적률	29.09 %
규모	연구동-지하2층, 지상3층 실험실동-지상1층 / 식당동-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조
주차	계획 : 142 대(옥내-106대, 옥외36대)
설계팀	박종열, 박보원, 류창우, 김준희, 류상보
감리	이광기
감독	(주)휴스텍 대표 마요왕
시공	삼성중공업 소장 강호석
조경	설계 : 환경 조각가 박현경 시공 : 다산 조경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촬영 : 23, 24, 26페이지 위 사진-이기환, 그의 사진-백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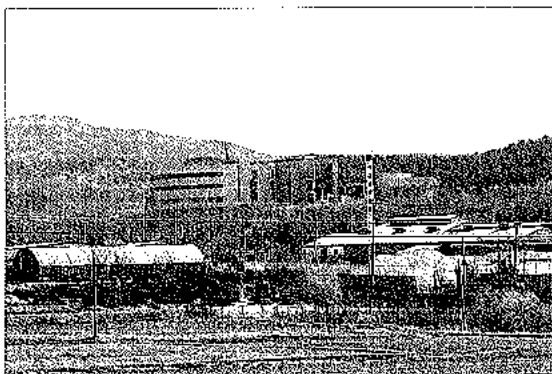


- 01_ 식당동
- 02_ 복지동
- 03_ 연구동
- 04_ 주차장
- 05_ 연구소진출입구

배치도

미래산업(주) 첨단연구소를 의미하는 자리에서 미래산업 시주는 이 연구소가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소이기를 바란다며 설계자와 사용자의 개성과 성격을 담은 진취적인 건물이어야 하며, 연구에 몰입하는 연구원을 배려하는 건축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몇몇 유명 연구소들을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였는데, 그 중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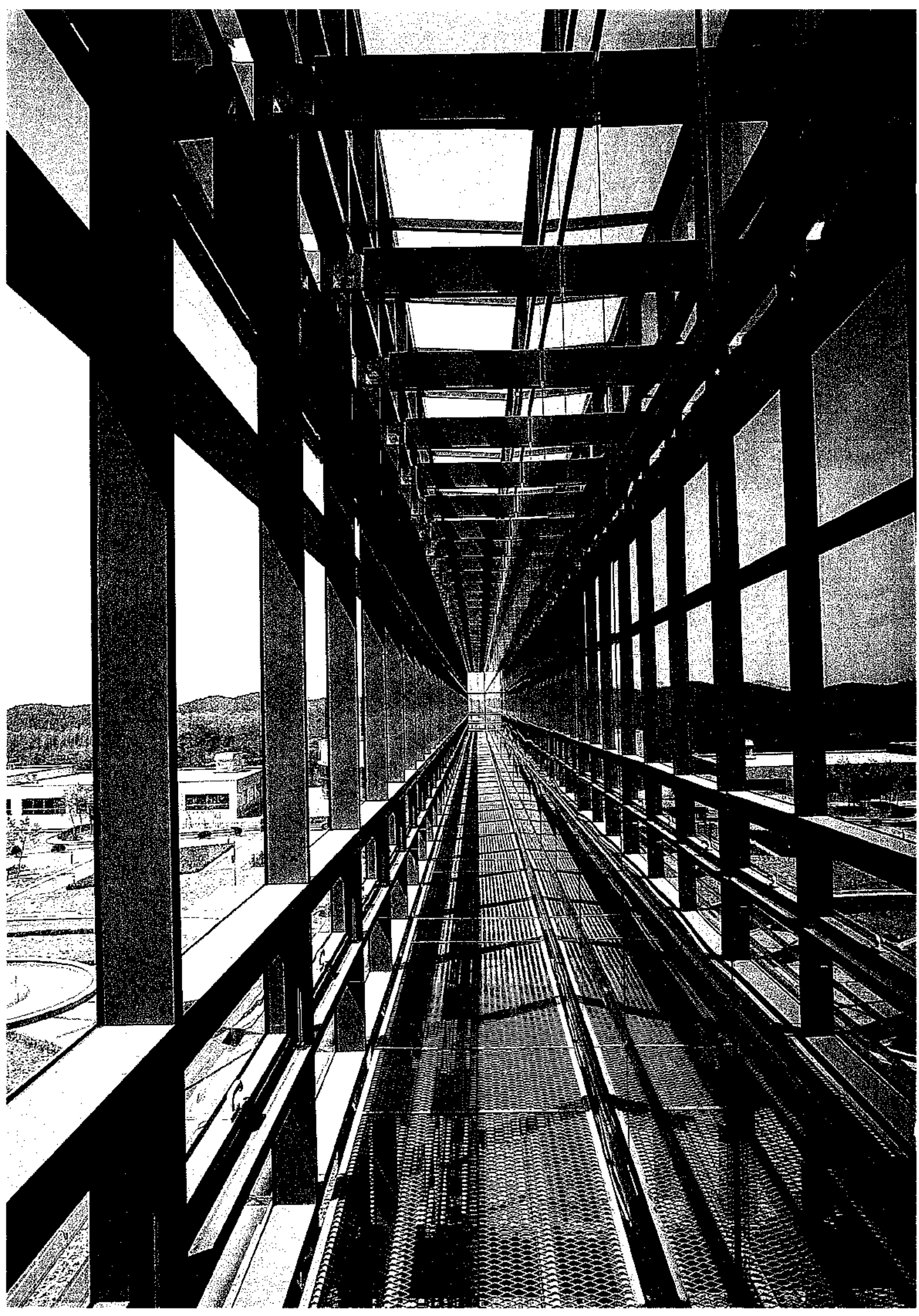
본 연구소 대지는 경사가 급하고 나즈막한 아산으로 잠목으로 덮여



있었고, 주변의 지맥과는 비교적 단절된 상태로 남겨진 자동차 물류센터로 기 허가된 곳이었다.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상의 레벨이 비슷해 건물의 배치에 큰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었으며, 남쪽은 소나무 숲에 면하게 되고, 북쪽으로는 군데군데 공장과 연구소 건물들이 있는 전원의 탁 트인 시야를 갖는 건축하기 좋은 땅으로 생각되었다. 장차 남쪽으로 산업도로가 날 예정이지만 여전히 산업도로가 남쪽의 계곡과 능선의 일부에 건설되어도 그 너머에 있는 좋은 풍경은 남아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다.

연구소는 연구동과 실험동으로 구분되며, 각 동은 기능 상 인접되어야 하지만 실험실은 소음과 진동이 많은 실험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격 되어야만 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이 상주하는 연구실동은 남쪽에 배치되며, 실험실동은 북쪽에 배치되고 그 사이에 대형의 아트리움이 두 개의 공간을 잇게 했다. 정면의 double skin은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환경적 요인과 형태적으로 단순한 윤곽을 강조하는 섬세한 디테일을 고려하여 적용된 것이며, 이로부터 진입부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강력한 진입축이 형성되었다. 전면의 유리면은 후면의 반원형의 메탈메쉬와 조합되어 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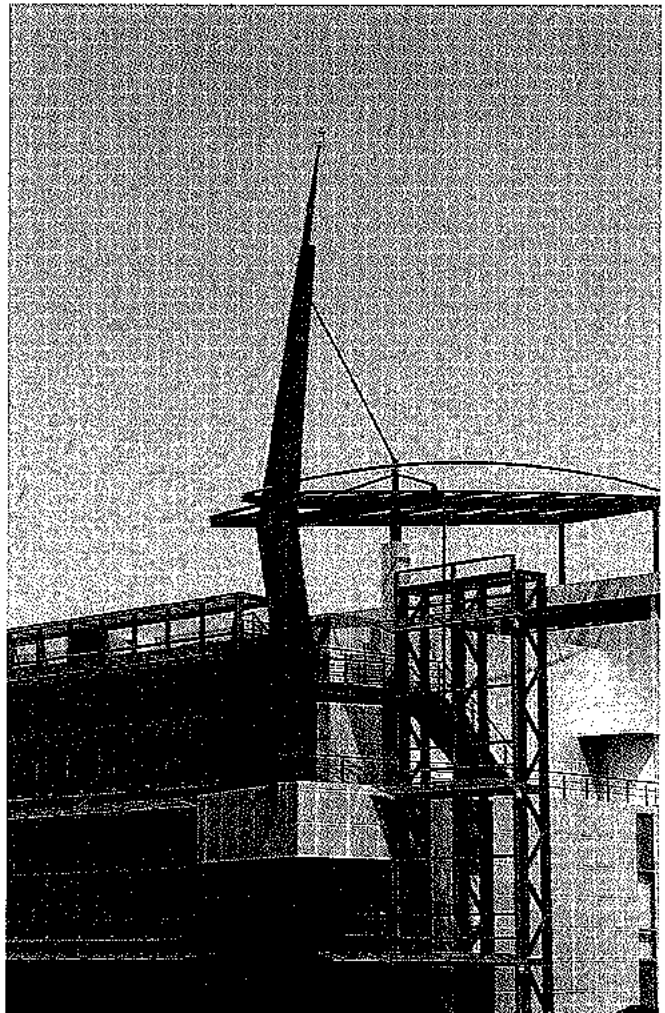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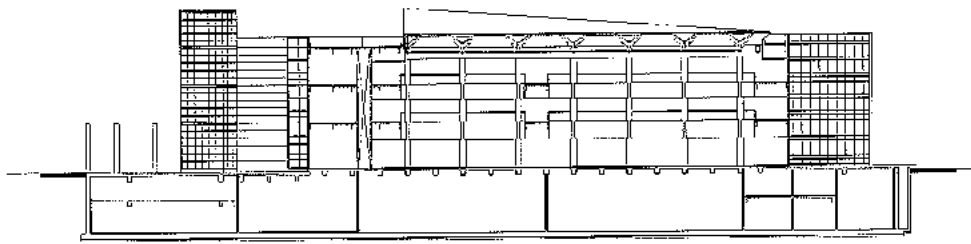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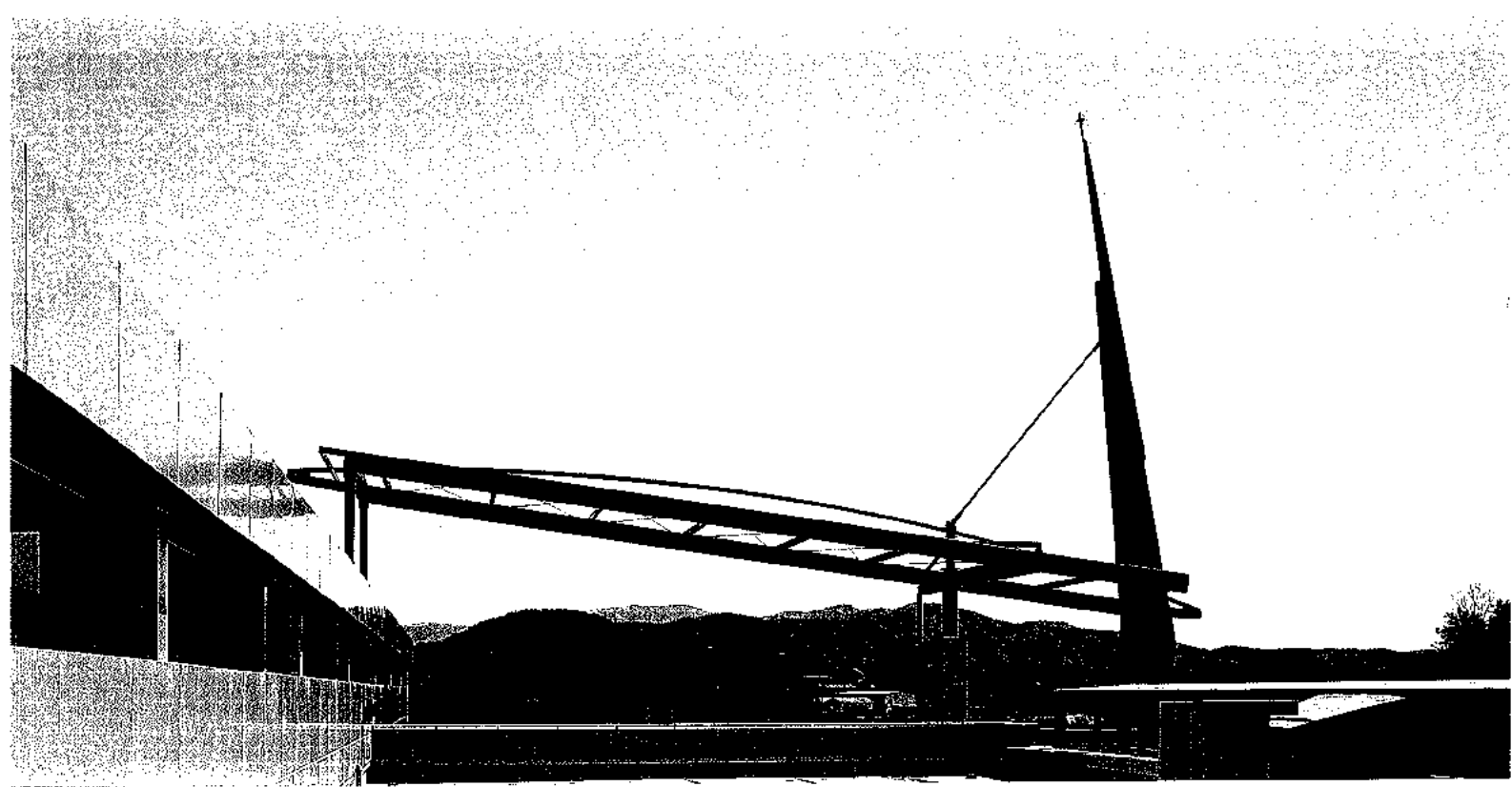
적 힘을 갖는다.

진입부분에서 보여지는 레이어링 되어있는 판과 같은 약 100m의 지루할 수 있는 긴 전면의 유리면에 삼각형 매스의 관입으로 형태의 긴장감이 생겨나고, 이것은 역동적인 내부공간구성이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단서이기도 하다. 후면의 매스가 전면에 관입되어 나오며 충돌되는 부분에서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조형적으로 처리하여 수평적 매스와 전면의 레이어링 된 면의 충돌로 야기된 힘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미지를 담게 했으며, 또한 상징탑으로 미래산업연구소의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전면의 긴 매스와 반원형의 후면매스 사이에 있는 중앙 아트리움은 연구소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조경시설과 어울린 시각적, 정신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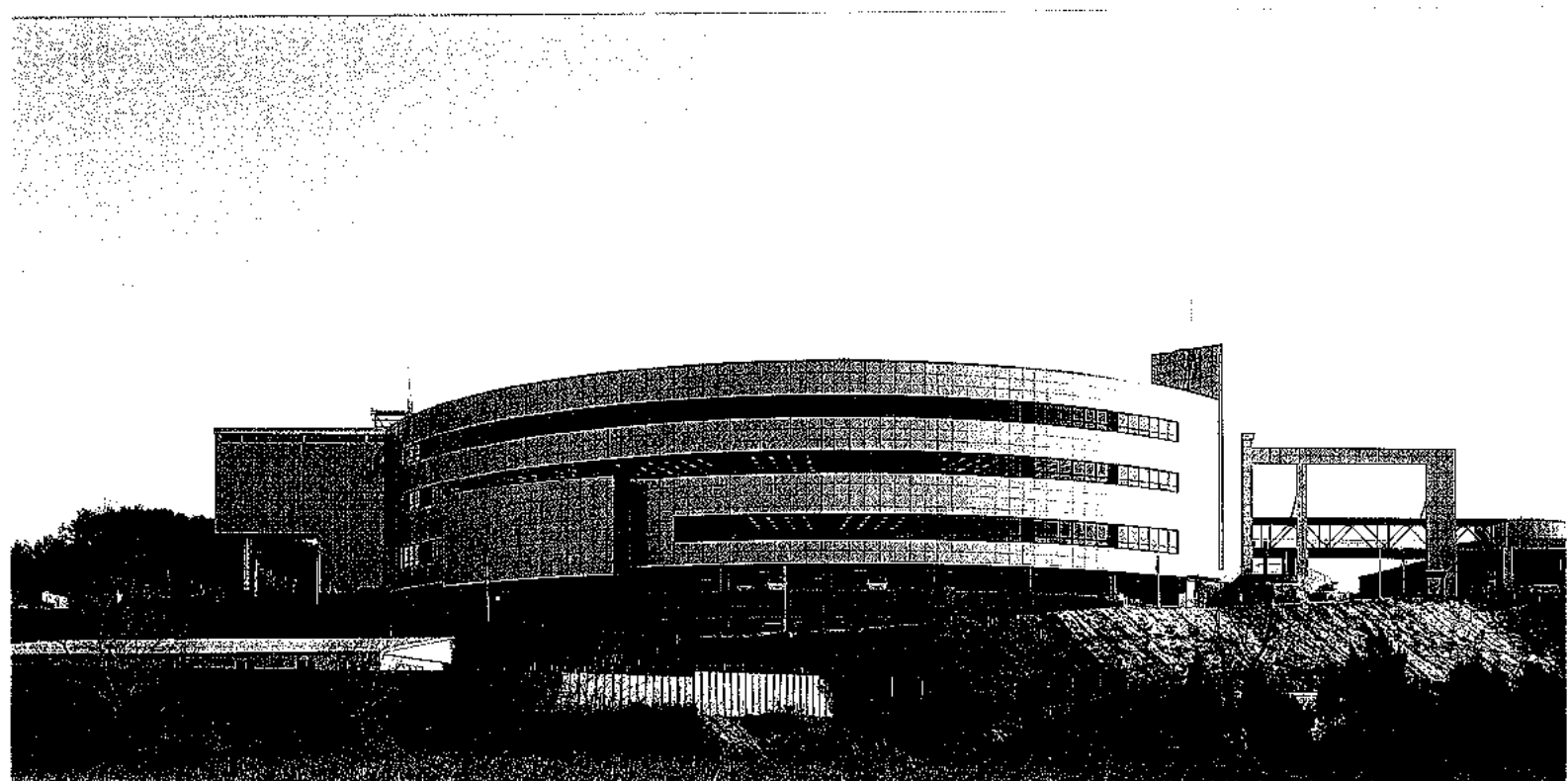
후면의 반원형의 실험실은 진동에 민감한 마이크로닉스 분야 실험을 진행하게 되므로 진동에 강한 형태를 추구한 결과이며, 또한 대지경계선 및 컨투어선에 대응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전면측의 갤러리의 확장으로 동서축을 강조하며, 식당과 각종의 연결동선을 또 하나의 휴게공간으로 배려하였으며, 여러곳에 다양한 형식의 휴게공간들을 배치하여 연구원들이 다양한 공간 경험과 함께 쾌적함을 최대한 느끼도록 하였다. 계단 침을 연장하여 만든 휴게실은 좁고 높은 공간에 시각을 제한한 장소로 소규모의 갤러리로 활용될 것이며, 식당으로 연결되는 브릿지에 면한 옥외 휴게공간과 더불어 가장 머물기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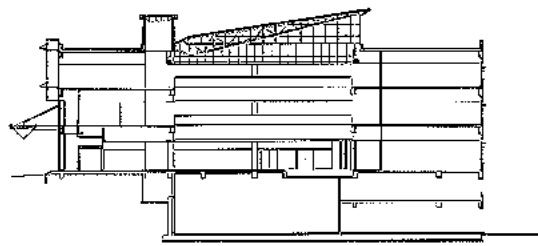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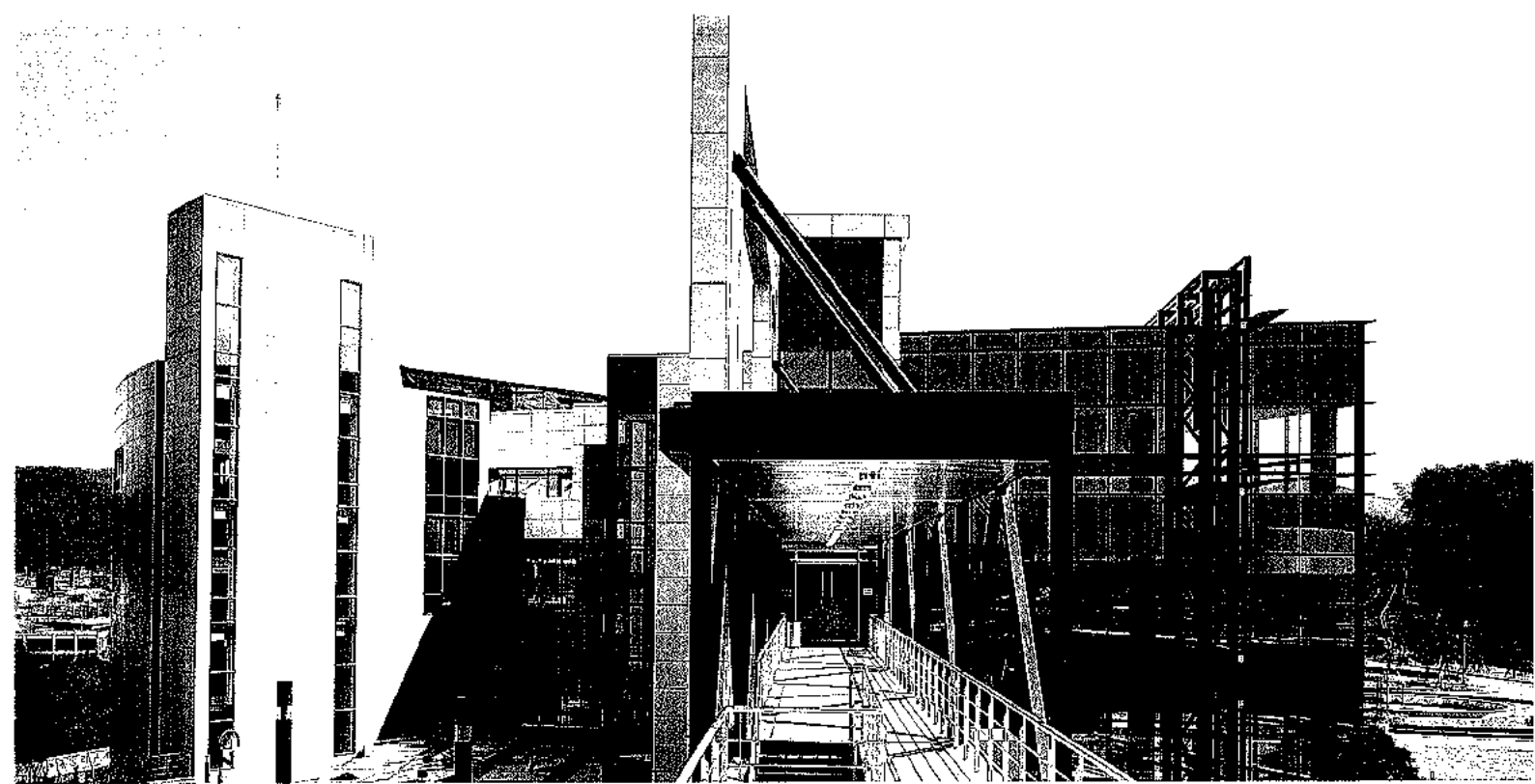
공사비 문제로 처음 계획보다 많은 부분들이 변경된 점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지만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설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해주신 정문술 전 사장과 마요랑 팀장의 겸허한 마음이 존경스럽고 감사하기만 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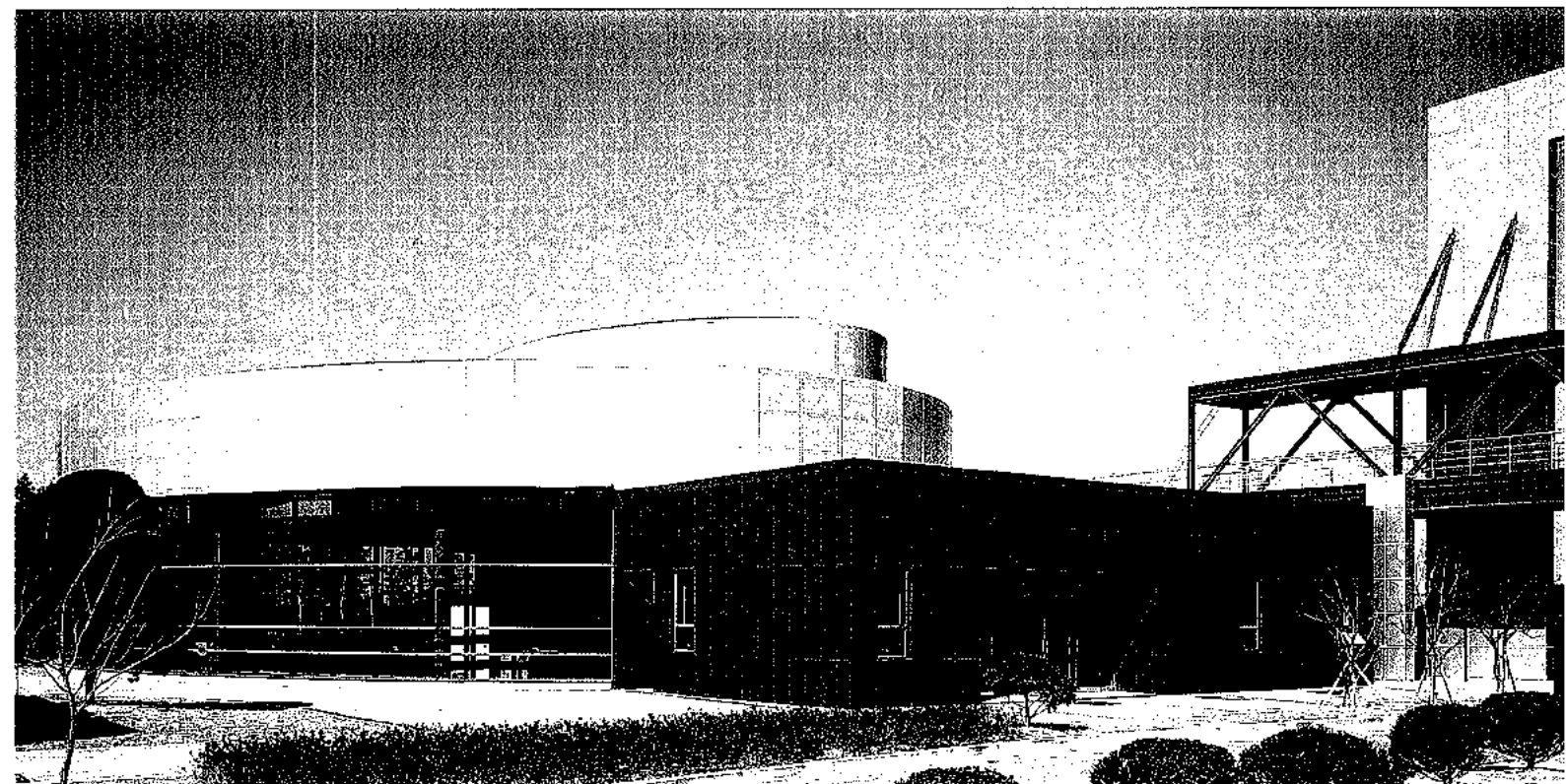


합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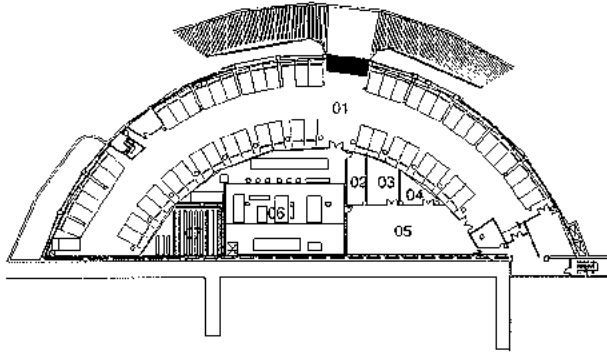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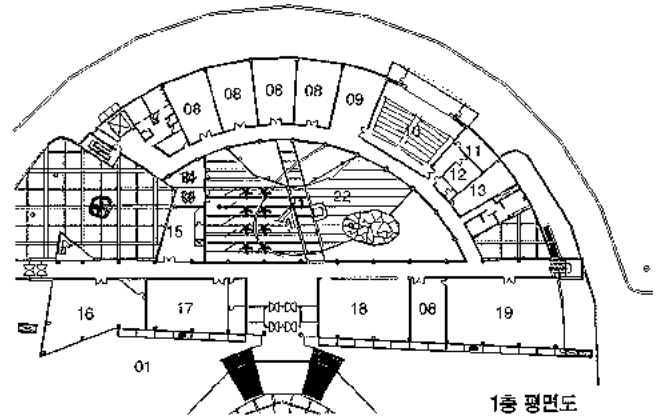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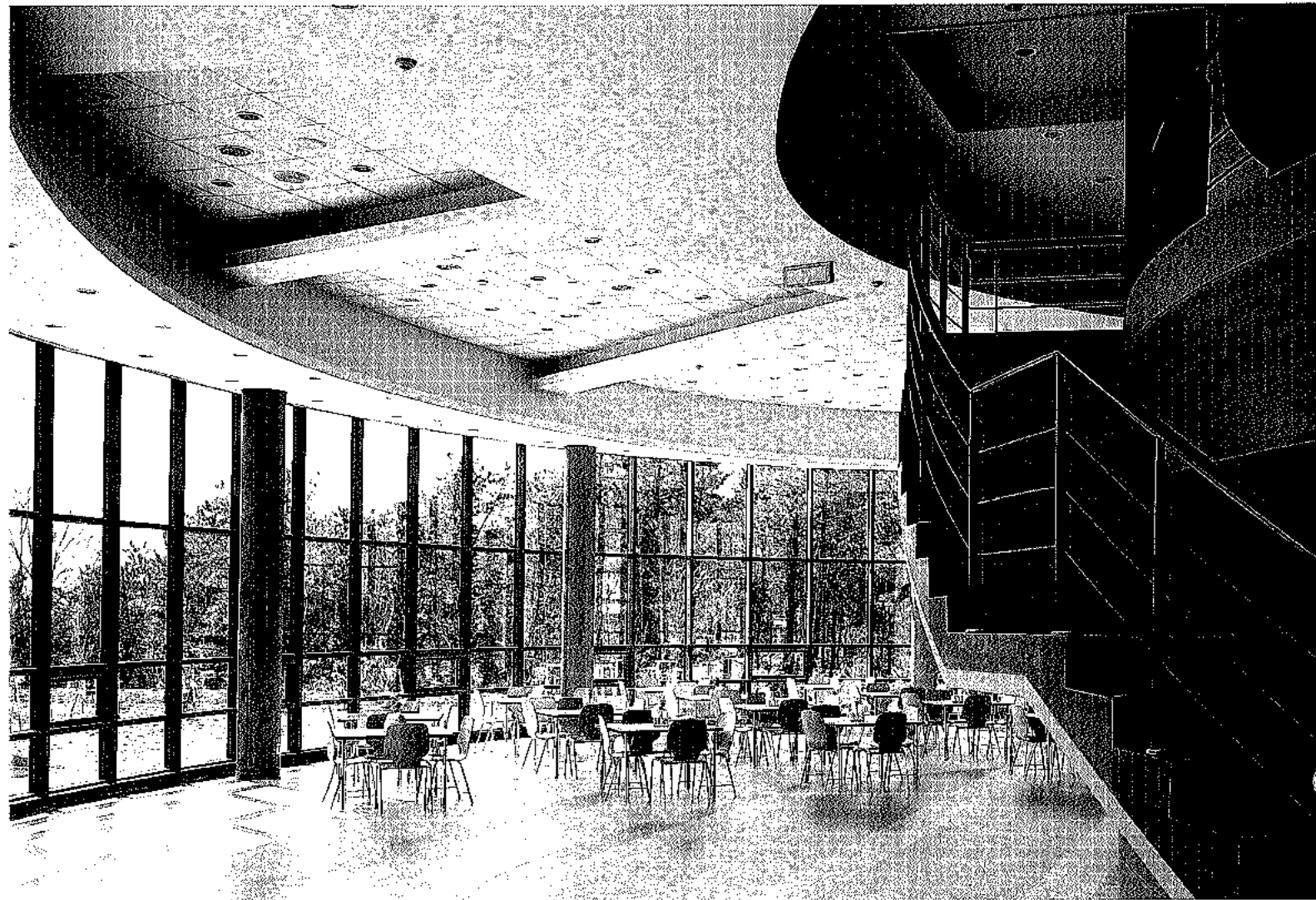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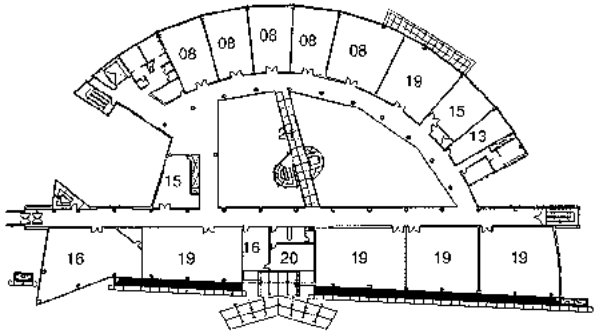
지하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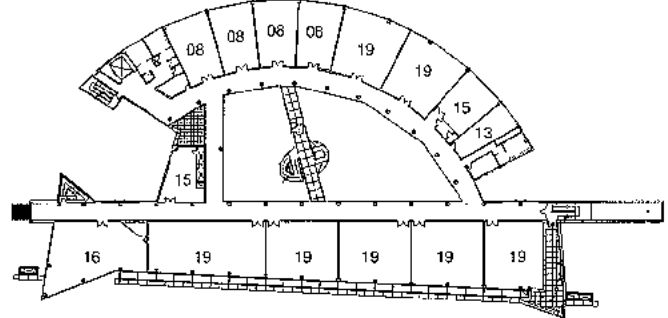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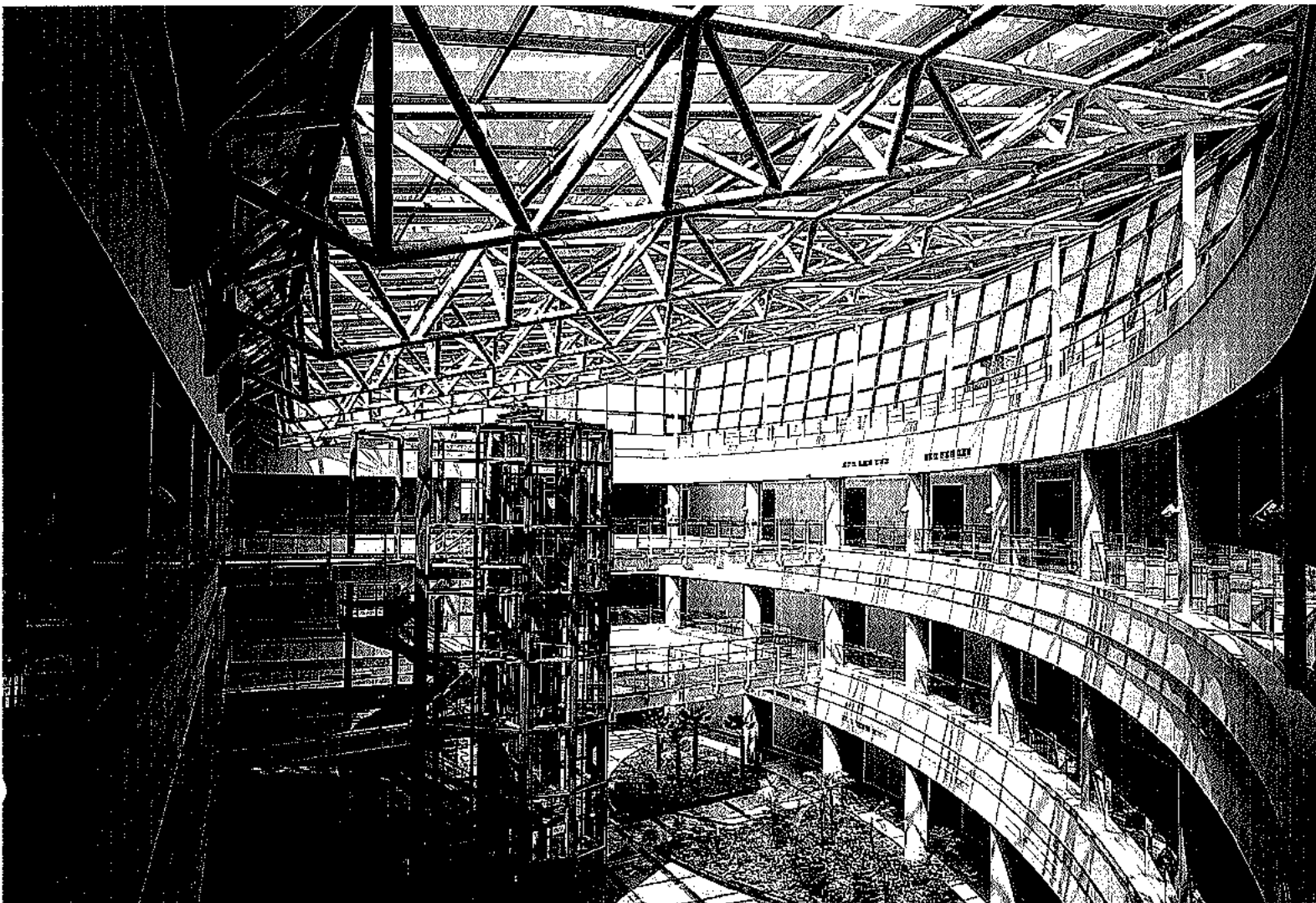
- | | |
|-----------|---------------|
| 01. 주차장 | 12. HAU, RM |
| 02. 중앙감시실 | 13. 전산실 |
| 03. 비상전기실 | 14. 집전실 |
| 04. UPS실 | 15. A.H.U |
| 05. 전기실 | 16. 회의실 |
| 06. 기계실 | 17. 사무실 |
| 07. 지하저수조 | 18. Show Room |
| 08. 실험실 | 19. 연구실 |
| 09. 홀 | 20. 소장실 |
| 10. 강당 | 21. 연결복도 |
| 11. 감사대기실 | 22. 아트리움 |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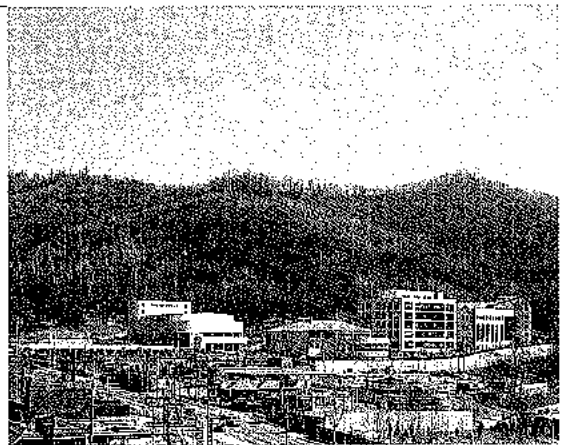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Seoul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이영일 / (주)예성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Il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637-2번지외 45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54,623㎡
건축면적	10,475㎡
연 면 적	37,379㎡
건 폐 율	19.18%
용 적 륜	55.03%
용 도	교육연구시설
규 모	관리 및 교육동, 강당동, 후생동, 숙박동, 지하주차장, 수영장
외부마감	THK30 문경석 버너구이, THK18 칼라복층유리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채수옥)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산하 20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나라의 어린 인재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연수 시설은 가장 중요한 교육시설이다.

예술의 전당을 지나 사당동 방향의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한 연수원 부지는 우면산을 남동으로 접하고 있어, 남부순환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고 우면산에 접한 조용한 연수환경을 조성하며 연수시설로 인한 남부순환도로변의 가로 경관에서 우면산의 조망을 가급적 해치지 않도록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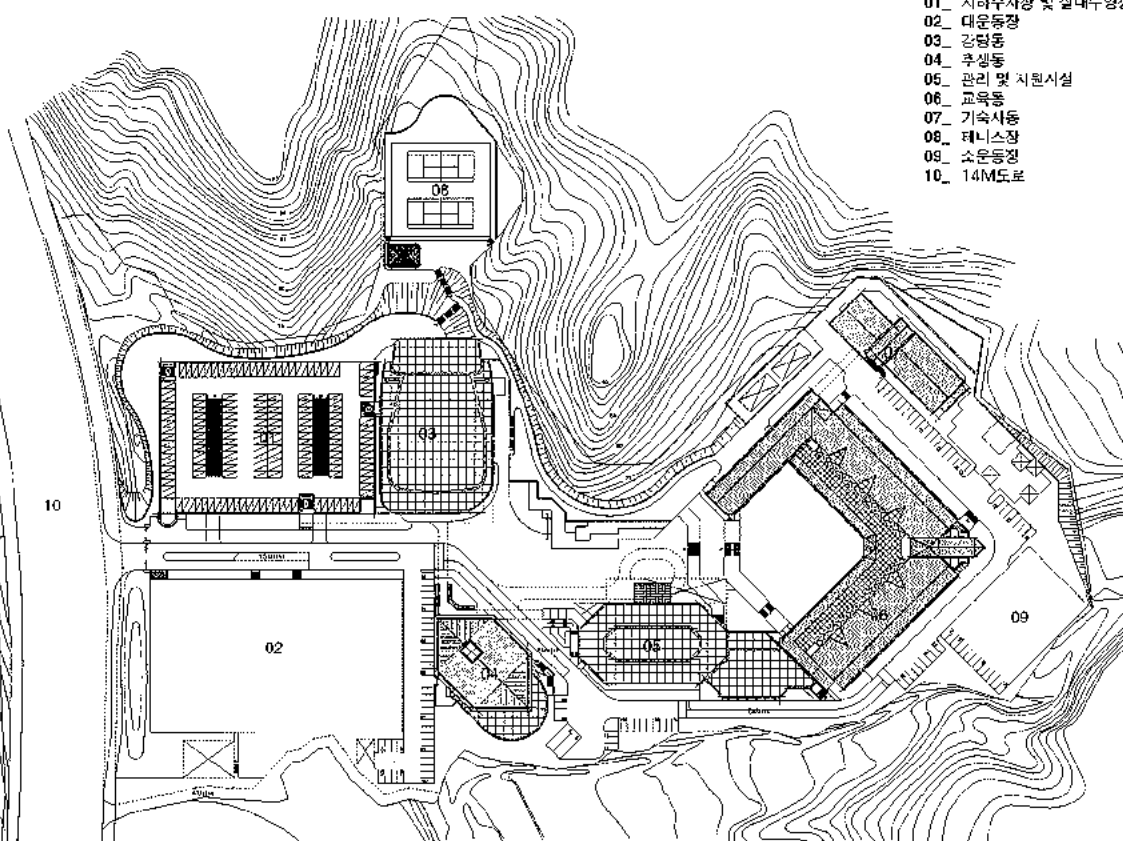
남부순환도로에는 인공언덕(mounding)을 조성하여 식목한 사이로 첫번째 정면에 들어서면 좌측으로는 주차시설, 우측으로는 운동장이 배치되어 있고, 두번째 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좌측의 강당동과 우측의 식당동(지하 운동시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경계벽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차단효과와 순환도로변 건물과의 이격효과를 고려하였다. 또, 강당동을 초입에 배치하여 외부행사 연수 교육시설과의 중복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당이용과 주차시설 등의 편의 시설에 접하도록 하였다.

다시 안으로 들어서면 우면산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리동을 배치 하였고, 약간의 언덕을 올라서면 삼면이 산으로 둘러 싸여있는 연수 교육동의 중심에 들어서게 된다.

연수 교육동을 지나 뒷미당에는 소규모의 숙박시설이 산을 뒤로하고 배치되어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평면 구성에서는 관리동의 저층부에 관리시설을 상부에는 교수연구시설이 배치되어 교육동과 연결되어 있고 교육동에는 강의실과 소규모 강당이 계획 되었고, 최신 시청각 교육시설 등이 갖추어졌으며 자연채광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식당동에는 교육생들이 대형 유리창을 통하여 산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하에는 운동장과 연계된 약간의 실내 운동시설과 샤워장 등을 만들었다. 강당동은 음향 효과 등을 고려한 내장미감과 무대시설을 만들어 대규모의 공연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숙박시설에는 숙박과 간이식당 및 간이 운동시설 등이 계획되었다. 또한 입구의 주차시설의 지하에 수영장을 배치하고 천창을 통해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각동은 우천시를 고려하여 지하통로로 서로 연결되었으며 통로의 상부는 각동의 배관 배선 공동구로 겸용토록 고려되었다.

외관은 문경석 버너구이로 전체동을 통일 색상으로 통일되게 마감하여 약간 붉은색의 온화한 느낌과 산의 수목들과 잘 조화되도록 하였고 지붕은 동판으로 시공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고색창연한 전통있는 연수시설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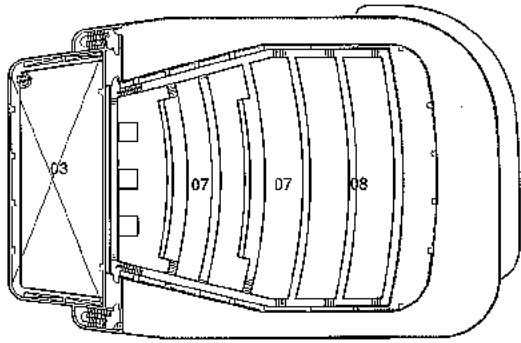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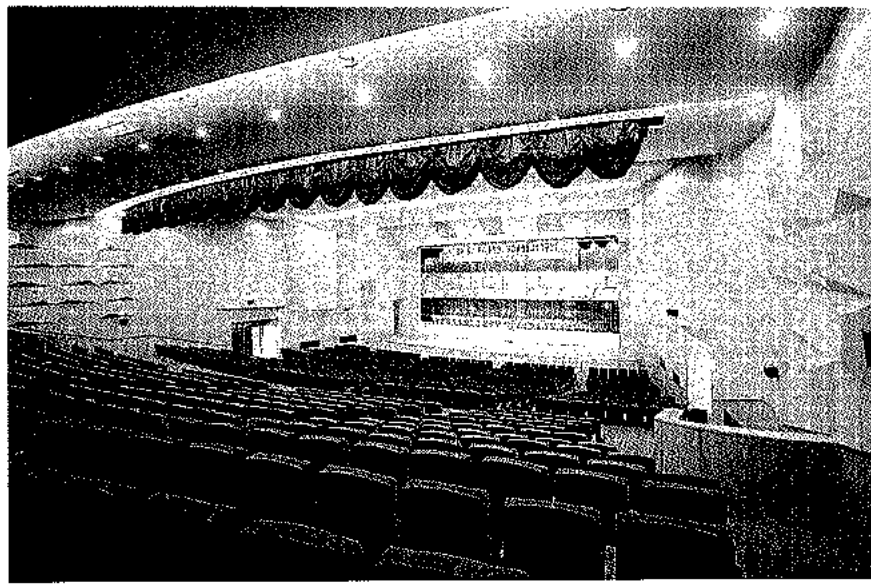


- 01_ 지하주차장 및 실내수영장
- 02_ 대운동장
- 03_ 강당동
- 04_ 추생동
- 05_ 관리 및 지원시설
- 06_ 교육동
- 07_ 기숙사동
- 08_ 테니스장
- 09_ 소운동장
- 10_ 14M도로

0 5 10 2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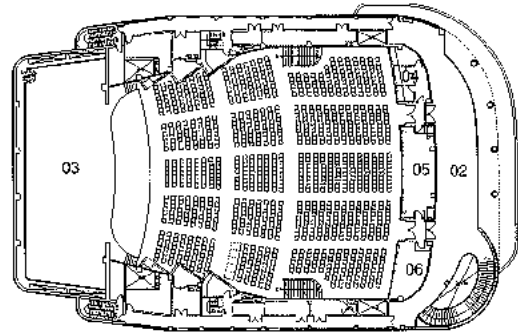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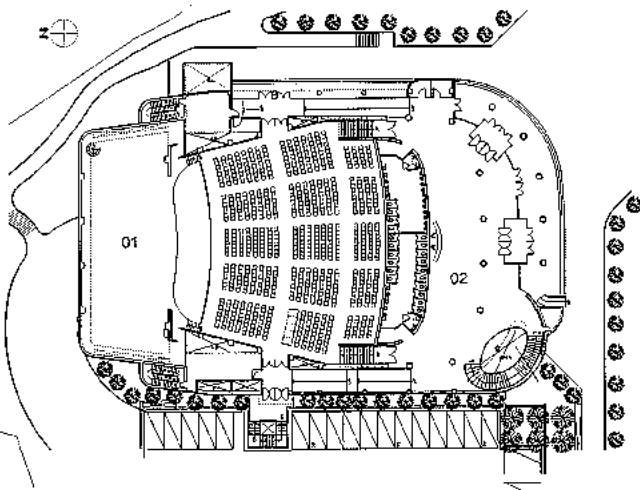


강당동 케트 워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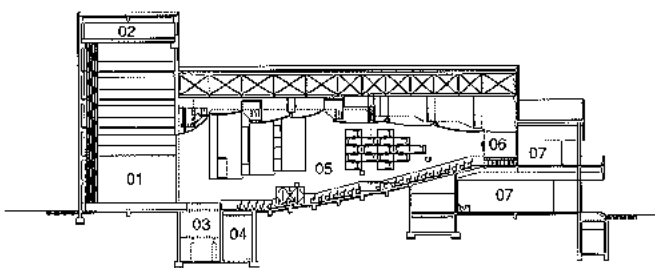
- 01_ 무대
- 02_ 로비
- 03_ 무대상부
- 04_ 영사실
- 05_ 영사실
- 06_ 음향조정실
- 07_ 무광실
- 08_ 케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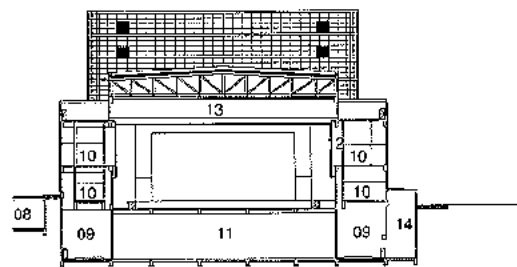
강당동 2층 평면도



강당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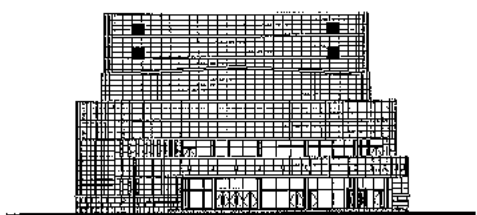
강당동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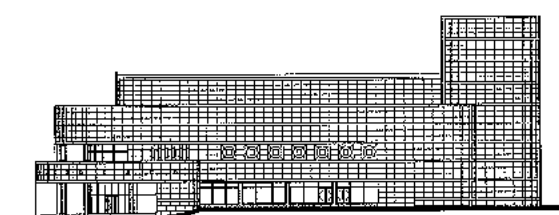
강당동 횡단면도

0 2 10
1 5

- 01_ 무대
- 02_ 무대상부 기계실
- 03_ 오케스트라 피트
- 04_ 공조실 피트
- 05_ 객석
- 06_ 영사실
- 07_ 로비
- 08_ 주차장
- 09_ 공조실
- 10_ 준비실
- 11_ 공조실 피트
- 12_ 조명실
- 13_ 푸광실
- 14_ 장비 반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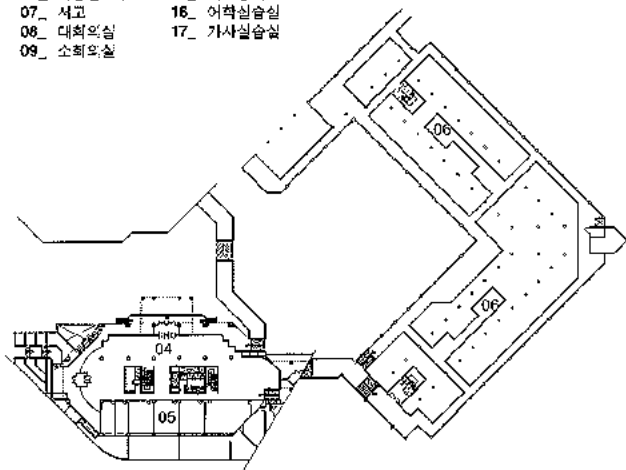
강당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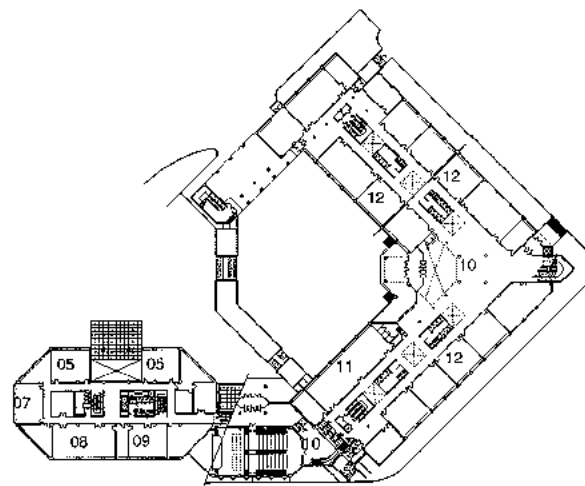
강당동 우측면도



- | | |
|-----------|-------------|
| 01_ 기계실 | 10_ 홀 |
| 02_ 전기실 | 11_ 세미나실 |
| 03_ 공동구 | 12_ 소강의실 |
| 04_ 로비 | 13_ 교육정보자료실 |
| 05_ 사무실 | 14_ 문인토의실 |
| 06_ 학생승하부 | 15_ 어학강의실 |
| 07_ 서고 | 16_ 어학실습실 |
| 08_ 대회의실 | 17_ 가사실습실 |
| 09_ 소회의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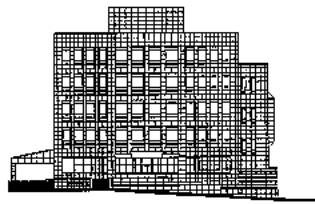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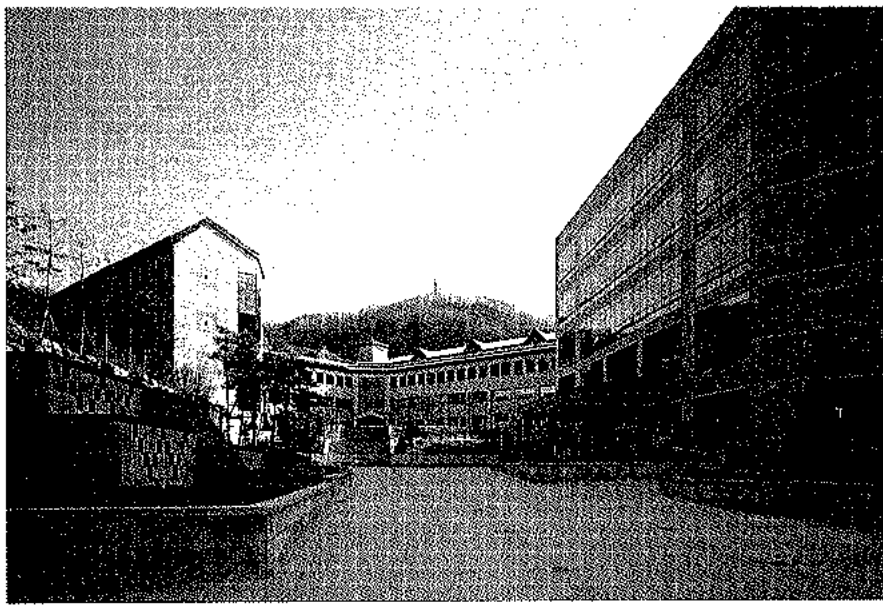


관리동 1층, 교육동 PIT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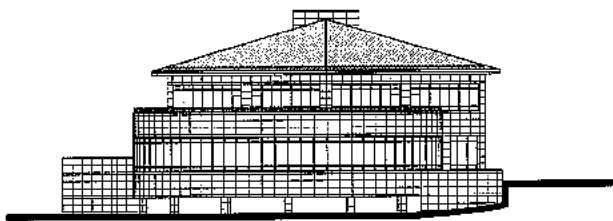


0 2.5 10 20

관리동 2층, 교육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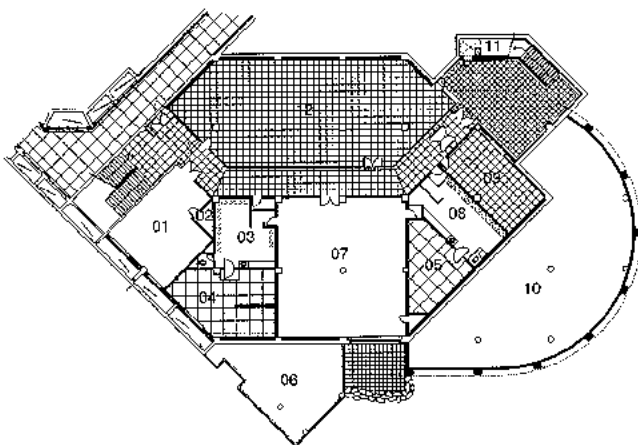
02 5 10 20 교육동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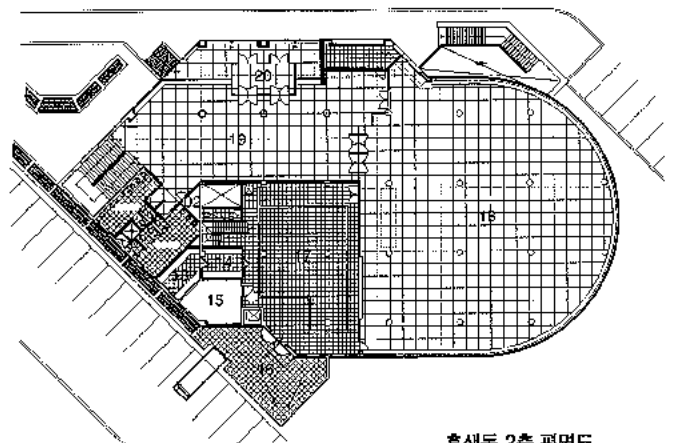
02 5 10

후생동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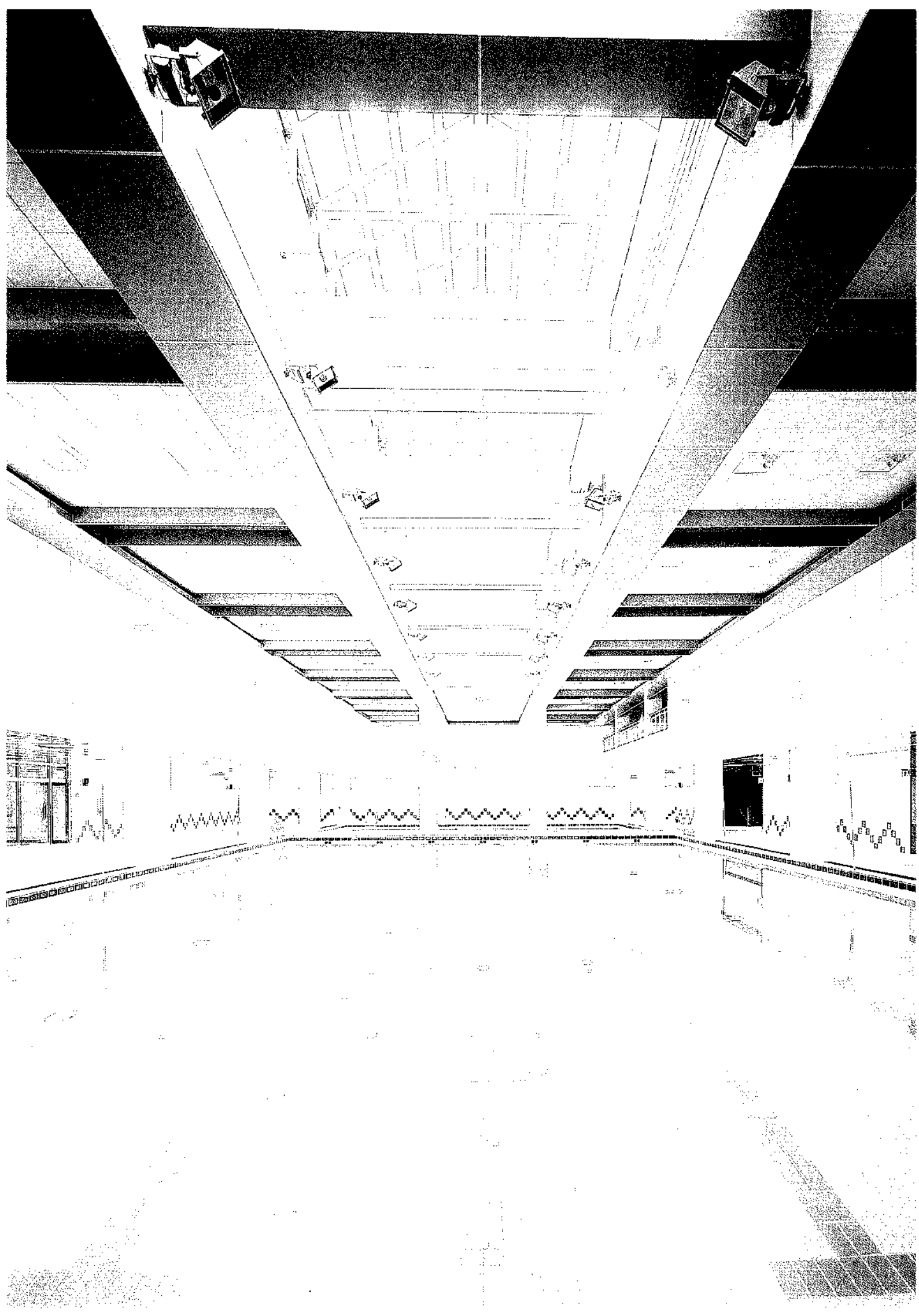
- | | | |
|------------|--------------|----------|
| 01_ 공조실 | 06_ 강의실(여) | 15_ 주식창고 |
| 02_ 전기실 | 09_ 작업대기실 | 16_ 작업장 |
| 03_ 말리실(남) | 10_ 식당하부 | 17_ 주방 |
| 04_ 샤워실(남) | 11_ 펌프실 | 18_ 식당 |
| 05_ 샤워실(여) | 12_ 대청, 복지시설 | 19_ 로비 |
| 06_ 작업장하부 | 13_ 냉동고 | 20_ 방품실 |
| 07_ 체력단련실 | 14_ 냉장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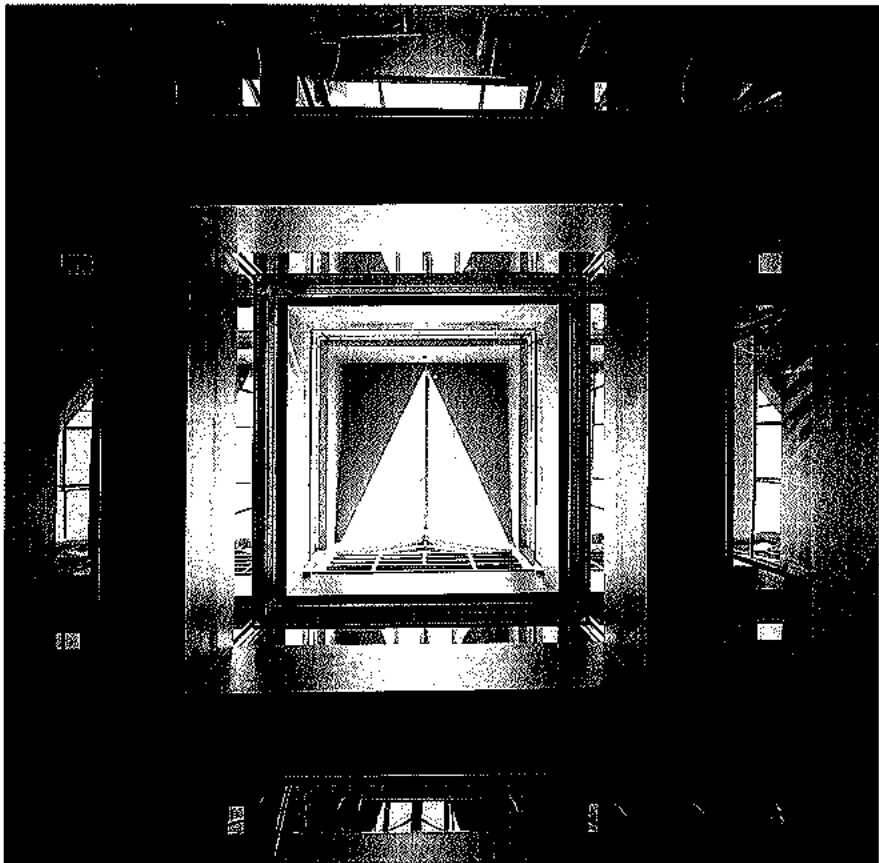


후생동 1층 평면도



후생동 2층 평면도





중곡2동사무소+파출소

작품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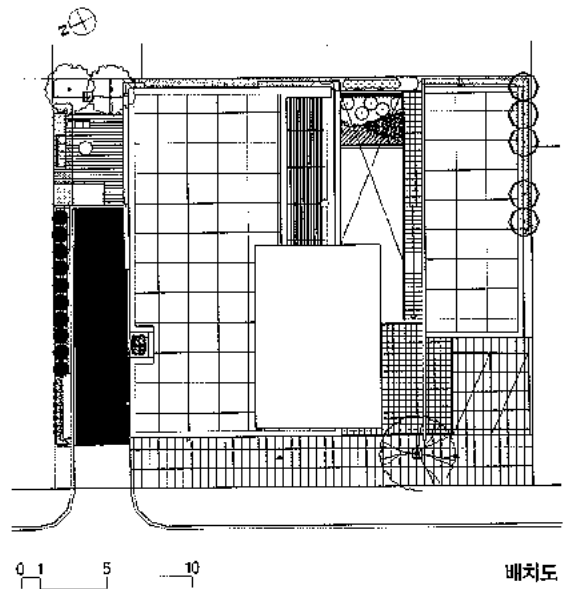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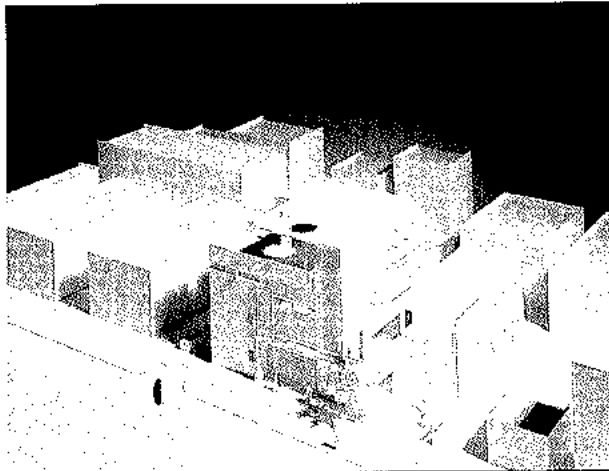
review

Junggok 2-dong Office & Police Station

최동규 / (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Dong-Kyu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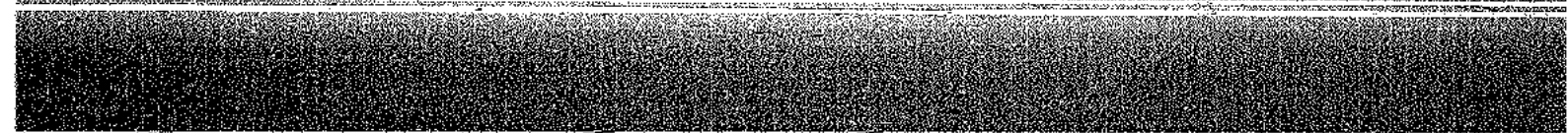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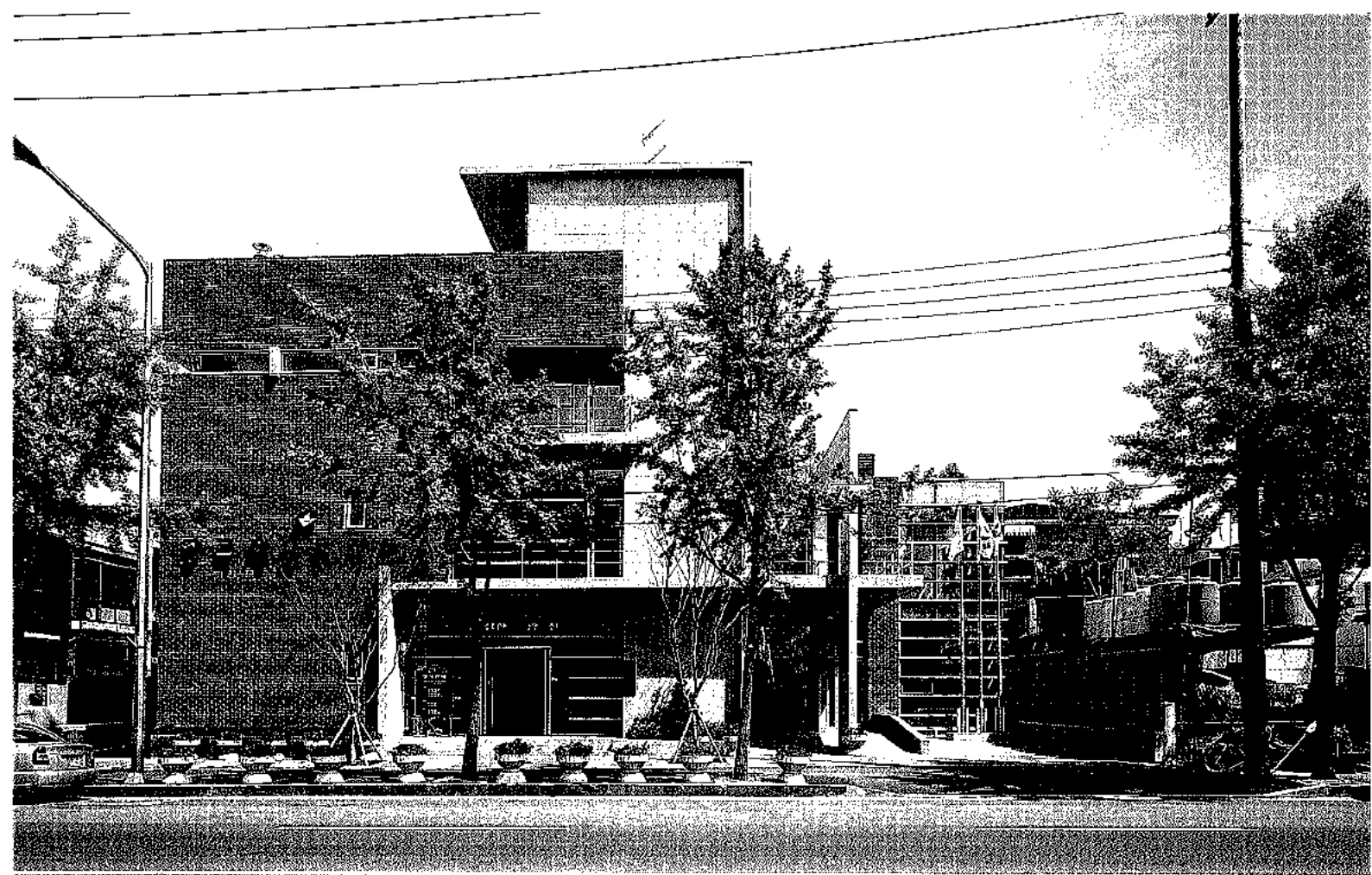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47-33외 1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비관지구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707.10㎡
건축면적	403.22㎡
연면적	1,391.99㎡
건폐율	57.02%
용적률	133.90%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노출콘크리트, T18mm복층유리, 적벽돌치장쌓기
설계담당	정 협, 주원태, 김종원, 김인철
구조	산이구조
설비	기한ENG
전기	성일ENG
토목	바이텍
감리	서인건축
시공	효대건설
설계기간	2000. 10. 10. ~ 2001. 3. 21.
공사기간	2001. 5. 9. ~ 2002. 5. 17.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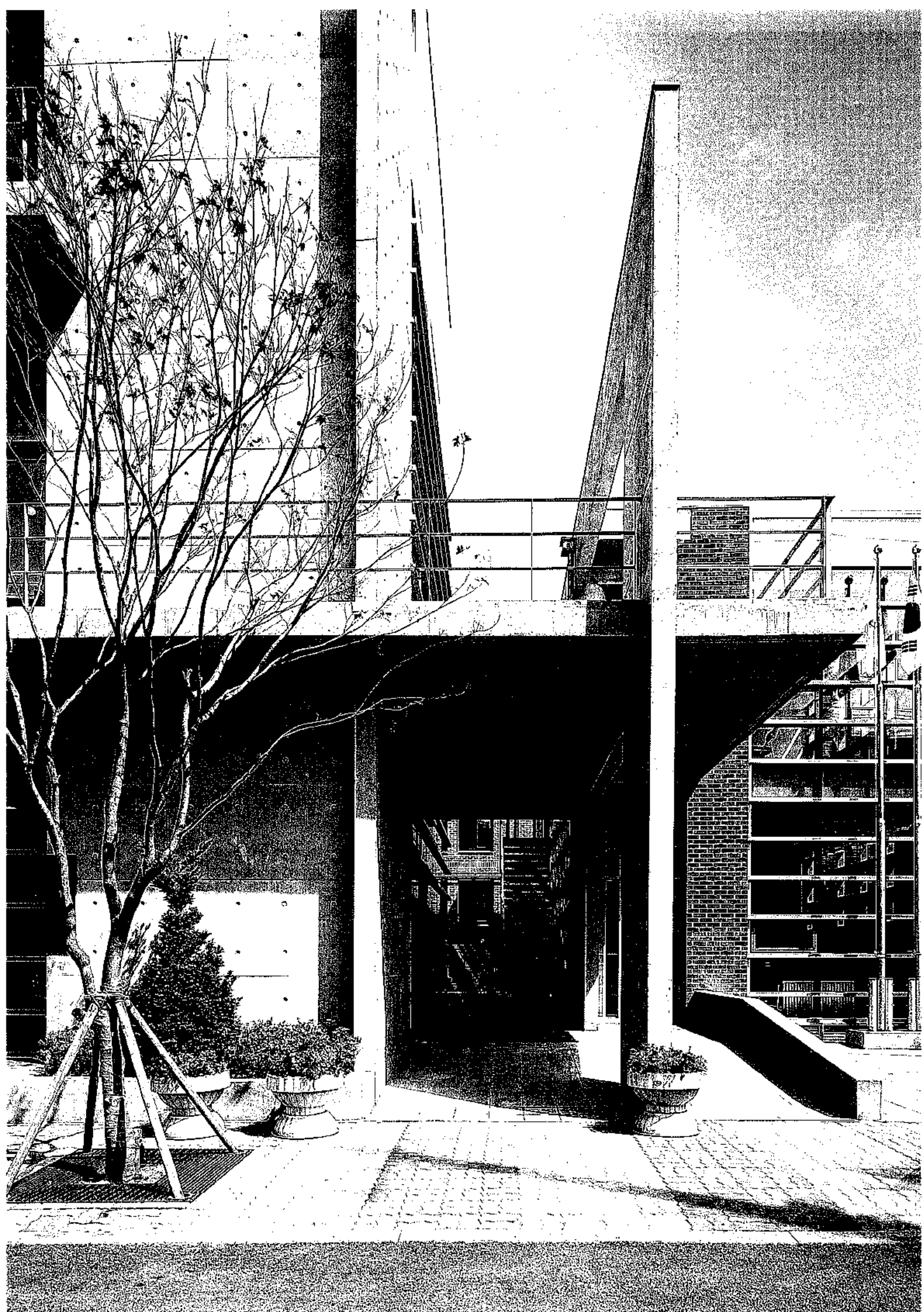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2000년 연말에 2주일간의 기한을 가지고 응모한 현상설계 당선안이다. 동화와 파출소 및 동대본부, 또 동민들의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소강당 등이 필요면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동안 필요한 기능의 해결에 급급했던 자세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공공시설로서 공공영역의 공간을 이 시설 내에 포함시킬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작지만 동화와 파출소 건물사이에 선곡식의 작은 마당을 두어 세 개의 성격이 다른 시설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공유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면 부수적으로 지하에 있는 주차장 및 식당에는 자연히 환기 및 채광이 가능하게 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가지 이 시설에서 고려했던 사항은 동대본부인데,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파악하여 동화와 파출소 사이의 공간에서 직접 이층의 동대본부로 갈 수 있는 경량철제 일자계단을 마련해 준 것이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작은 마당은 중요한 시각적 타깃이 된다.

또 파출소 일층 중 후면 마당 쪽은 원하지 않는 이층이 되었는데, 이곳에 발코니를 두어 마당 및 동화의 시각적인 교류를 꾀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발코니 혹은 테라스형식은 파출소 이층에도, 또 동화삼층 강당옆에도 존재하여 모든 부분에 외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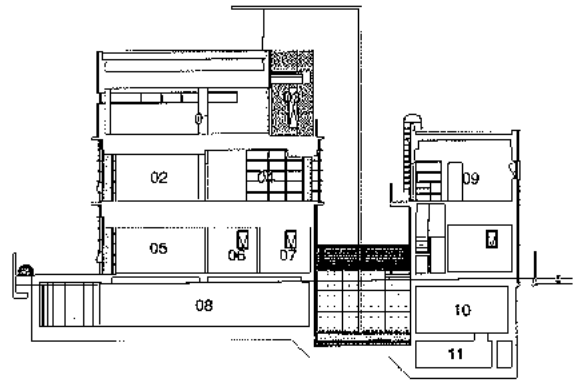




간이 미려되어 작은 규모의 건물에서도 비교적 풍성한 외부공간의 경험, 또 외부에서의 눈높이 차이에 따라 벌어지는 시각적 조우를 꾀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려는 결국 건축이라는 제약이 있는 무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어떻게 지루하지 않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건축적 장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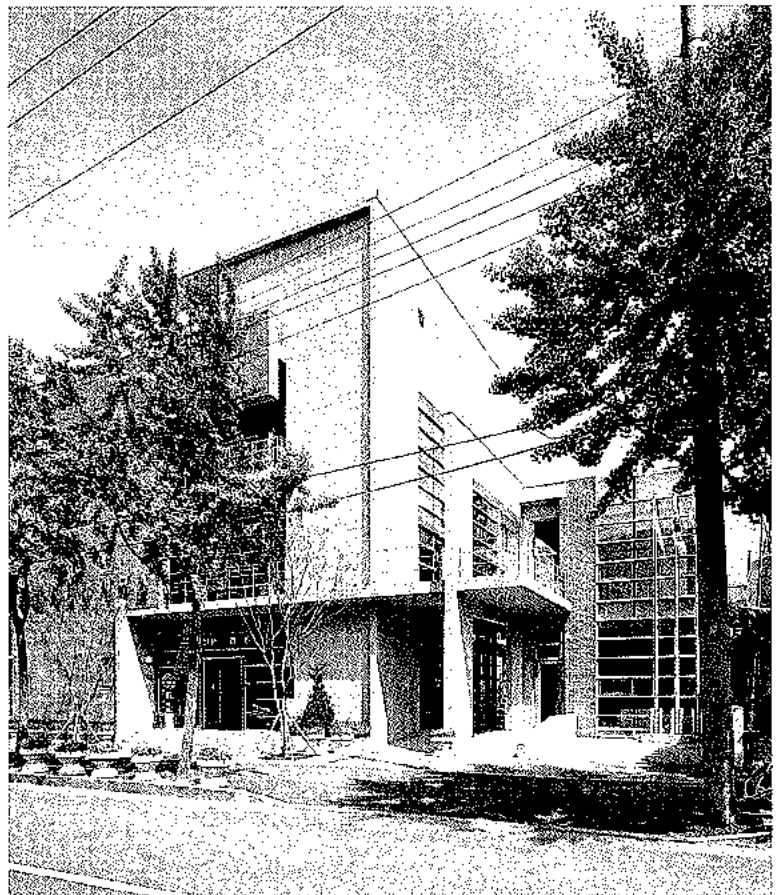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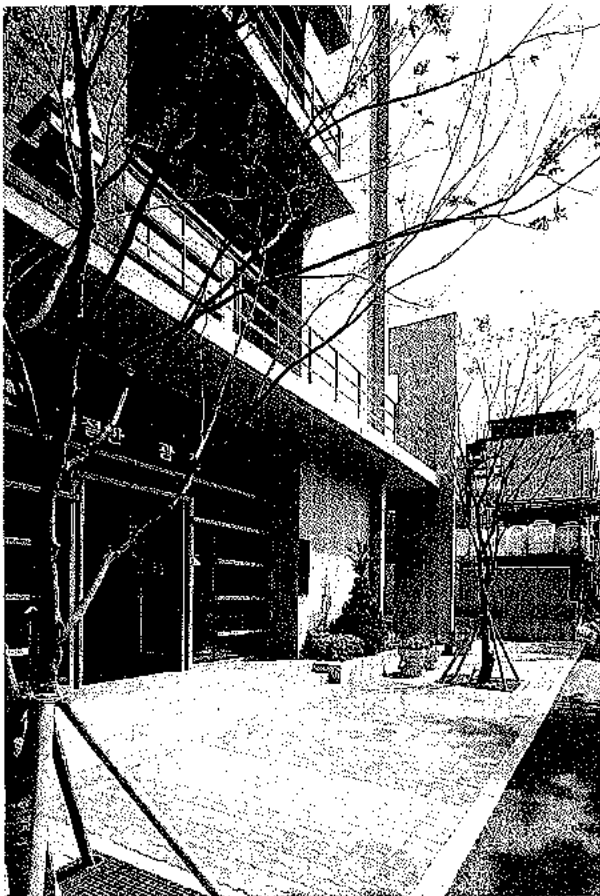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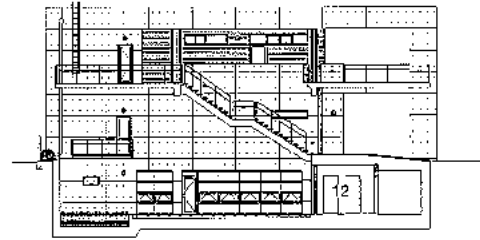
이러한 고려들이 집약되어 제례의 동회와 파출소의 모습을 일신하여 거주민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행정기관의 구호와 일치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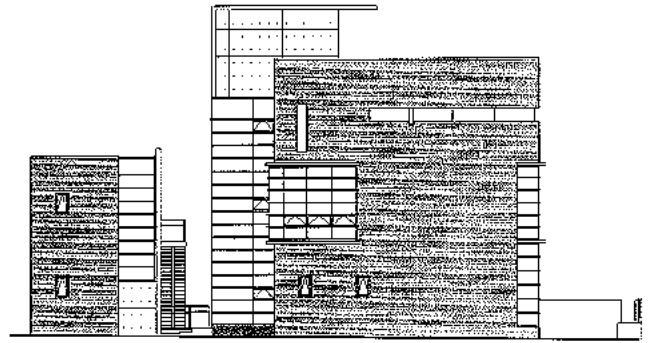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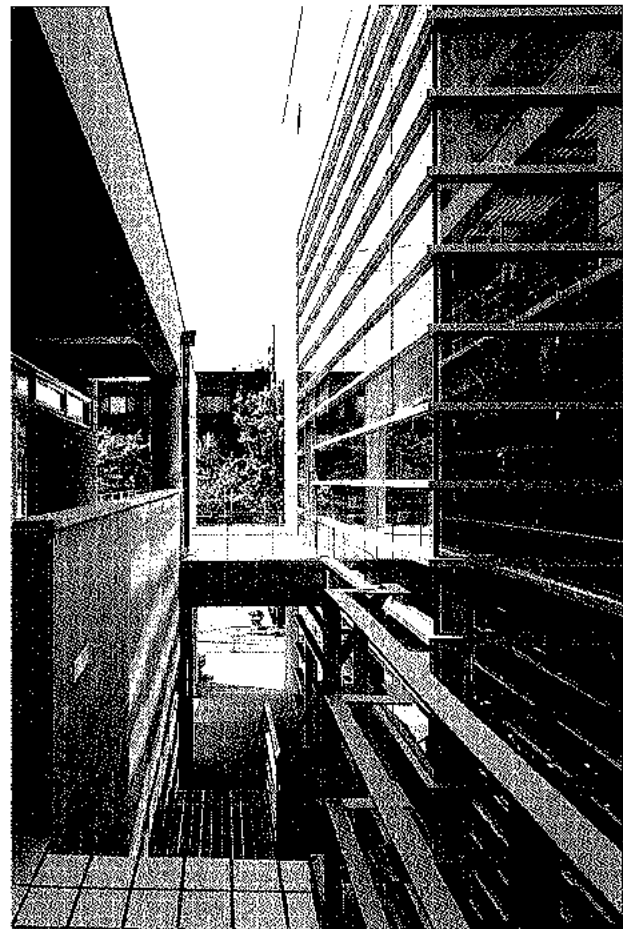


0 1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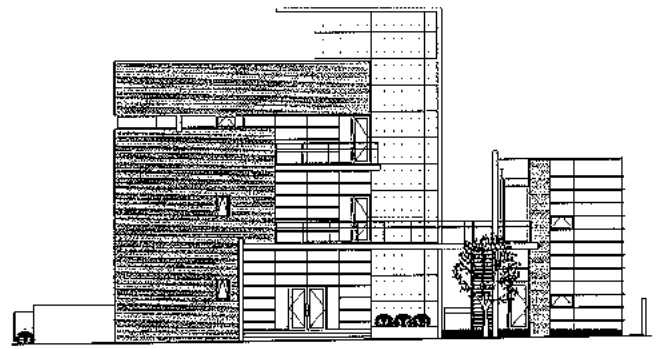
주단면도

- 01_ 대회의실
- 02_ 휴미실
- 03_ 휴게대크
- 04_ 인터넷정보방
- 05_ 동경실
- 06_ 전신실
- 07_ 문서고
- 08_ 주차장
- 09_ 식당
- 10_ 주방
- 11_ 진수정
- 12_ 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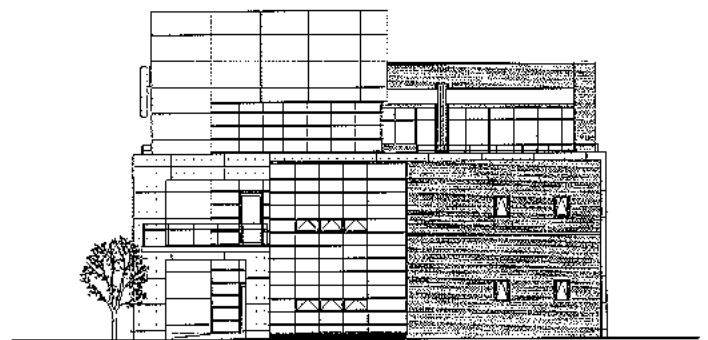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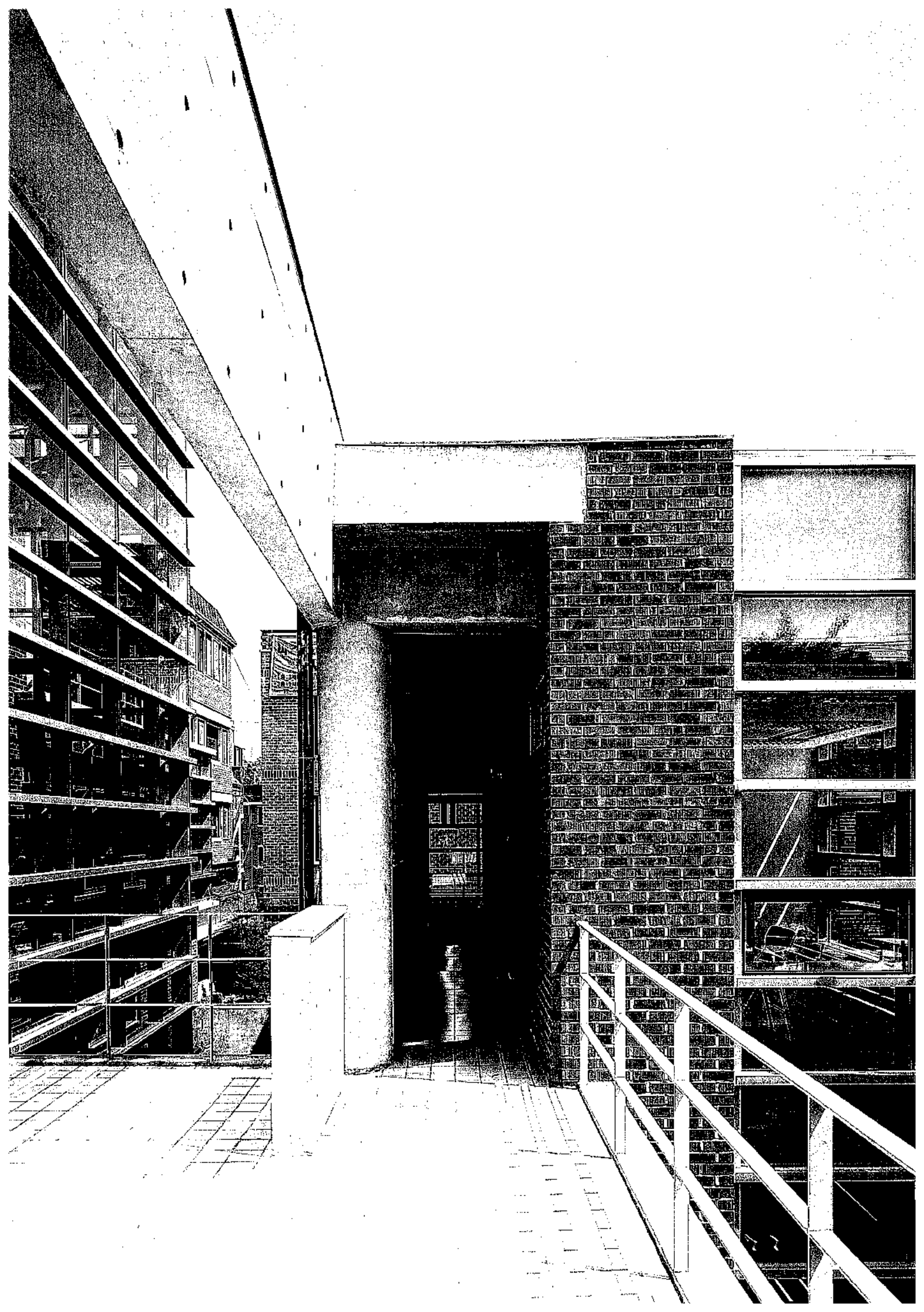
비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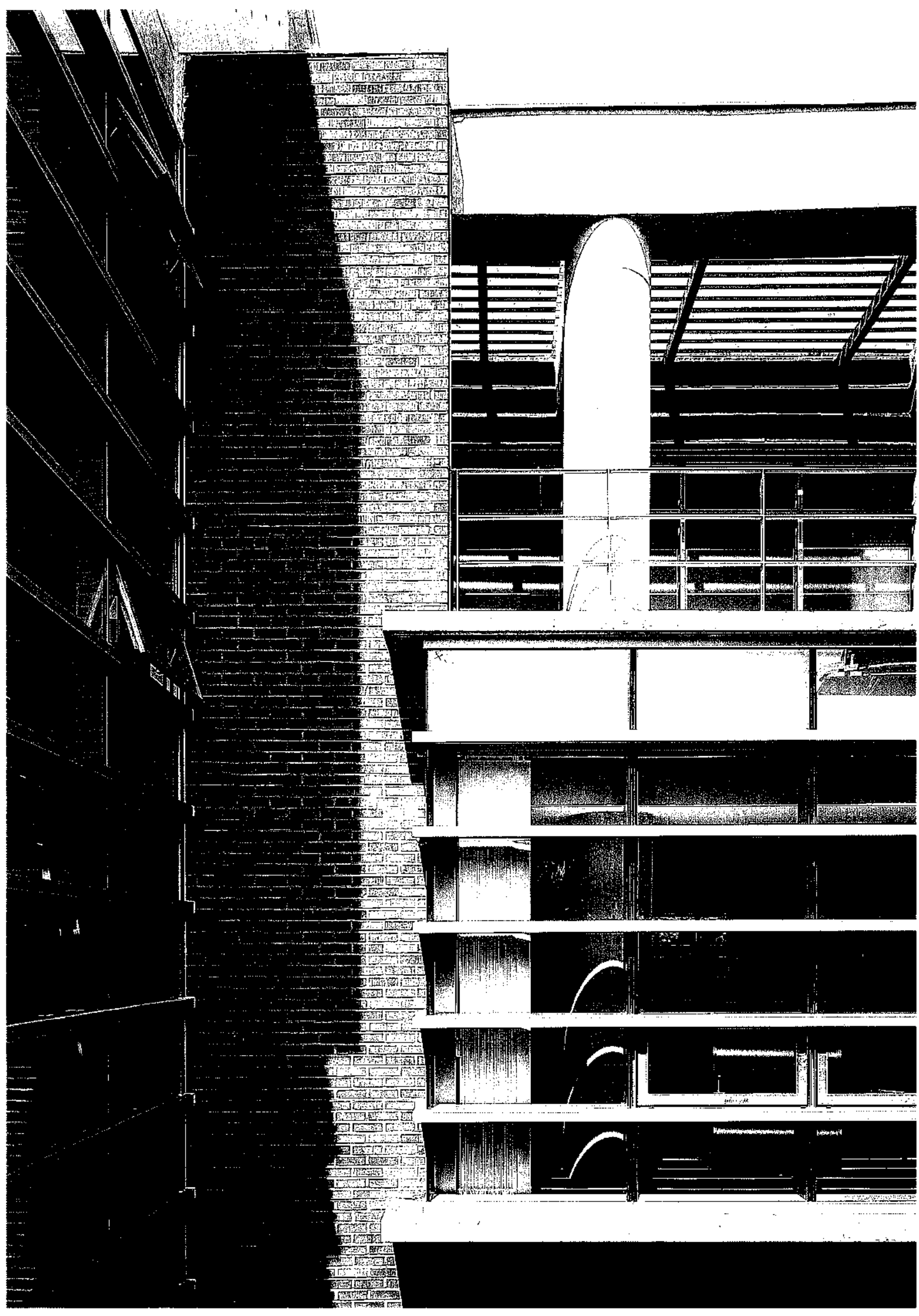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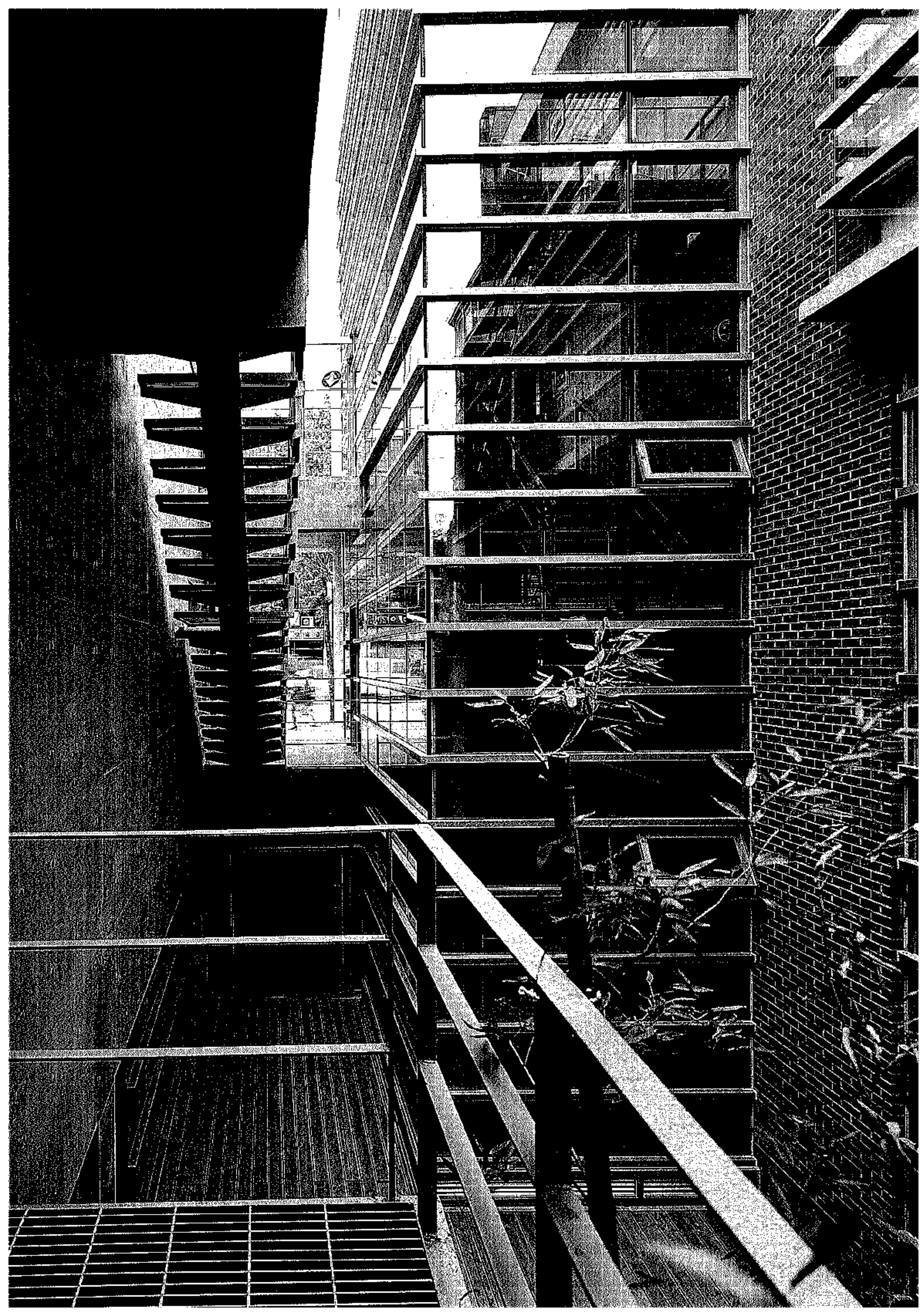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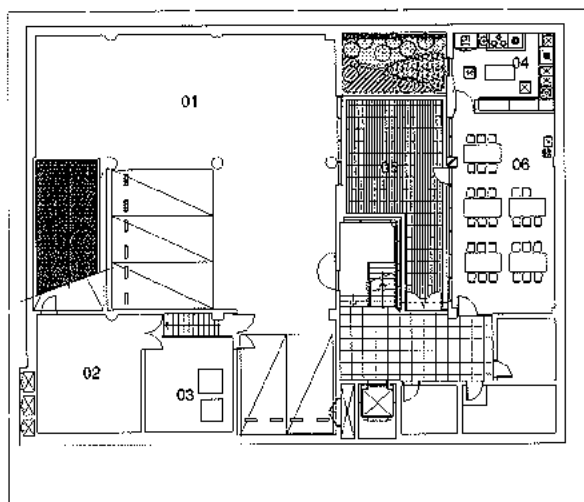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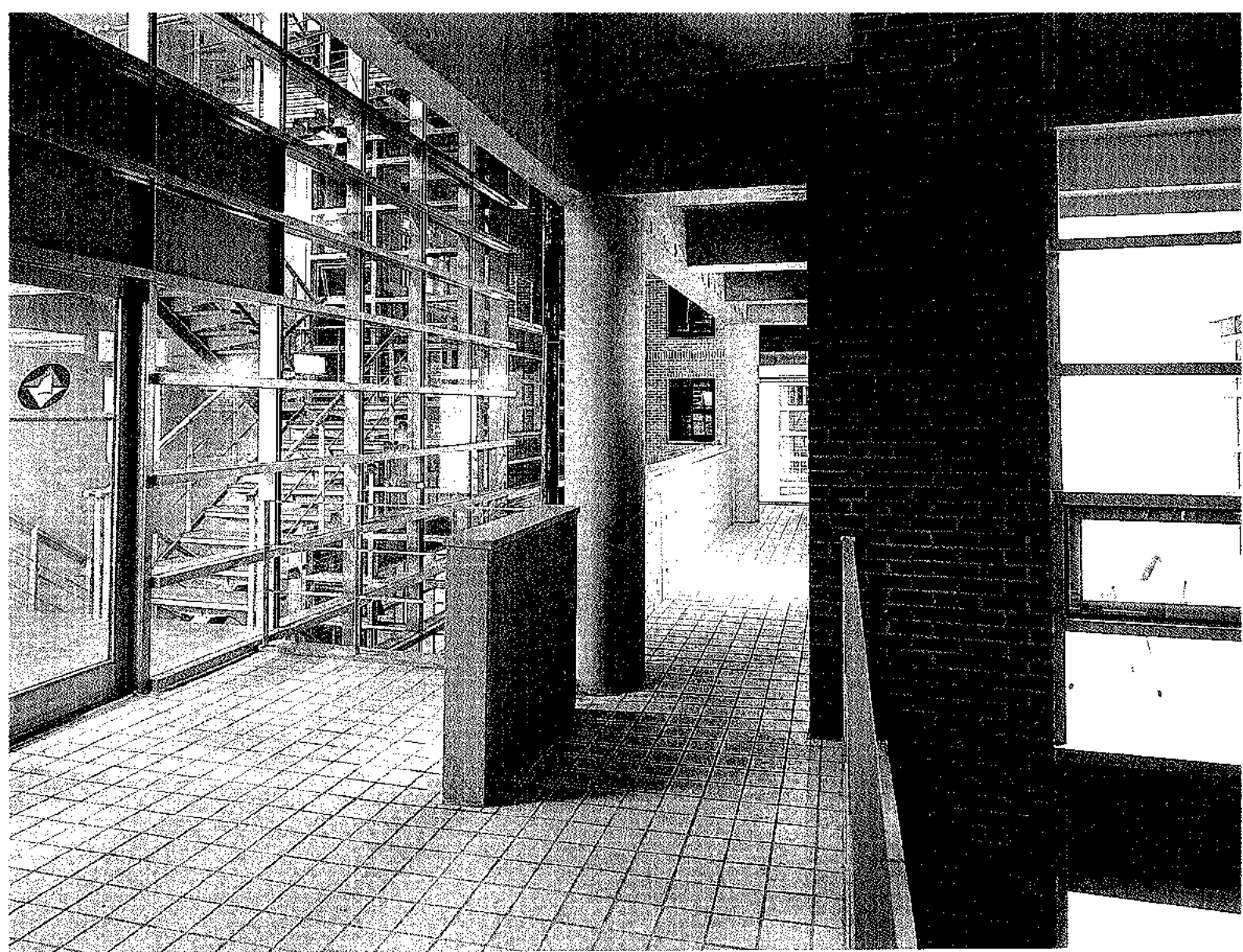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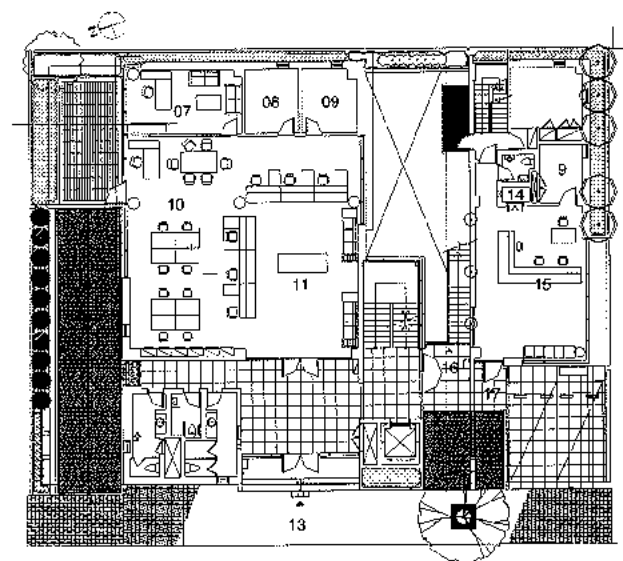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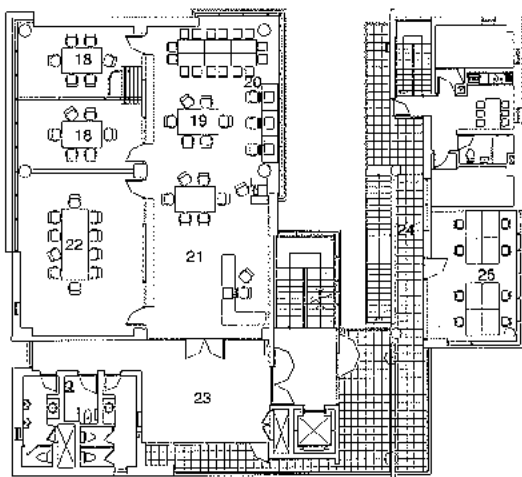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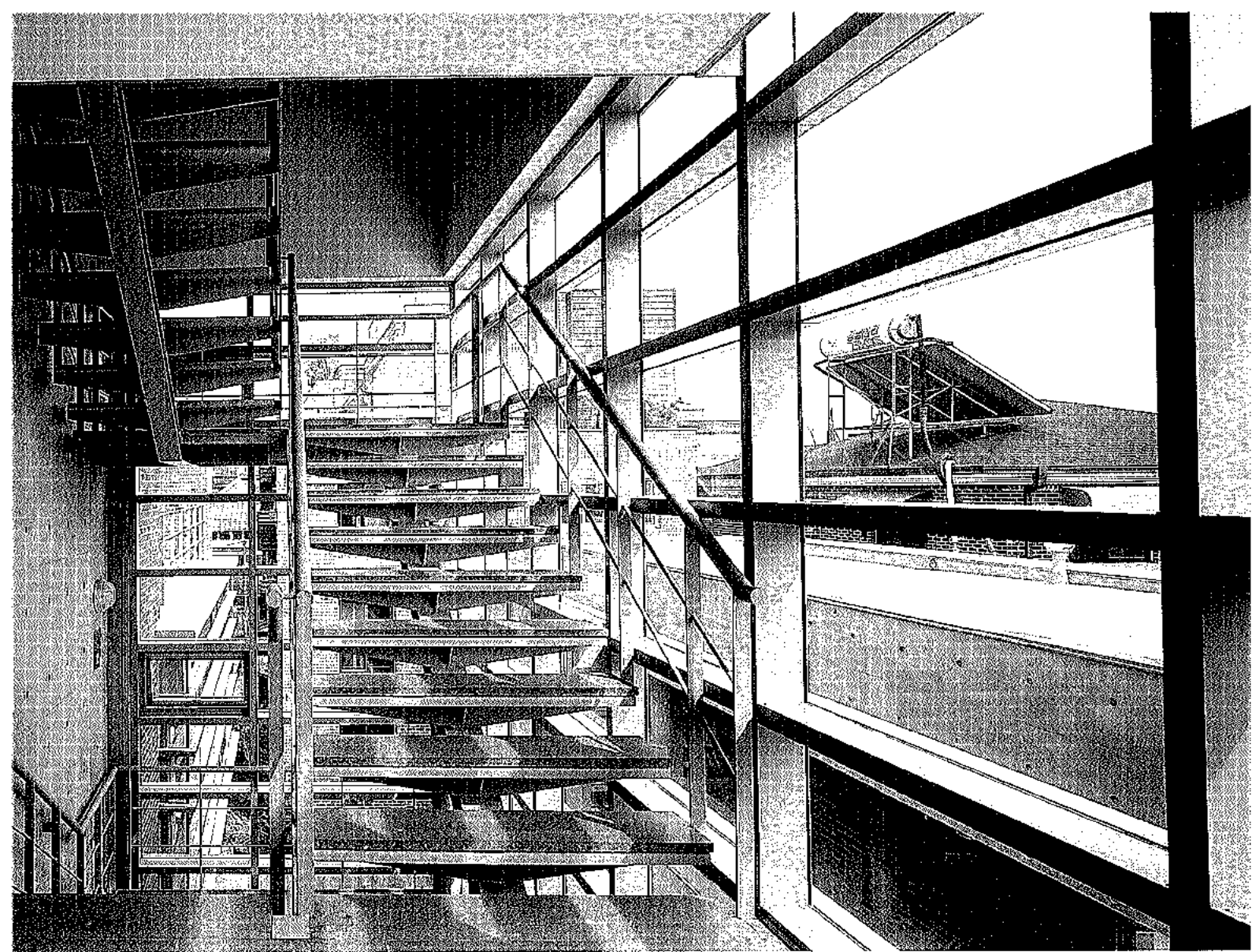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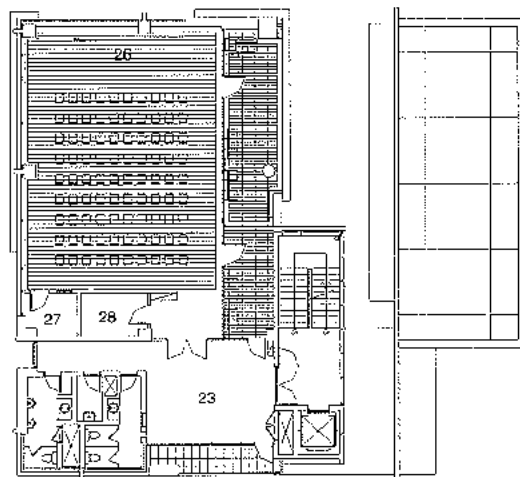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0 1 5 10

- 01_ 주차장
- 02_ 전기실
- 03_ 기계실
- 04_ 주방
- 05_ 선반
- 06_ 식당
- 07_ 동경실
- 08_ 전산실
- 09_ 문서고
- 10_ 민원대
- 11_ 동민원실
- 12_ 주차장 승업
- 13_ 동민원실 승업
- 14_ 무기고
- 15_ 과충소민원실
- 16_ 동대본부 승업
- 17_ 파충소 승업
- 18_ 회의실
- 19_ 도서열람
- 20_ 인터넷검색
- 21_ 민원넷정보방
- 22_ 소회의실
- 23_ 홀
- 24_ 회랑
- 25_ 동대본부
- 26_ 대회의실
- 27_ 음향조정실
- 28_ 탐의실

박탈된 것의 영토화를 위하여

To Territorialize the Privatized

이종건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by Jongkeu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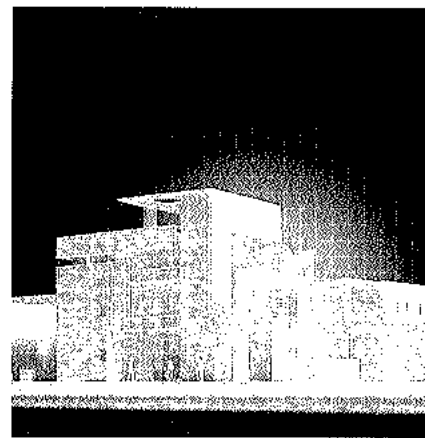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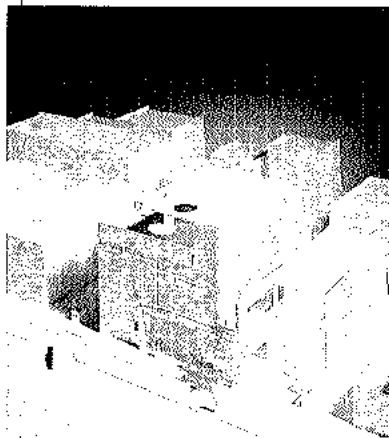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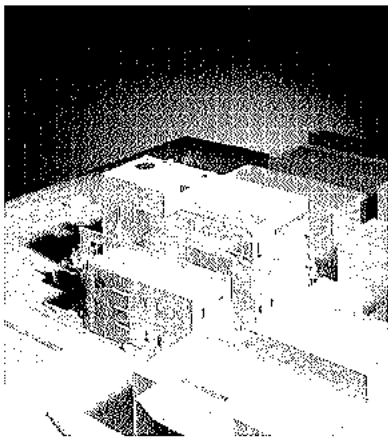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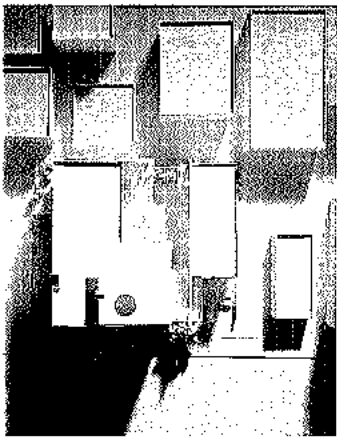
건축은 무엇보다 땅의 예술이요, 땅에 대한 예술이요, 땅을 위한 예술이다. 굳이 비트루비우스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그에 따르면 건축이란 땅 가꾸기, 시간-기계, 그리고 건물로 구성된다) 건축은 땅에서 벌이는,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온당한 정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땅을 채우고, 또 그 땅은 어떻게 차지(영토화)하는지, 건축가 뿐 아니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리 심각하게 묻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물음들은 바깥(예컨대, 한나 아렌트와 질 들뢰즈 등)으로부터 온다. 마치 “강렬한 중심은 영토의 바깥에 놓여 있으며, 영토들이 수렴하는 매우 상이하고 매우 멀리 떨어진 점”으로 존재하고 있듯이 말이다.

건축을 공공예술이라 한다. 이 명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것이 상품으로 현상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가? 역사적으로 보건대, 건축은 늘 집단적인 의미(산성이며, 신화이며, 권력이며, 기억이었다)를 담보했다. 개인의 가치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열망하고 찬양하는 무엇을 표상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찬양할 것을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곧 건축이라 말했다. 건축의 역사는 따라서, 기념비적인 것의 끊임없는 펼침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탈역사의 조건(역사는 더 이상 선형적으로 전개하는 지배적인 어떤 성질의 진보의 흐름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분기



한 채 앞으로 혹은 피차 충돌하며 방향없이 떠도는 무수한 흐름들이라는 시각)에서, 역사중언의 시대에서, 건축의 공공성을 더 이상 역사적 사건들로 정당화하고 합법화 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사유화되어 버린, 그렇지만 반드시 소유된 것만은 아닌(소유는 사유화와 달리, 외부의 무엇을 자기의 고유한 성분으로 변화시킬 때 자기화 할 수 있고, 그럴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 소비중심 사회에서, 땅 또한 건축의 공공성을 떠받치는 지지대일 수 없다. “공적인 것이 사적이 기능을 하는 까닭에”, 그리고 “사적인 것이 유일한 공동의 관심사로 남기 때문에”, 어쩌면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공공성은 이미 더 이상 유효한 언어가 아닐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것을 박탈당한 사적 인간(사적이라는 용어 private는 본디 ‘박탈된’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 곧 정치 혹은 세계성을 기능케 하는 공적 영역이 박탈된 상태를 뜻한다)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모른다. 건축이 쇠퇴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그리고 사라져버린 것을 다시금 손에 쥐어 벌이고자 하는 일체의 건축활동은 노스텔지아의 연민어린 몸짓보다 더 공공한 한낱의 미몽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여전히 땅을 차지한다. 설령 그것이 영구한 대지는 아닐지라도. 설령 그것이 영속적인 시간은 아닐지라도. 건축은 심지어 허공에서도,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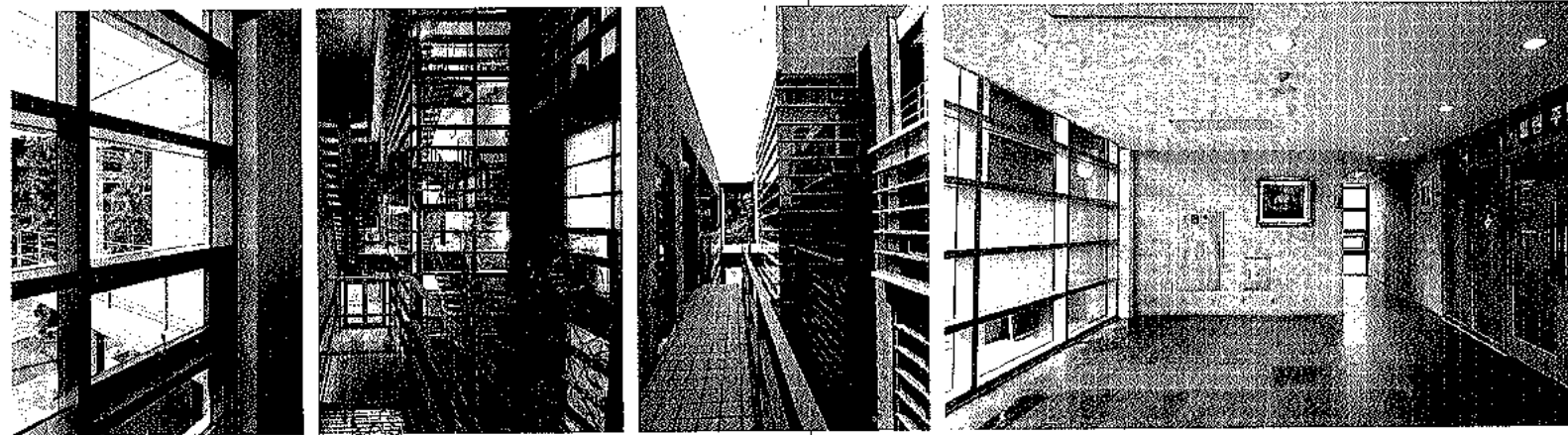


고 일시적이었지만 땅을 만든다. 건축은 본질적으로 영토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땅이 있어서 건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있는 한 땅은 생성된다고. 기념비적인 것은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공적인 것이 모조리 사라진 조건에서, 건축의 과업은 이제, 여하히 공적인 것(혹은 사적인 것)에 둘레를 쳐주어, 새로운 땅을 생성(영토화)시킬 수 있을지로 나타난다. 더 정확히 말해서, 공동성/집단성이라는 질료를 찾아 거기에 어떤 이름이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토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박탈된 것을 구속(救贖)하는 작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땅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천 개의 고원」에서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영토를 정의하는 것은 표현 질료(질)의 출현... 영토화는 표현력을 갖는 리듬을 만드는 행위거나, 질적인 것이 되는 환경의 성분이다.” 땅(영토화)은 한 마디로, 표현-화(devenir-expressif) 될 때, 곧 고유한 질의 출현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토화는 이미 예술적 행위이며, “예술은 무엇보다도 우선 포스터 혹은 플래카드”일 수밖에 없다. 고유한 질이란 모티브와 대위법을 통해 전개되면서 출현한다는 그의 영토화 이론을 여기서 상술할 여지는 없다. 다만, 영토는 필연적으로 코드가 갖는 자유의 여백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무엇을 삽입하고, 그것이 만드는 간격 속에 존

재하는 것들을 다시 배치시키는 과정이 개입한다는 것, 한 마디로 “기능들의 재조직화”, “힘들의 재그룹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능들을 삽입하거나, 기존의 기능들을 변환시켜 성질을 바꾸는 공격성은, 따라서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현대성의 상황은 그러한 작업들을, 더 이상 질료와 형식간의 관계나 형식의 연속적 발전과 질료의 연속적 변이가 아니라, 소재와 힘 간의 직접적인 관계로 조건지운다. “본질적인 것은 형식과 질료에 있는 것도, 주제에 있는 것도 아니며, 힘과 밀도, 강렬도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의 땅은 어떤 변형(혹은 다른 무엇으로 ‘되기’라는 과정)을 통해 강밀도를 확보함으로써(칸트의 숭고성 개념은, 비트루비우스적 건축의 세 특질 곧 강함, 아름다움, 유용함이라는 형식과 질료간의 관계를 넘어서게 하는 시작이다), 새로운 주름을 형성할 때 생긴다는 것이다.

중곡2동 문화복지관은 발주 측에서 동사무소, 파출소, 그리고 예비군 본부라는 집합에, 소위 문화산업 시대에 그럴싸하도록 이름붙인 공공건물인데, 건축가는 영토화 작업을 두 개의 블록 ‘사이’에서(들뢰즈에 따르면, 어떤 환경에 표현성을 부여하는 것은 리듬인데, 그것은 사이환경에서 발생한다) 벌인다. 수직동선을 사이를 형성하는 경계로 동원하면서, 그 사이를 새로운 비갈환경으로 변화시켜 두 블록의 내부환경과 접속시킨다. 움직이는 활동들은 이 지점에서 강밀



도를 형성한다. 그런데, 진정한 강밀도를 생산하는 리듬은, 오직 이질적인 블록과 더불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독단적이고 동질적인 박자와는 달리, "부등(不等)한 것(L'Inégal)이며, 통분불가능한 것(L'Incommensurable)이며, 언제나 횡단코르되되는 상태"에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차이를 낳는 생산적인 반복으로서 박자와 달리 차이 반복이 아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차이의 계기는 어디에도 없다. 모든 공간과 시각은 통제된 프로그램과 기능적 연관으로 장악된다. 이종적인 것들(방문자와 공무원)간의 가로짓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간혹 불투명한, 그리고 다리가 잘린 외부의 시선들(주변 거주자)은 차이를 갖는 힘들의 복병으로 잠재할 뿐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밀도(혹은 그것을 생산하는 움직임들이나 풍경)는 표현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기능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온전히 포획된다.

건물을 구성하는 재료들 또한 주변세계와 상사성을 띠지만, 그러한 성질이나 관계가 표현으로까지 고양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안팎의 세계가 더불어 서 있고, 그런 가운데 차별한 중심을 형성하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현존하고 있지만, 다소 딱딱한 경계로 지각적인 침투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삼투의 방식으로 바깥세계를 은밀히 조절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의 배치도 기존의 코드에 속박되어 익명의 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예컨대, 화장실을 공중화하는 식의) 기획을 박탈한다. 건물은 적절히 배

분된 평면과 잘 짜여진 형태구성을 작동시켜 공간에 일정 부분 생기를 작동시키지만, 거기에는 주변세계를 향한 플래카드의 몸짓도 없고, 주변 것들과 대위법적 관계망도 구성할 의향도 갖지 않은 채 단순히 체계 순응적으로 기능할 따름이다. 차별한 점돈, 소박한 꾸밈, 그리고 역동적인 동선의 배분으로 이러한 건물유형으로는 이례적인 건축적 질을 확보했지만, 공적인 것(혹은 사적인 것)에 대한 성찰, 그리고 표현화에 대한 치열하고 집중적인 작업의 부재로, 박탈된 것은 여전히 박탈된 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소유가 없다면, '공동적인 것은 소용이 없다.', '표현적인 것은 소유적인 것에 선행하고, 표현적 질 혹은 표현의 질료는 필연적으로 소유를 향하며, 존재보다 깊은 곳에 뿌리를 둔 소유를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 로크의 말이며, 들뢰즈의 말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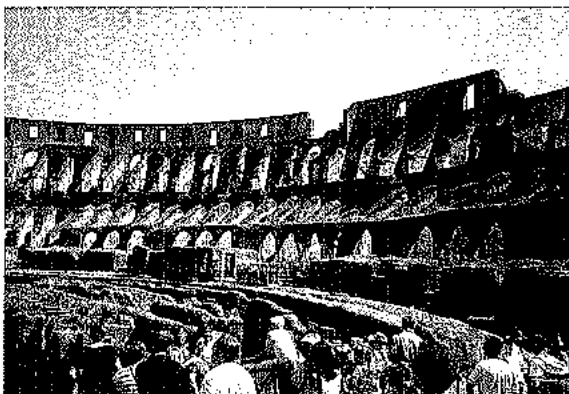
세계화와 한국적 가치의 공존

Coexistence Between Globalization and National Val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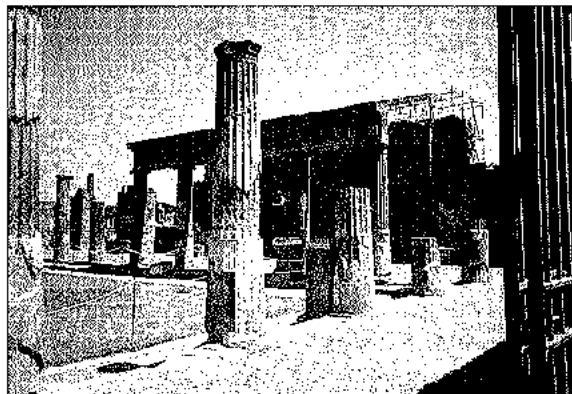
김학곤 / 흥간 건축사사무소
by Kim Hee-Gon

새로움과 오래됨의 공존

인간이 완성되는 과정은 늙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옛말에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나이가 “손자를 가슴에 품었을 때 비로소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매개변수가 존재한다. 젊음은 젊음대로 늙음은 늙음대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것이든 서로가 연관되어 생각되어야 한다. 상징적인 시간이지만 일정부분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진다. 이 과정에서 세월의 흔적이 입혀진다. 단순히 낮음이나 더러움의 때와 다르다. 각각의 때에 대한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돌아나는 새벽에는 기슭 저리는 신비의 기운이 있고, 가을에 지는 단풍에는 세월의 운치가 묻어 나온다. 이것은 하나의 순환체계 속에 존재한다. 건축의 오래됨과 새로움 또한 시간의 변수가 조금 더 길고 다양할 뿐이다. 새로움은 오래됨의 빛을 지고 있고 오래됨은 새로움의 진행 과정 즉 시간의 흔적이 붙어있다. 시간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양한 삶의 과정이 역사 속에 현실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오래된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리모델링은 단순히 돈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또 다른 인간의 역사가 녹아있는 것이다.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간직하는 박물관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오늘의 정신적 아버지이다. 우리가 개발이라는 명제 앞에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는 정신의 나침반이다. 여기서 스페인의 리모델링 사례를 살펴보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중심의 아토차 역에 인접한 곳에 Mansilla+Tunon의 공동 설계작품인 Aguilla 맥주공장 부지에 기존시설을 이용한 문화시설을 건설하는 현장(현상설계 당선작)이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마드리드 시의 지침에서 기존의 맥주공장 시설을 이용해서 개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과거의 낡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맥주공장이라는 장소적 공간인식이 시민들의 도시를 기억하는 중요한 기억의 장치라고 하는 것이다. 마드리드 시민들이 도시를 읽는 철학이 배어있음을 알 수



콜로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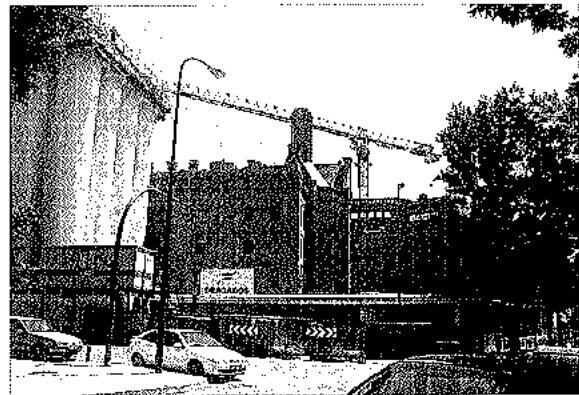
폼페이 유적

있다. 그들이 과거와의 공존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는 흔적은 Atocha역사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구 역사와 새로운 시대 기능에 부합하는 신 역사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Aguilla 문화 센터도 과거의 조잡한 공장과 관리동 및 저장탱크까지 그대로 살려서 내부기능을 바꾸어가는 과정이 설계의 중요한 지침이다. 물류 이동을 위하여 비어두었던 나대지에 신축 건물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신구의 조화가 설계의 관건이다. 기존의 낡은 건물에 새로운 기능을 넣다보니 구조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보강을 해야 할 정도로 공사가 까다롭고 예산이 올라가지만 도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문화의식을 읽을 수 있다. 도시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늙어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시의 늙음 또한 도시의 역사라는 인식이다. 과거의 건축이 비록 보잘것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오래된 모습이다. 그 모습이 있기에 오늘 발전된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다. 낡고 보잘것없는 과거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점으로 수정하고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의 할아버지가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의 배경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의 삶을 가치 있게 간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의 삶과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공존의 기억의 장치가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이 기억의 장치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렇게도 그들의 과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새로움으로는 이 기억의 장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건축현실은 어떠한가? 끊임없이 새로움만 추구하면 만사 형통인 것이다. 목적지 없이 달려가는 기차처럼 실재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왜 달려가고 있는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에 대한 근원적 질문은 뒤로하고, 현실의 숨가쁜 만족 뒤에 이내 시들어버리는 환상처럼 또 다른 새로움과 변화의 충동을 원하게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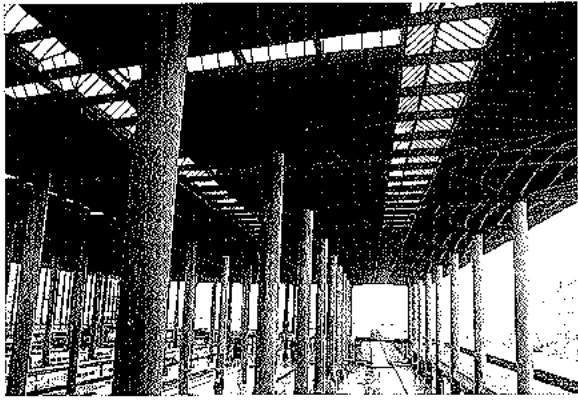
이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밖(마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왜 그럴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이 높이 올라 갈 수 없는 것처럼 허둥지둥 욕심으로 쌓는다고 제대로 서 있을 리 없다. 과거의 기초 위에 오늘의 현실과 미래를 대비해 튼튼히 쌓을 때만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정체성이 담겨있는 진정한 문화가 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소비문화의 끝에서 충동적 변화의 새로운 길들여지면 질수록 그 새로움은 순간의 만족을 뒤로하고 연기처럼 사라져갈 것이다. 전자게임처럼 우리를 길들이고 더 이상 현실을 기반으로 삶의 진실을 보는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자신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알 필요가 없는 인조인간처럼 입력된 정보만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삶의 근원과 연결시킬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문화는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과거와 현재는 왜 공존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된다. 그 이유는 다름아니라 문화의 중심은 분명 인간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그 지역, 그 나라에 사는 인간의 총체적 삶의 찌꺼기의 퇴적인 것이다. 그 퇴적물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의 시간을 통하여 퇴적된 것이다. 그 퇴적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퇴적물이자 후손과 이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이다. 보기 싫다고 가리고 치워 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살아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급박함이나 직면한 정치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잘라 버릴 수가 없는 우리의 솔직한 삶의 모습이다. 더더욱 분명한 것은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는 것과 같다. 그들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정체성은 없고 서구 소비문화의 어중간한 끝자락을 잡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삶을 지속하는 것조차 힘들지라도 담배연기 같은 허상을 잡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 받을 수는 없다. 그 속



저갈촌(충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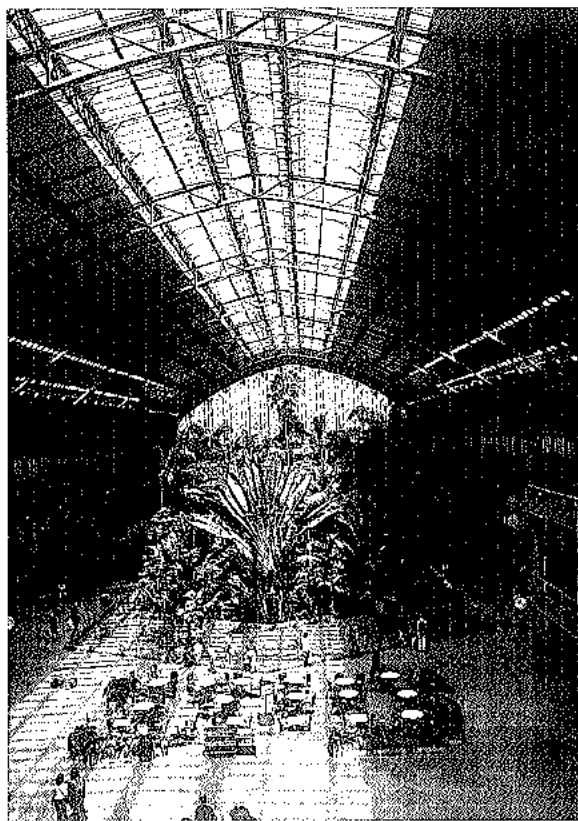
Aguilla 문화센터(신축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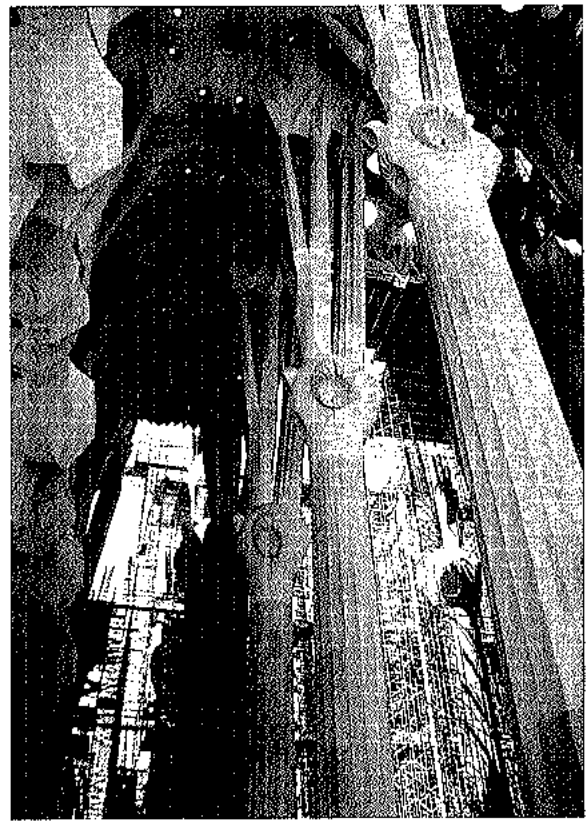
Asocha 역사(리모델링)

에는 진실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은 혼란한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과거와 미래를 바라본 후에 마음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어제가 오늘의 기반이고 오늘이 내일의 씨앗이다. 건축문화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논리이다. 어제의 추한 모습도 오늘의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건축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는 가정이 없다. 추함과 아름다움의 차이는 상반된 가치 일뿐 그것 자체로는 무의미하다. 건축이 빛의 조각이라고 할 때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존재한다. 어둠의 이해 없이 빛을 제대로 이해 할 수 없다는 역설이 된다.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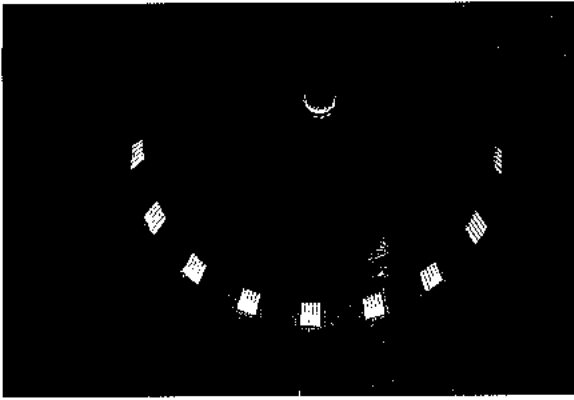
과거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급조된 현실은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예시할 수 없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미래의 꿈이 현재와 연계될 때 우리의 가치가 바로 서는 것이다. 적어도 서구의 문화가 우리문화로 들어오는 것, 즉 상호문화의 질적 체계의 우선 순위가 아니라 수평적 상호교류가 일어나서 그 속에서 잉태된 문화만이 변화무쌍한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가치 위에 서구의 문화가 상호소통 되어나갈 때만이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다. 오늘 급한 김에 과거의 우리 건축문화를 모두 지워버리고 새로운 건축물로만 도시를 채워나갈 때 우리는 중요한 삶인 공동의 기억의 장치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여기에 편리한 기능보다 중요한 삶의 문화가 있고, 이것은 공동체의 삶의 철학과 관계한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았던 장소에 우리 후손이 살고있을 때 그 장소와 공간과 건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구궁궁궐만 복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과거 또한 개선 복원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소 불편하고 어렵고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현대의 기능에 맞게 수정하면서 새로운 현대문화 및 현대건축과 공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과거 현



Asocha 역사(신축)



사그라디 피에타 신축중 내부사진



판테온 천장

재 미래의 문화가 공동의 기억의 장치 속에서 같이 살아 숨 쉴 때만이 우리의 현대, 우리의 미래는 살아있으며 공동체 생명의 씨앗을 간직할 수 있다. 만사지탄인 지금이라도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살려서 미래로 가져가야 한다. 가치 있는 건물은 50년 전, 100년 전이라 할지라도 기능을 보완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조화롭게 개발해야 하며, 기존의 환경을 송두리째 없애 버리는 개발은 이제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편리를 위해서 잘라버린 우리의 과거는 정신을 잘라버리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역사는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

세계화에 대응하는 한국적 가치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들에게 21세기는 제2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문자의 발견, 콜럼부스의 신대륙의 발견에 비견될 만큼 급박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 냉전의 해체이후 인류는 잠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곧바로 인류의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오늘날 인류는 여전히 기아와 전쟁과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문명간 반목과 공격적 마찰은 여전히 재연되고 있다. 21세기 벽두에 발생한 911 미국 테러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인류에게 일깨운 상징적 질문이자 강력한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있다. 이른바 오늘날 소비를 생산하고 감성에 의한 판매를 조장하는 신 소비니즘의 첨단정보화 사회의 가치는 발게이츠의 말처럼 생각의 속도에 의해서 자본시장이 움직인다.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돈과 직결된다. 그 시장은 바로 익명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익명성이란 특별한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수많은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없다는 말이지 알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새로운 정보 즉 많은 사람이 동시에



911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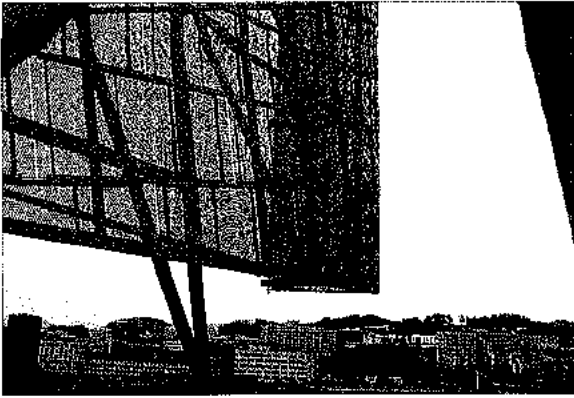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개발한 후 특정 인터넷망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기만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다. 대인 접촉을 하던 이전의 관행에서 보면 일대 혁신임에 분명하다. 또한 컴퓨터는 점점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서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의 관계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즉 컴퓨터를 통해서 친구처럼 개인의 관심사를 부모님에 털어놓듯 대화할 수 있고 은밀하게 즐길 수 있는 인간의 내면의 정신세계까지 파고 들어가서 체면을 구기지 않고도 은밀한 개인욕구까지 해결해 준다. 이것을 이른바 익명성이라 일컫는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그 역할을 넓히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간의 접촉과 대화의 채널을 컴퓨터가 떠맡은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선도하는 컴퓨터의 기능을 대체 할만한 수단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세계화라는 말은 아마 이러한 인터넷의 새로운 네트워크 방식을 통칭하는 용어에 불과한 한지도 모른다. 세계화라는 말은 이전의 모든 인간의 대화방식, 생활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새로운 방식이란 지난 시대까지 만들어 놓았던 인류의 문명의 모든 기저를 흔들고 그것과 다른 새로운 체계를 세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나치집단이 세계를 통합하려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강력하게 상대방의 기저를 일시에 무력화시키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단지 칼을 들지 않았을지 모르

나 내용적으로는 그 이상인지도 모를 일이다. 인터넷의 속성은 속도와 익명성으로 무섭게 세력을 키워나간다. 속도와 익명성이 바로 자본, 돈과 연결된다. 내용상은 이른바 자본선진국의 문화가 편리성을 강요하며 후진국의 문화를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좀 더 나아가서 우려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질서는 선진국의 문화와 정보가 전 세계를 포위하게 될 때 동시에 후진국이 어느 정도 길들여질 때를 기다렸다는 뜻이 새로운 상위의 정보를 내놓으면 미친 듯이 새로운 정보에 목말라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는 잘 길들여진 사냥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아마 세계화의 비관적인 방향의 관조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류가 생각해 보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 세계화의 길목에서 여전히 세계의 기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전쟁과 테러의 공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세계화는 새로운 자본가를 만들었을 뿐 여전히 부의 공평한 분배나 인류의 미래의 안전한 피난처라는 느낌은 주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자본을 모으기 위한 새로운 게임에 불과 할 뿐 남은 인류의 숙제는 예전과 그대로이다. 이른바 자본선진국인 미국이 세계 모든 정보를 손쉽게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미국이 영원히 자본과 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후진개발도상국의 자본을 담보로 삼지나 않을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미국의 정의 앞에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많은 후진국들이 진정 미국의 리더십에 만족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 봐야만 한다. 911미국 테러이후 미국은 소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빈라덴과 그의 호위 세력인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적어도 객관적인 전력 상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의 무기를 동원해서 공격해서 결국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는 실패한 전쟁이다. 왜냐하면 애초의 목표가 빈라덴을 생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첨단 정보망은 여전히 빈라덴의 흔적조차 밝히 못하고 있다. 미국의 권위를 위해서 피부온 공격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테러의 빌미를 제공한 미국의 오만은 없었는가? 이것 또한 힘에 의한 논리 속에 강자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적어도 세계화의 진정한 목표가 공존의 패러다임이라고 전제할 때 현재의 신 자본주의의 정보화사회가 그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세계의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은 아직도 메아리에 불과하고 나눔의 정신은 불룩에 의한 선택받은 민족에 한정되어 있다. 로마시대의 전쟁과 중세의 십자군전쟁과 다를 바가 없다. 힘에 의한 논리는 모습을 달리했을 뿐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인간은 자연

의 일부이며 자연은 항상 일정비율의 열등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새로운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이 열등성은 우월한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미를 갖추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인간은 한정된 삶을 살고 죽는 자연계의 질서의 일부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존의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미래학"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적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넘어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일을 미래학이라고 칭할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래학은 세계의 경찰국가인 미국에서 지난 세기 중반 이래 가장 인기 있는 품목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개발도상국 경제후진국에서는 수입한 미래학은 있어도 각 민족의 삶에 뿌리를 둔 미래공학적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사분란하게 세계정세에 대비하는 한 박자 늦은 민감성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세계를 읽는 힘을 길러주는 작지만 강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내실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일은 한국의 미래학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부침 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한국적 가치를 마련해야 한다. 열강의 힘의 논리 속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단계에 머물지 말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커다란 밑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 미래학의 중심은 우리의 정신의 복원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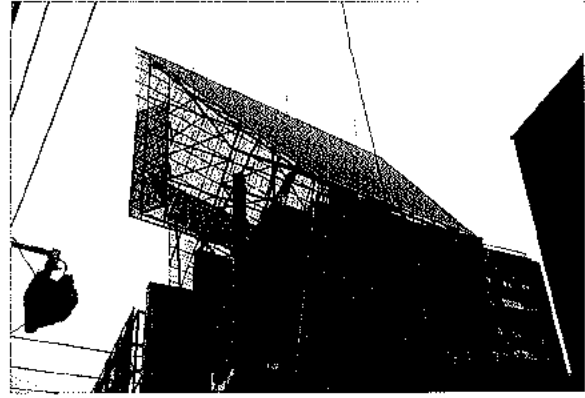
가상적 상황의 노예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값싼 인스턴트식의 가치 속에 건강한 우리의 정신을 기반에 두어야 한다. 상업주의를 배경으로 인터넷정보화가 몰고 오는 세계화의 과정은 우리도 모르게 국적과 민족의 기반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자칫 빠름과 경제성에 의해서 우리의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문화가 천대받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자칫 정신을 파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기반은 무너지고 그들(인터넷 선진국)이 만들어놓은 가짜정신에 함몰되는 순간 영원히 우리는 그들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수준에 머물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의 문화까지 가져가서 그들의 문화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상황의 몰성에 정신을 파는 순간 우리의 정신 또한 인스턴트적인 가상적 상황의 노예가 된다. 실제로 그들은 가상의 정신속에 그들의 정신을 주입하고 있다.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그들의 문화와 정신이 무의식중에 우리 몸 속에 체득되어나가는 것이다. 마치 항생제의 마약같이 조금씩 중독이 되어 가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문화의 기반 즉 음식, 의복, 건축, 풍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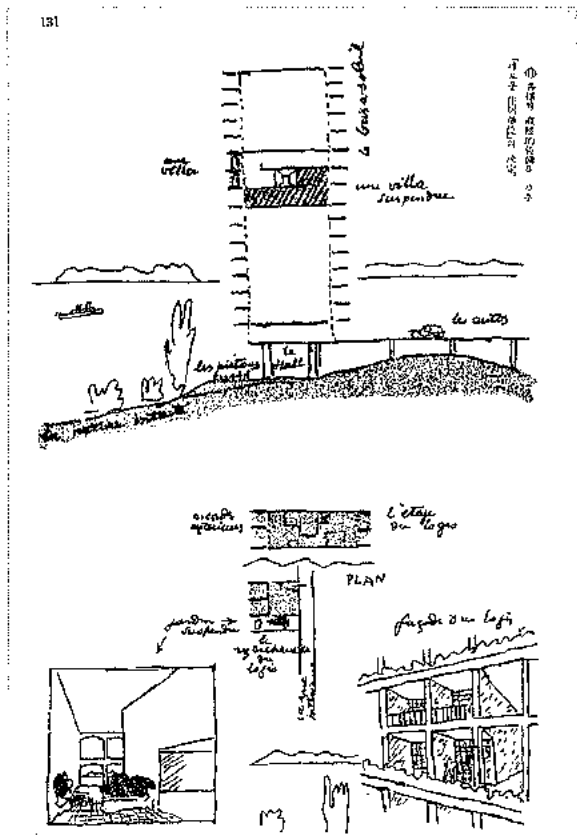
모포시스의 이더원 상업건물-1

어릴 때 젖어들면 나이가 들어서 어떤 문화권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환원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물들어버리면 그 다음은 다시 돌릴 수가 없다. 앞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음식도 약간의 중독성이 있다. 어린 시절 먹던 음식은 40대 이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해외동포들이 특히 음식문화를 극복하기 힘들어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한가운데 서있다. 20세기말에 얻어맞은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삶의 잘못된 상업적 가치를 재발견하는데도 한류를 했지만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시정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가치 있는 정신마저 돈의 가치 뒤에 세우는 안타까운 현실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짧은 시간의 민주화와 경제회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로 치부하기에는 어딘가 찝찝하다. 적어도 우리가 자본적 선진국에서 조종하는 대로 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정신이 뿌리까지 살아있는 미래학을 준비해야하는 당위성이 있다. 적어도 국민들이 세계를 읽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숨기쁜 현실 속에서 하늘을 보는 여유처럼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여유를 가져야한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사람들이 노는 마당이다. 건축은 사람이 노는 마당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인자는 역시 인간이고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 또한 정신이다. 따라서 건축에서도 역시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현대건축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 또한 자본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니 더 심각하게 자본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모더니즘의 세계화 속에서 한국건축은 방향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건축의 미래학은 없다. 우선 세계건축을 읽어보자. 모더니즘적 사조가 건축에 웃을 입히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거장의 건축적 표본의 제시는 이후 수많은 건축가들에게 하나의 전형이 되어서 아직도 이렇다할 적자에 의한 대를 잇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시도는 여전히 모더니즘의 전형 속에서 첨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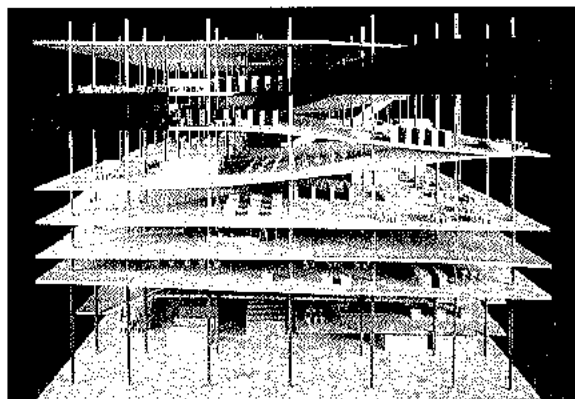
모포시스의 이더원 상업건물-2

보화시대의 발전된 물성과 재료의 개발로 다양화된 일련의 실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적절하다. 일련의 과정을 함축해서 말한다면 건축이 상업적 소비니즘의 상징적 가치로 전략하고 있다는 말이 적절하다. 인터넷의 정보화 사회는 급격하게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이전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지워버렸다. 이런 상황은 국가적 문화적 기반의 변별성을 허물고 있으며, 새로운 감성과 욕구의 총동으로 유혹하고 있다. 세계는 변화를 기반으로 새로움의 혁신이 당분간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당황하게 할 것이 확실하다. 이전의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의 속도를 누구나 느끼고 있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나이차이에서 오는 정보문화인식의 차이가 세대간의 벽을 만들고 있다. 인터넷 네트워킹은 이전의 전화가 사람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의 문화를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격렬하게 신세대의 생활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문화와 정보의 지역적 한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이용가치가 있느냐의 편리성만 살아남는다. 여기서 편리성은 정보화시대의 돈이다. 새로운 가치와 정보가 바로 돈이 되는 것이다. 정보의 흐름만큼이나 인류의 흐름도 그만큼 많아졌다. 이것은 지역의 벽을 허무는 여러 가지 상업적 교류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의미다. 현대건축의 특징은 상업적 소비니즘과 발빠르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동시에 건축이 감성적 이미지로 인간에게 다가서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정보의 흐름처럼 인간에게 다가서는 순간 돈의 가치로 바뀌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세계적 스타건축가는 지역적 한계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다시 말해서 스타건축가의 작품은 스포츠 스타의 광고와 일맥 상통하기 시작했다. 기다리기보다는 찾아서 선택해서 처리하는 정보화의 검색은 건축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어린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인 피자나 햄버거에 쉽게 입맛을 빼앗기고 컴퓨터 앞에서 친구와 채팅하고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르코르뷔제의 스케치(빛나는 도시)

것처럼 현대의 건축은 자본적 가치로 쉽게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전통적인 건축의 가치보다는 감성과 이미지를 자극하는 자본의 척도로서 변화를 직접적으로 감지하는 수단으로 전환되었다. 소위 오늘날 건축주는 가만히 앉아서 세계의 건축가를 알아보고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기업이미지와 부합하는 건축가의 작품을 고를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더 이상 없다. 이른바 세계화는 건축시장의 변화이다. 또한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전통적인 건축가의 방식을 고수하는 건축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른바 건축가의 업무의 범위가 개방되고, 다른 분야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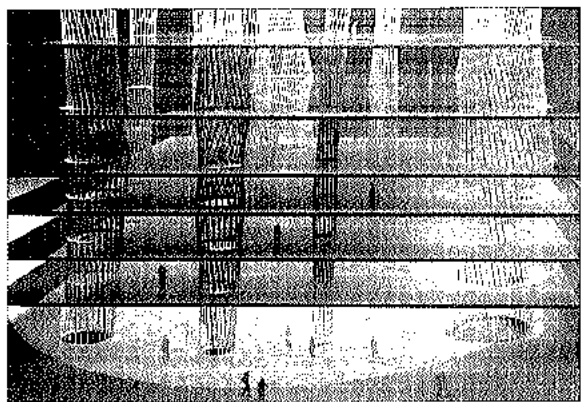


램플하스의 the institute of the Arab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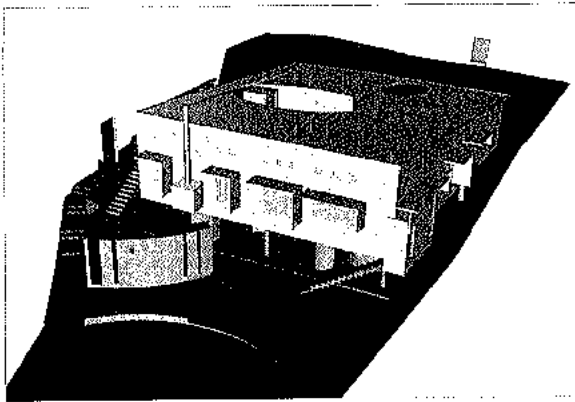
람들이 자본의 축적이라는 수단을 동반하여 건축가의 영역을 넘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건축가의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건축가의 권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르 코르뷔제의 '빛나는 도시'처럼 건축가가 이상적인 도시를 제안하고 새로운 시대의 건축적 전형을 만들어 내던 시대는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 사고방식의 한계를 맞고 있다는 말이다. 경제적 후진국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건축가가 만들어내는 험란한 건축어휘의 실험장이 되고 선진국의 스타건축가는 이른바 세계적 기업가의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디자인을 봉사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건축의 본질이 정신에서 돈으로 바뀌는 것이다. 램플하스가 말했듯이 "건축가는 위험한 직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의 포장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장지가 더 중요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포장을 건축의 내용과 연계시켜야 하고, 일회성의 변화를 왜 건축주와 자본가가 좋아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해서 그것을 건축의 본질과 연결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담뱃의 건축시장을 볼 구경하듯이 바라보면서 상념과 아집에 사로잡힌 건축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변해가는 세계이념과 자본시장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는 변해가는 건축환경을 이해할 수 없으며, 건축의 본질인 정신을 온전히 건축공간 속에 남겨둘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건축가가 세계를 읽는 눈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미래학이다.

모더니즘의 대세와 우리의 정신

오늘날 건축가는 아마 폭격기 속의 조종사처럼 급박한 전시 상황 속에서 자연의 중력과 생존의 속도를 비탕으로 하는 실전 속에서 건축가의 정신을 온전히 공간 속에 담아두는 잠치가 바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다. 건축가는 사회의 현실 속으로 전투하는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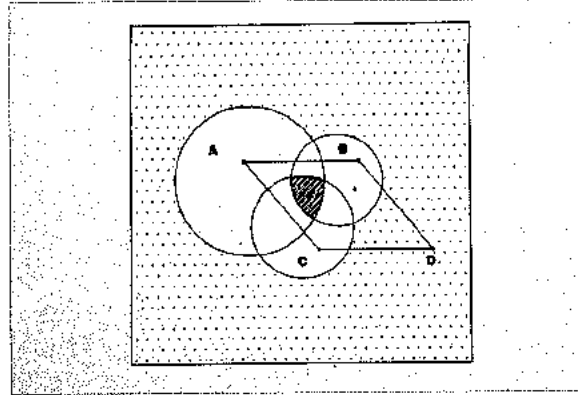


이토도요 센터의 미디어테크



사백당 (김희곤 작)

종사처럼 찾아 나서야 한다. 사회는 건축가의 영역을 잠식하고 어느새 로뚱처럼 비슷하게 작업해내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하여 건축의 정신을 빼앗아 버릴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좁은 한계 속에서 건축의 가치를 조정해서 찾아내야 하는 사회환경 속에 들어와 있다. 분명한 사실은 자본과 컴퓨터는 인간의 정신을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 자본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온전히 올려놓을 때만이 공존의 패러다임은 완성될 수 있다. 공존 공생은 기존의 힘의 논리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형이상학적 철학적 가치로 존재할지라도 인류는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존을 위한 철학적 가치는 새로운 변화를 조절하고 선도하는 모태적인 근본이 살아있을 때만이 논리적으로도 가능하다. 일방적인 하나의 조류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쉽고 자칫 자만하고 식상하기 십상이다. 건축도 마찬가지로 지역적 기반과 정신을 간직하고 세계적인 흐름을 새로이 조율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의 정신을 보듬어 나가는 것만이 세계건축의 미래를 밝게 한다. 이미 냉전의 붕괴로 인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 경쟁이 사라지면 독단과 이집만이 남아서 또 다른 철학의 부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를 살려서 급박한 변화의 세계건축의 조류를 타고 자본의 변화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본질을 찾아내는 여행을 떠나야 한다. 이 말은 다시 한국건축의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서투르게 한국식을 고집하지는 말은 더욱 아니다. 세계적인 모더니즘의 대세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을 담은 건축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대의 자본을 동반한 첨단 감성적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담은 건축을 만들어야 한다. 섬블리 선진건축가의 디자인 방법을 이용한 모방은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설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 적어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디자인 어휘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디자인 언어로 디자인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건축개발 방식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공존의 도식(김희곤)

자본시장에 맞는 건축개발 방법을 건축가들이 개발하는 독특한 접근방식도 만들어내야 한다. 잘못된 자신감으로 허황된 망상에 젖어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한국의 김치가 일본의 기무치로 둔갑하는 사태를 빚을 수가 있다. 누가 봐도 우리 것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 것이 되어있지 않는 것이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력의 범위를 초월해서 노력하듯 국제 사회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세계의 모든 지도에 기록 되도록 홍보하고 노력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이미 세계의 유명 지도에 독도의 명기를 일본식으로 일본해라고 집요하게 로비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땀전을 피운다면 서서히 독도는 일본 땅이 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민족이 가져야 하는 공생의 틀은 사회적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건축 또한 우리의 기반을 바로 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원칙이 살아있는 건축디자인의 원리가 통용되게 해야 한다. 건축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거울이자 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다. 정신의 가치는 여타의 가치에서 독립된 자유를 객관적으로 간직한 것이라고 할 때 건축에서의 정신은 디자인의 아이덴티티 독창성을 가지는 것이다. 독창성과 객관성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도 진실은 숨어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찾는 철학의 기반 위에 정신의 단련이 개인적인 관심에 머물지 않고 세계로 열려질 때만이 이 땅에서 진정한 정신이 담긴 건축이 탄생하는 것이다. 오늘날 변화된 가치와 정신의 기반 위에서 국제적 감각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공존의 기반인 정신적인 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정된 삶을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땅에 나의 후손이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건축 역시 인간정신의 표현이며 역사의 일부로 존재한다. 역사는 모방하거나 복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존재한다. 인간은 역사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

고뇌(苦惱)와 번뇌(煩惱)

Distress and Agony

박세진 / 박세진건축사사무소
by Park Se-Jin

필자는 오늘이 있기까지 인내와 고뇌(苦惱) 그리고 희열을 느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1986년 미국인으로부터 ti59 미니 computer를 선물로 받고부터 시작되었다.

필자는 1971년 9월에 꿈에 그리던 건축사 면허 2급을 취득하고 10년 만에 1급 건축사를 그것도 전국에서 50명이 합격하였다. 그 동안 2급의 설움을 받아가면서 건축물의 창작과 예술을 겸비하면서 실력이 좋은 1급 건축사 면허가 없어서 애로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1급 건축기사(지금의 시공기사)에 도전하여 1978년에 합격하였으나 학벌로 쓴잔을 들어야만 하였다.

제도전하여 1998년 5월 16일 1급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였던 것이었다. 날개 돋친 듯 기뻐하면서 창작 활동에 온 힘을 기울였으나 이것도 역시 로비에 밀려 그 빛을 보지 못하였다. 황금 만능 시대에 접어들던 어느 날 부정 부패 척결이라는 정부 정책에 의하여 다소나마 실력을 과시하며 호황기를 누리던 때도 있었다. 이때 필자는 선물 받은 computer를 활용하여 건축 설계 및 구조 계산 그리고 3D 설계에 뛰어 들기로 결심하였다. 이때부터였다.

실무 경험으로부터 얻은 구조에 따른 문제를 접하면서 4bit 의 자기 디스켓 (지금의 카드 뒷면에 붙은 것임)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1986년경) 지금 생각하니 용량이 부족하여 수많은 고생도 하였다.

그러나 그 많은 건축 구조계산에 따른 이론과 실기 그리고 결과 치로는 서로가 믿지를 않아서 내 자신만의 소유를 하면서 실무에 접목시켰다. 그러던 중 더 좋은 일본산 shap computer를 접하면서 이때는 이미 8bit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basic 언어로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하여 완성된 구조 프로그램으로 혼자만의 소유로 잘 활용하여 호황도 누렸다.

그런데 1988년 건축사 17명이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연수과정에서 참가했을 때 캐드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으며, 3D 설계에 착수하겠다는 마음으로 1989년 5월경에 cad를 도입하여 활용하여 강원도 아니 전국에서도 몇 번째 가는 computer 투자가가 되었다.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한글 폰트를 개발할 때였다.

그러던 중 8bit의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었다. 또 다시 콤팩 버전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computer는 급속히 발전하여 16bit로 발전하므로 8bit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16bit에 따른 콤팩 버전을 작업 시작하여 1992년에 이미 구조프로그램 다수를 등록을 마치고 있었다. 그 때는 computer 교육 기관이 없는 터라 독학으로 한 것이다.

이때는 이미 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DB 구축을 한 프로그램과 구조프로그램을 다수 소유하면서 신속한 설계에서부터 내역까지 소화를 하여 좋은 날이 많았다.

드디어 16bit에 맞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으며(1994년경),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개발하지 못한 곳까지 직접 개발에 착수하여 속속 활용에 자신을 얻어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또 한파가 찾아왔다. 윈도우(1995년) 버전이 출시한다는 정보가 있었다. 드디어 윈도우가 출시되어 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환멸을 느끼게되어 이제는 DOS에서 만의 작업 원료를 강행하여 사용하였으나, 한글이

종합형에서 사용하던 터라 어찌하겠는가 국가에서 표준화한 완성형 한글 사용을 따라야만 하였다.

그런데 DB구축의 자원 데이터는 2,300여 종과 일위 대개표는 850여종의 한글 치환이 먹구름같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종합형에서 완성형 콤 버전 program을 찾기 시작하였으나 전국에 소유자가 없었다.

그러나 필자는 오래 전에 잘 알고 있는 친구를 찾아 논의 끝에 심보 컴퓨터에서 정보를 주어 입수한 프로그램으로 최종 정리를 하였다.

역경을 겪고 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을 산모의 고통을 사나이는 모를 것이다. 하지만 집념을 갖고 뛰어들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이렇게 건축사로서 프로그래머로서 건축사들의 업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역경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선 그 동안 심혈을 기울이게 된 동기를 몇 자 적고자 한다.

▷ 건축 구조를 접하면서 학창 시절에 스승님께서 기술을 모두 가르쳐주면 어른들은 무엇을 먹고살라는 것이냐 라는 스승님의 말씀 되새기면서(1962년)

▷ 프로그램 개발 중 건축 구조의 이론과 실기 그리고 실지 적용에서 각종 공식 등에서 의문점에 따른 해결방법 등에서 얻은 것은 일본의 서적에서였다. 지금도 소유하고 있지만 일본 서적에서 잘못 인쇄된 공식을 확인하여 본 결과 그 회신을 받고 고마워 했던 때도 있었다. 물론 일본에서 공식 유도까지 하여 필자에게 보내 주었던 것이다. 결과론에서 인쇄가 잘못 되었다는 사과에 감탄하였다.

▷ 우리나라의 교수님들은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었다. 그 원인은 나 아니면 누구도 못해! 하는 식의 사고 방식을 하루 빨리 고쳤으면 한다. (1991-1992년)

▷ 1965년 필자는 카류사에 근무하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옛 속담에서와 같이 모르는 것 아는 것 모두 OO대학교 교수를 찾아다니면서 1993년도에는 적잖은 현금까지 전달하면서도 얻은 것은 없었다.

▷ 필자는 그때 교수님들 보다 더 좋은 기종의 computer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OO대학 교수를 만났다. 그때 그 교수는 프로그램을 일부 줄 터이니 필자의 computer를 교환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 OO대학 교수가 집필한 참고 도서도 틀린 곳이 여러 곳

있는 것도 보았다. 물론 교수님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였겠지만 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구조란 인명의 생명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 교육을 받는 학도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설계 또는 구조를 하는 분들을 위하여 올바른 교재와 참고 도서가 되기 위해 도서를 집필하는 교수님들께서는 문헌으로 남기시면 현세 사람들이 좋은 시 그리고 좋은 동요 또한 좋은 서적이라고 하듯이 후세에도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 일부 교수들은 일본의 프로그램으로 구조 계산(1990년경)을 하고 있었고, 우리 건축사들도 일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을 때였다. 또 몇 분은 고생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활용하라는 충고도 받곤 하였다.

▷ 일부 구조 기술사와 건축사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에서 많은 비용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물론 지금은 IMF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구조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또 한번 설계비와 비슷한 구조계산비를 요구할 것이다. 누군가는 그 때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번뇌(煩惱)와 고뇌(苦惱)로 1989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 때 신경성으로 입원까지 하였다. 그러나 집념으로 프로그램의 애러를 꿈속에서 알려주어 다음날 바로 해결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 현재는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하고 있으나 지금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까 두려워진다. 이미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는 어찌할까, 컴퓨터는 날로 발전하는데 학술은 그때 또 콤 버전을 하여야 할 터인데!

▷ 인생은 人命靈時, 無空無許, 人存人造, 初動不停, 無浴無宿, 今生有存 此生無存, 自有無無, 有生有想, 人生生 勞生樂이라

▷ 이제는

▷ 물론 필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검증은 받을까 생각도 하였으나 필자와 같이 신속히 검토하여 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하여 준다면 하더라도 200여종의 프로그램을 검증 받기란 적잖은 현금이 따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뿐이다. 필자 자신만의 자신감과 또한 작금에는 수입한 프로그램으로 구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포털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작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승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신지식의 전달 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은 모름지기 태어날 때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못 먹고 살 정도면 죽고 말 것이다. 하지만 옛 조상님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남기신 한글 등등 무엇인가 후세를 위하여

▷ 학술은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예술은 묘한 자연 법칙을 탈피할 수 없다.

1) 나무 가지의 굵기와 나무 잎의 생성과 계절에 따른 생동감 휴면 시기 등등..

2) 철의 구조

3) 석재와 흙의 구조

이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삶은 흙으로

인간의 수분은 물로

인간의 뼈는 흙으로

인간의 혼은 한 것 바람으로 흩어지고 마는 것

▷ 이제는 과욕금지 버릴 것은 버리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할 때이나 환갑의 나이가 넘으면 모두 알 것이다. 이미 넘으신 분은 후세를 위해 무엇인가를 남겨두고자 노력하십시오.

▷ 기술자가 쉽게 사용하고 응용하고 짧은 시간 내에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합니다.

▷ 학자는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발표하여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여 공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금 까지도 원고 한번 못써본 교수님들 각성하시어 산 지식을 들려주세요.

▷ 기술자는 학자들의 이론을 응용하고 활용하여 인간 삶을 영위함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 인간 삶에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필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건축사들이 널리 쉽게 사용하여 인간들의 삶을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 건축사로서 프로그래머로서 내가 고뇌와 번뇌 속에서도 만들어 놓은 몇 가지를 소개 하고자 한다.

1. 건축 구조 (RC 조) 일괄 프로그램 (입력 곧바로 design member 까지 출력) .. 50여종 program 연결
2. 건축 구조 (steel 조) 일괄 프로그램 (입력 곧바로 design member 까지 출력) .. 50여종 program 연결
3. 건축 적산 (일위대가 및 내역서작성) 입력 곧바로 design member 까지 출력 .. 50여종 program 연결
4. 각종 트러스 외 sub program .. 130여종 program 연결
5. 철골 구조 산형 라멘 sub program .. 11여종 program 연결
6. 건축물의 지진 및 풍 하중에 의한 구조 계산 60% 완료

위 프로그램들은 각종 기본 공식으로 개발한 것이다. 30년 건축사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은 처와 자식 그

리고 현재 얻은 것은 나의 노력에 따른 고뇌와 번뇌뿐이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하였는가?

건축사로서 무엇을 하였는가?

학문은 오래도록 갈 것이다.

건축물은 얼마나 갈 것인가?

지금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말인가.

금은 보화도 햇볕을 보아야 아름답다.

살기 위해 몸부림쳐도 누구 한사람 쳐다보지 않는 세상이 왜 이렇게 허무(虛無)한가.

누구를 위하여 여기까지 왔고

홀로 떠날 때 무어라 말할꼬

모두 버리고 버리면 되는데 이리 왜 힘드려고

혼자라면 무엇인들 못 할꼬

가족이 있기에 그 책임감에 잠 못 이루고 있네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항상 옆을 보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건축사들을 말일세

정직한 건축사는 모두 죽어간다

솔직한 건축사는 모두 죽어간다

실력있는 건축사는 모두 죽어간다

돈의 노예 건축사는 모두 죽어간다

간특스러운 건축사는 배불리 먹고산다

술수에 능한 건축사는 배불리 먹고산다

명예 대여 건축사는 배불리 먹고산다

우리 건축사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 모두가 행복한걸 나만의 행복 추구, 나만의 부자, 나만의 왕자 모두 다 갈 때는 버리는 것을 우리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갈꼬... 圖

박물관의 개념적 변화와 건축적 대응(3)

Conceptual Changes in Museums and Architectural Response(3)

김용승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Kim Yong-Seung

1. 대공간(Major Space)의 역할변화
2. 박물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공공·서비스공간
3. 전시공간구성
4. 최근의 박물관건축 사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은 전시위주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일반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취하면서 전시공간 이외의 서비스공간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의 근본적 목적은 관람객과 전시품의 직접적 만남에 의해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전시공간에 대한 고려는 기타 서비스공간에 대한 고려 이전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박물관에 있어서도 전시공간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현대박물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시공간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본 글에서는 아테리 디자인이던 가에 아울렌티(Gae Aulenti)의 작업에 관심을 갖고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오르세이 미술관 (Musée d'Orsay, 1985)과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1980-86)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면서 현대 박물관의 전시공간구성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필자 주)

박물관 전시공간 구성의 역사적 변천

일반적으로 초기의 박물관들은 전시품들을 관람하는데 있어서 순서를 바탕으로한 연속적 감상을 위한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물관건축의 프로토타입으로 여겨지는 디자인으로 프랑스 건축가 듀랑(Durand)의 박물관을 위한 디자인(1802, 그림1)을 보면 중앙의 로툰다와 네 개의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긴 형태의 갤러리들로 구성된 정사각형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중앙의 로툰다와 네 개의 중정은 관람객들에게 전시공간을 이동하는 동안 방향감각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관람도중 항상 자기의 위치를 짐작하게 해주고 있어서 이러한 건축적 요소는 이후의 박물관계획에 빈번히 사용되어왔다. 또한 전시공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시공간을 관통하고 있는 연속적인 관람동선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속적 관람동선은 작은 규모의 개인미술관을 위한 계획에 모델이 되었던 런던의 덜위치미술관(Dulwich Gallery, 1811-14, John Soane의 작품, 그림2)의 평면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듀랑의 디자인의 형태에 영향을 받은 베를린소재의 쉐켈의 알테스박물관(Altes Museum, 1823-30, 그림3)에서는 중정이 두개로 줄

어둡고 중앙의 로툰다의 비중이 커진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시공간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서 연속적인 관람동선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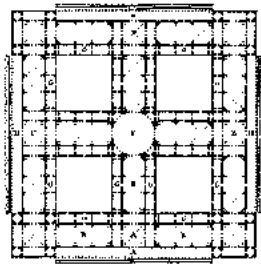


그림 1 미술관을 위한 프로젝트 (Durant, 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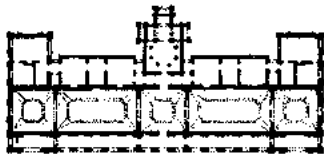


그림 2 Dulwich Gallery (1811-14, John So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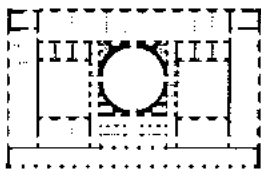


그림 3 Altes Museum (1823-30, Schinkel)

위의 예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뮌헨 소재의 알타-피나코텍 (Alte-Pinakothek, 1826-36, Klenze의 작품, 그림4)의 전시공간은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세 개의 평행으로 놓인 긴 열의 공간이 25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다. 중앙열의 큰 공간들은 큰 천창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그림들의 전시를 위하여 마련되었고, 북쪽 열의 작은 공간들은 작은 그림들을 위한 전시실들이다. 남쪽의 열은 복도의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서 관람객들이 걸어가면서 각 전시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작은 그림과 큰 그림들을 위해 뚜렷이 분리된 전시공간과 복도를 지나면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마음에 드는 전시공간을 진입할 수 있도록 관람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공간구성은 이후 수많은 미술관 계획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적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서 플로렌스에 있는 우피찌미술관(Uffizi, 그림5)의 전시공간은 관람객들이 복도를 통하여 이동하면서 복도와 나란히 있는 전시실들을 선택하여 들어가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관람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그림만을 보러온 사람이나 대부분을 감상하려는 사람 누구나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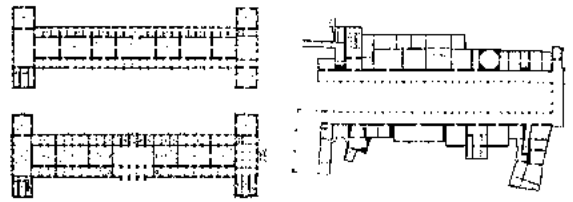


그림 4 Alte-Pinakothek (1826-36, Klenze)

그림 5 Uffizi (Florenca)

이와 같이 초기의 박물관들의 전형적인 전시공간구성을 보면 방과 방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더욱 세분하여 보면 관통형 연속관람동선과 선택형 연속관람동선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다. 관통형 연속관람동선은 덜위치 미술관과 같이 전시실과 전시실이 중앙에 위치하는 구멍과 같은 통로로 이어져 연속되어 있는 경우이고, 선택형 연속관람동선은 관람객의 이동을 위한 복도나 그와 유사한 공간이 전시실들과 평행하여 있어서 선택적으로 전시실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구성이 다.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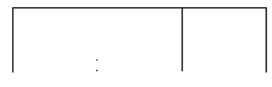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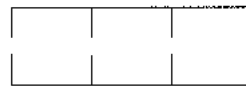


그림 6 관통형 연속관람동선

그림 7 선택형 연속관람동선

1) 관통형

- 박물관의 특정한 목적에 의해 배열 전시된 전시품들을 순서대로 관람케 할 수 있다.

- 연속된 동선에서 지루함으로 인하여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 이동과 관람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동선상의 충돌이 일어난다.

-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으나 자주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공간을 반드시 거쳐야 함으로 불편할 수 있다.

- 일반대중을 위한 교육적 목적에 더욱 적절하다.

2) 선택형

- 박물관의 특정한 목적에 의해 배열 전시된 전시품들을 순서대로 관람케 할 수 있다.

- 이동과 관람을 분리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나 자주 방문하는 사람 모두에게 유리하다.

- 일반대중을 위한 교육적 목적과 함께 특정한 관람목적에도 부합된다.

위에서 살펴본 전통적 개념의 박물관 전시공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근대주의운동의 선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특히 미스 반 데 로의 "작은 도시를 위한 박물관"(1939)이 대표적인 예로서 이것은 이후에 베를린에 있는 신국립미술관(1962-68)에서 구체화되었는데 단일지붕 밑에 창고 같은 빈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예술품을 위해 시간에 따라 적절히 변화하는 전시방법에 대응한다는 개념에 기초를 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념이 수용된 박물관이 추후 세계 각지에서 세워지기도 하였지만 박물관이란 관람객의 움직임을 위한 공간으로서 출입구, 복도, 전시공간 등의 모든 건축요소들과 진열된 전시품들과의 관계는 전체적 경험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특히 본 글의 대상인 국립현대미술관이 속해있는 풍피두센터(1977년완공)는 이러한 융통성공간(Universal Space)의 발전에 있어서 정점을 이루었던 건축물로서 아울렌티에 의해 재 디자인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스의 전시공간과 같은 융통성공간이었다.

현재는 박물관의 사회적 개념의 변화에 따라, 즉 전시품의 감상만을 위한 장소로서의 박물관에서 사회적, 교육적 심지어 상업적이기도 한 박물관으로의 변화에 의해 건축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시공간에 관한 한 근대주의운동이 활발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커다란 변화 없이 전통적 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의 전시공간구성, 즉 관통형과 선택형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아울렌티의 전시공간의 특성은 이 두 가지 형태의 공간 구성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상호간의 장점만을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관람객의 동선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유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르세이 미술관

1898년과 1900년 사이에 지어진 기차역과 호텔을 미술관으로 전환시킨 건물이다. 루브르박물관과

는 세느강을 끼고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있어서 미술관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였다. 1979년에 설계공모전을 실시했으나 1980년 아울렌티의 팀이 당선작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비판의 관점은 특정한 미술품을 전시한다는 점과 당시 루브르의 미술부문 담당큐레이터였던 Michel Laclotte에 의해 제안된 미술관 프로그램은 어떻게 적절히 수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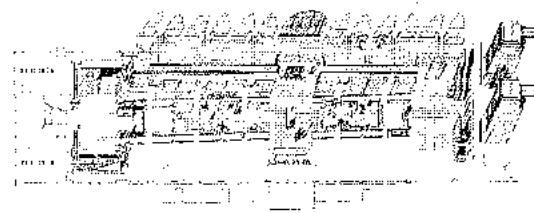


그림 8 오르세이 미술관 (1980-86, Paris)

첫 고려사항은 기차역사의 커다란 네이브 부분이 형성할 시퀀스에 따라 미술관 전시공간을 구성하는 일이었다. 역사의 네이브 부분의 긴 축의 형성과 이 축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교차하는 축들이 구성되었고 레벨 차를 이용하여 평면의 단조로움을 해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중앙의 긴 홀, 전시실들 그리고 통행공간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거대한 하나의 공간을 미술관의 용도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작품으로서 평가되고 있다(그림8).

국립현대미술관

이 미술관은 1977년부터 풍피두센터의 한 부서가 되었으며 20세기 초기, 즉 1905년과 1960년 사이의 미술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1977년 당시의 풍피두센터의 평면은 융통성의 공간으로 되어있어 언제든지 변화하는 내부의 기능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그림9). 물론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공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는 미스에 의해 1939년에 디자인된 "작은 도시를 위한 미술관"(그림10)에서부터 시작된 융통성공간의 미술관 개념의 정점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미술관에서의 융통성공간은 많은 비판과 함께 전통적인 전시공간구성, 즉 방과 방으로 연결되는 전시공간이 재등장됨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또한 재디자인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85년 아울렌티에 의해 현재의 전시공간을 갖게 되었다. 아울렌티의 전시공간은 전통적인 방들이 서로 연결된 체계로 되어 있어서 각 방들은 특정한 화가나 학파의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건물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길

다란 복도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모든 전시실은 건물구조의 리듬을 고려하여 모듈화되어 5m의 높이에 11m의 고정된 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실의 길이는 22.45m가 가장 많으나 곳곳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전시실들의 사이에는 복도형태의 공간이 있어 작은 전시공간들을 이루고 있다.



그림 9 폼피두센터 (1972-77,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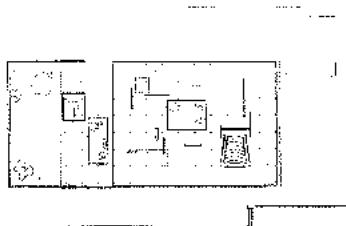


그림 10 작은 도시를 위한 미술관 (미스, 1939)

이 미술관의 평면구성을 살펴보면(그림 11) 폼피두센터의 정면에 위치하는 긴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서면서 출입구를 향하여 들어서면 곧바로 관람객의 시선은 마티스의 그림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면서 그 전시실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 입장권을 내고 마티스의 전시실로 들어서면서 서쪽, 즉 관람객의 왼쪽을 보면 길다란 복도가 나타나는데 이 복도는 서쪽의 끝까지 곧바로 뻗어있으며, 그 끝은 외부의 테라스와 유리문으로 통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전시의 시작점에서 관람객에게 전시공간전체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전시공간내에서 관람객의 위치를 항상 인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길다란 복도는 5개로 나뉘어진 전시영역을 연결해줌으로써 관람객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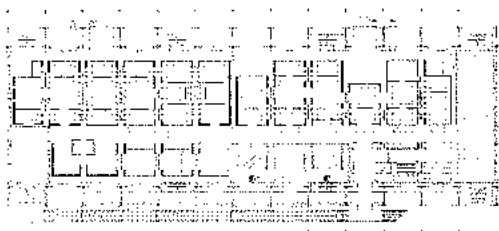


그림 11 국립현대미술관 평면

공간구성의 특성

전시공간구성에서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진 관람객들에게 전시품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미술관 관람의 목적이 사회, 문화적 여가활동에 있는 관람객에게 다른 관람객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줌으로써 문화생활에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시공간구성이 전시품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공간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즉 일반적으로 일련의 그림들이 연대순으로 또는 학파별로 순서 있게 전시된다면 하나로 연속되는 공간들에서의 전시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그림들 가운데서 관람객 스스로 감상하며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동선 상에서 고리모양의 동선들이 많아야 한다.

미술관 방문의 성격이 사회, 문화적 행위에 있다면 이 또한 전시공간구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작품하나 하나에 대한 정보보다는 문화적 활동이라는 측면에 비중을 둔다면 관람객들은 상호간의 존재를 항상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축적으로는 전시공간을 통한 그들의 움직임은 한두 개의 주동선과 전시실들의 축선상의 배치 그리고 보다 큰 규모의 전시실 등에 의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석대상 미술관의 전시공간 분석방법은 일단 두 전시공간 평면들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보다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공간통사론의 기본방법과 개념을 도입한다. 우선 전시공간의 평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된다. 첫째는 공간상관도로서 점은 단위공간들을 나타내고 두 점을 이어주는 선은 상호 연결되어 이동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복잡한 전시공간을 이처럼 간단하게 표현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전시공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둘째는 Axial Map으로써 평면도를 가지고 경계들을 건드리지 않고 선을 그려 전체 평면을 커버하는데 가장 길게 뻗어있는 선을 그리고 그 다음 긴 선의 순서대로 겹치지 않게 그린다. 이 그림은 전체공간의 형태를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요소와 관련하여 그 특징을 쉽게 나타내어준다.

오르세이 미술관의 전시공간 특성

오르세이 미술관 중간층의 전시공간을 보면 아래층의 중정(대공간)을 내려다보면서 이동할 수 있는 복도공간을 중심으로 세 개의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1 오르세이 미술관, 전시공간 (복도형대공간)



사진 3 오르세이 미술관, 전시공간



사진 2 오르세이 미술관, 전시공간 (복도형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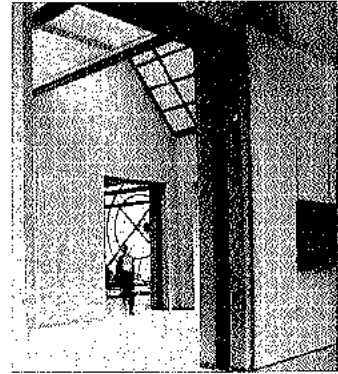


사진 4 오르세이 미술관, 전시공간

그림 12는 오르세이 미술관의 중간층의 전시 공간구성의 공간상관도와 Axial Map이다.

먼저 공간상관도를 살펴보면 전체 전시공간 형태가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복도공간에서부터 각 전시공간은 모두 2단계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평면도에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시공간들은 모두 직접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아래 부분의 공간들은 플로렌스에 있는 우피찌 미술관으로부터 전해져온 공간구성의 특성, 즉 관람객들이 복도를 통하여 이동하면서 복도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전시실들을 선택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평면도의 윗 부분에 위치하는 전시공간들은 크게 두 묶음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묶음에는 여러 개의 고리모양의 동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묶음별로는 연대순이나 전시품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전시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개의 고리모양의 동선은 각 묶음에서 전시품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xial Map(그림 12)을 살펴보면 평면도의 윗부분 왼쪽에 있는 전시공간들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비교적 연속적인 움직임을 유도하고 있어서 관람객들이 연대순이나 학파순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오른쪽의 전시공간은 모두 시선으로 3개씩의 전시실을 관통하고 있다. 즉 하나의 전시실에서 이웃하고 있는 전시실들이 모두 조금씩 보임으로써 이웃전시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함으로써 관람객이 앞으로의 움직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또한 감상을 위해 이동하면서 다른 관람객의 존재도 더욱 많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문화적 행위의 느낌을 보다 많이 민낫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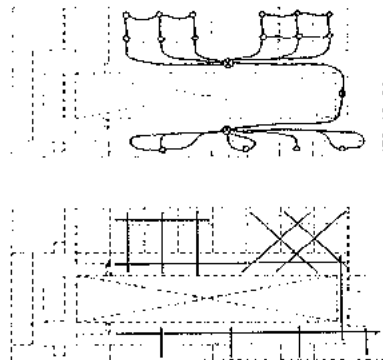


그림 12 오르세이 미술관 공간상관도 및 Axial Map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공간특성

그림 13은 국립현대미술관의 공간상관도와 Axial Map 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전체전 시공간이 중앙을 가로지르는 복도공간을 중심으로 5류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5류음의 공간들은 복도공간을 통 하여서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각 류음은 자체 내에서 원활 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왼쪽 위편에 있는 류 음은 상당한 수의 고리모양의 동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은 관람자들에게 움직임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연결의 동선들로 연결되어 있는 전시실의 그림들을 관람자들 스스로 가 감상하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구에서 직접 연결되고 있는 중앙의 복도로부터 모든 전시공간이 3 단계 이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전시공 간의 일반적 특성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 통적인 전시공간은 방과 방이 연속되어 이어져 있음으로 입구 에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가장 멀리 있는 공간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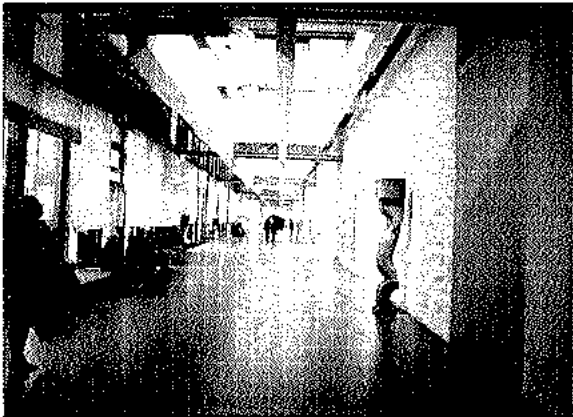


사진 5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공간 (복도형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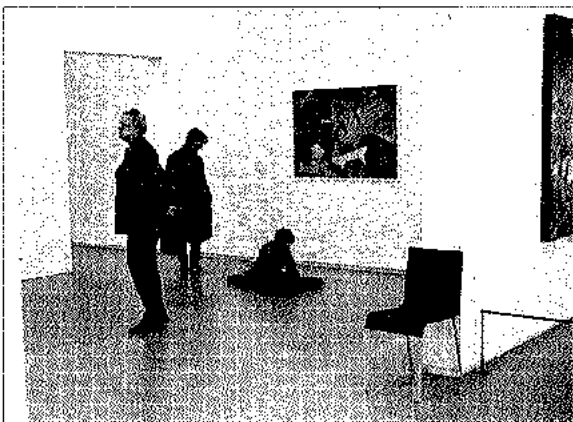


사진 6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공간

반면에 이 전시공간은 대부분의 공간들이 중 앙의 복도에서 1 또는 2단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멀리 위치하는 공간들은 모두 3단계 거리에 놓여있다. 이 러한 특징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항상 전시공간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박물관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여겨온 피로감을 해소하는 해결책이 되고 있다. 그림 13에 의한 이 전시공간의 성격을 간단히 말하면 전체전 시공간은 연대순 또는 기획전시실로 나뉘지고 각 류음의 공간 내에서는 각각의 그림들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며, 공간의 형태가 얇은 구조로 되어 있어 관람객이 중앙의 복 도공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그림을 감상할 수 있 게 되어있다.

이러한 특성은 그림 13의 Axial Map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의 복도공간상에 놓여있는 가장 긴 축을 중심으로 선들이 양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뻗어나간 선들은 적어도 2, 3개의 전시공간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것은 한 공간에 있으면서 그림을 감상하는 동안 이웃 에 있는 공간들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어 다음 전시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게 됨으로써 보다 자연스러운 이동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관람객이 이동하면서 다른 관람객 들의 존재를 계속 확인시켜 줌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박물관 방문이라는 문화적 행위의 만족을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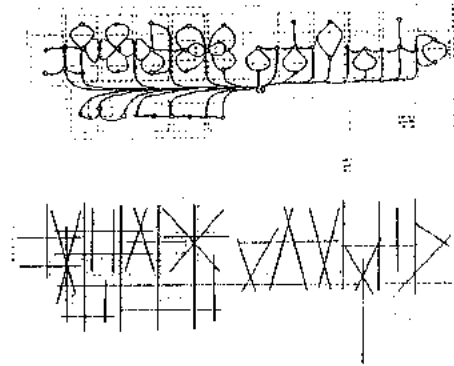


그림 13 국립현대미술관 공간상관도 및 Axial Map

맺음말

전통적 박물관의 전시공간구성은 주로 방과 방을 연결하여 연속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며 이 것은 다시 관통형과 선택형으로 대별된다. 관통형과 선택형의 장단점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전통적 전시공간은 관람객들의 움직임을 한 방향으로만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박물관 관계 자에 의해 의도된 전시품의 전시순서와 관람객의 관람순서가

일치되어 박물관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물관의 경험이란 전시품을 순서에 따라 관람할 수 있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품에 대한 보다 진지한 자세의 감상과 다른 관람객의 존재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데서부터 형성된다는 의미에서는 전통적 전시공간이 매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융통성을 지닌 전시공간은 너무 지나치게 관람순서를 무시하고 있어서 일반 대중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하나의 거대한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인지함으로써 어수선하게 느끼게 되기도 함으로 공공박물관의 상설전시공간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울렌티의 전시공간구성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프랑스의 오르세아 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공간을 분석하여 나온 아울렌티의 전시공간구성의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공간의 중심이 되고 관람객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복도형태의 중앙전시홀이 있다. 이러한 성격의 공간은 초기의 박물관건축에서, 특히 블레나 듀랑의 박물관디자인과 쉐켈의 알테스 박물관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앙의 로툰다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둘째, 전시공간들이 화파별이나 연대별로 묶음이 되어 중앙전시홀을 중심으로 각각의 묶음들이 분리되어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셋째, 각 묶음의 공간 내에서의 전시실들의 배치는 방과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통적 박물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방의 형태를 지닌 각 전시실의 배치가 일렬로 연속 배치되어 관람객의 동선이 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실들이 둘 또는 세열로 나란히 붙어서 배치되어 있다. 또한 각 전시실의 연결을 보면 어떤 하나의 전시실에 있는 관람객의 시야에 세 개 또는 네 개의 이웃하는 전시실이 사선으로 조금이나마 들어오게 됨으로써 다음에 접하게 될 전시실들에 대한 힌트를 미리 얻을 수 있게 되어있다. 즉 고리모양의 동선이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여러 종류의 그림들 가운데서 관람객 스스로 감상하며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박물관의 방문이 문화적 활동이라는 측면에 비중을 두었다고 가정하면 이 공간구성에서는 관람객들이 상호간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게 되어 보다 가치 있는 경험을 얻게 하고 있다.

최근의 박물관건축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기능의 공간들이 생겨나고 형태적으로도 일반대중에게 친근감을 주는 공간들이 많이 디자인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전시공간만은 초기박물관들에서 나타나는 전시공간구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많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울렌티는 위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의 전시공간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사용하고 있다. 아울렌티가 보여주는 전시공간구성의 특성들은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채택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

건축계소식 / 75

현상설계 / 82

해외잡지동향 / 100

건축계소식 archi-net

2002 제4회 건축사진 여름 워크숍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건축사진기회(회장 김경호)에서 주최하는 2002년 건축사진 워크숍이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 이슈는 건축과 사진이 서로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건축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진은 건축을 가지는가? 이다. 국내 대학(원) 건축과, 사진학과 재학생 및 건축사진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진 이론과 건축사진의 실질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 프로그램: 건축사진의 이해, 건축사진 만들기, 실내건축사진 만들기, 모형사진 만들기, 메타건축사진 이야기, 비늘 구멍사진 그 원초적 수단으로 여행, 누드 재미난 이야기, 디지털 살펴보기, 사진에 나타난 건축, 건축이 가지고자 하는 사진, 이미지로서 건축사진
- 건축사진기회 강사: 김경호(CAMP스튜디오), 김재경(사진가), 김재운(프리랜서), 김태오(간스튜디오), 문정식(프리랜서), 박영채(프리랜서), 유현민(사진가), 이인미(프리랜서), 엄승훈(프리랜서), 조명환(프리랜서)
- 초빙강사: 강 혁(경성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진동선(사진비평가), 최봉림(사진비평가), 백성현(사진가)
- 신청기간: 2002년 6월 22일 마감(입금 선착순)
- 모집정원: 60명
- 참가비: 12만원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3-04-717561(예금주 김경호)
- 문의: 02-2266-9338
archiphoto.pe.kr

제7회 한국목조건축학교 개최

7월 6일까지 참가신청

한국목조건축협회와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회 한국목조건축학교의 일정이 확정되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강사는 장상식(충남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정태욱(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 이사), 최원화(주·나무와 삶 이사), 김민배(라파즈석고 기술서비스팀), 권순관(대림이엔씨·주 대표이사)씨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에서 시공실습은 충남 공주시 이인면에 소재한 '사랑이 있는 집'에서 약 50평 규모의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야간에는 다음날 실습할 내용의 이론을, 낮에는 직접 시공 실습에 참여함으로써 2주간이라는 단기간 동안 경골 목조건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 문의: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
(02-722-3685),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
(02-554-0611)
www.woodhouse.or.kr

2002 월간 플러스 해외건축기행단 모집

네덜란드와 베를린의 현대건축과 변화

월간 플러스는 네덜란드의 10여 개 도시와 독일 베를린의 최신 현대 건축물들을 집중적으로 돌아봄으로써 현대건축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두 나라의 면모를 직접 보게 될 해외건축기행단을 모집한다.

현재 나라전체가 현대건축의 실험실로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덜란드는 각종 도심 재개발사업과 단지개발로 단위건축물 구축에 다양하고 실험적인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건축가들이 뛰어들고 있으며, 조경 및 스퀘어(Square)개발에도 주목할 만한 개념을 선보이고 있다. 또 다른 답사지인 베를린은 통독 이후 '현대건축의 전시장'이라 불리울 만큼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속속 세워지고 있는 곳으로, 이는 분단에서 통일 이후의 도시변화와 재건, 그에 따른 건축적 변화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 두 나라를 통해 우리의 미래상황을 간접적이나마 떠올려보게 되는 여행이 될 것이다. 답사인원은 약 15명 이내로 구성할 것이며, 선착순 접수 마감으로 자세한 일정과 경비는 플러스 홈페이지(www.pluszine.co.kr)와 등록자 개인에게 통보된다. 개별 작품에 대한 해설은 천의영(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현지 유학생들이 가이드로 참여할 예정이다. 답사 예정지와 작품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건축물은 추가, 생략될 수 있다.

- 주제: 네덜란드와 베를린의 현대건축과 변화
- 일정: 2002년 8월 1일 ~ 8월 11일 (10박 11일 예정)
- 참가인원: 15명(선착순 마감)
- 참가비 최종납부기한: 2002년 6월 20일

- 강연 및 오리엔테이션: 2002년 7월 27일(여권지참)
- 참가경비: 250 만원 내외(정확한 금액은 추후 공지)
국제선 항공료, 현지 항공 및 철도, 전세버스 등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강사료, 보험료, 공항세, 자료집 포함, 기타 차지 및 팁은 별도
- 해설: 천의영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 문의: 플러스 문화사 편집부/ 최충욱 기자
T. 02-563-4322/ F. 02-557-4896/
www.pluszine.co.kr/
grearch@pluszine.co.kr

- 여행도시: 답사 건축물 정보는 차후 자료집으로 제공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Byzantium(Rem Koolhaas)
- Vincent Van Gogh Museum extension (Kisho Kurokawa)
- Science Center, New Metropolis (Renzo Piano)
- IJ-Plein(Rem Koolhaas)
- IJ Tower & Shopping Center/ Brazilie(Neutelings-Riedijk)
- KNSM Island Tower(Wiel Arets)
- WoZoCo Housing(MVRDV)
- Piet Hein Tunnel Building/ Bridge Master's House(Van Berkel & Bos)

할베르섬

- VPRO head office(MVRDV)
- RVU office(MVRDV)
- Print workshop(Neutelings-Riedijk)

우트레흐트

- Double House(2000, MVRDV)
- Utrecht University Minnaert Building(Neutelings-Riedijk OMA)
- Utrecht University Educatorium(Rem Koolhaas, OMA)
- Utrecht University Museum(Koen van Velsen)
- Utrecht University NMR facilities(Van

Berkel and Bos)

- Utrecht University, Faculty of Management and Economics (Mecanoo)
- Vredenburg Music Center(Herman Hertzberger)
- School for Fashion and Graphic Industry(Erick van Egeraat)
- Schr der House(Gerrit T. Rietveld)

아메르스푸트

- 50/10kv distributing substation(Van Berkel & Bos)
- Karbouw Office & Workshop(Van Berkel & Bos)

로테르담

- Megacinema(Koen van Velsen)
- Erasms Bridge(Van Berkel & Bos)
- The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Jo Coenen)
- Kunsthall(Rem Koolhaas, OMA)
- Natural History Museum(Erick van Egeraat)
- Quay Landscape+ Bridge Watcher's House(Bolles-Wilson)
- New Luxor Theatre(Bolles-Wilson)
- KPN Tower(Renzo Piano)

덴 하그

- Benelux Merkenburo(Herman Hertzberger)
- The Hague City Hall and Library(Richard Meier)
- 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Employment(Herman Hertzberger)
- National Dance Theater(Rem Koolhaas)
- The Hague Apartment Building(Henri Ciriani)

델프트

- Library of the Delft Univ. of Technology(Mecanoo)
- Open-air theatre(MVRDV)

브레다

- Chasse Theatre(Herman Hertzberger)
- Fire Station(Neutelings-Riedijk)

질랜드 우테르셀데

- Neeltje Jans Water Pavillion, freshH2O EXPO(NOX+Oosterhuis)

마스트리흐트

- 20 Apartment for the Elderly(Wiel Arets)
- Maastricht Academy for the Arts and Architecture(Wiel Arets)
- Ceramic Office Building(Wiel Arets)
- House/ Studio Arets-Sijstermans (Wiel Arets)

발스

- Police Station(Wiel Arets)

복스텔

- Police Station(Wiel Arets)

힐렌

- AZL Pension Fund Headquarters (Wiel Arets)

독일/베를린

- Portzdamer Platz Redevelopment Daimler City(Renzo Piano+Christoph Kohlbecker)
- Portzdamer Platz Redevelopment Sony Center(Helmut Jahn/Master Plan: Georgio Grassi)
- Jewish Museum(Daniel Libeskind)
- The New German Federal Parliament, Reichstag (Sir Norman Foster)
- Foundation Topography of Terror (Peter Zumthor)
- DG Bank(Frank O. Gehry)
- Galeries Lafayette(Jean Nouvel)
-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Rem Koolhaas)
- Embassy of the Republic of Austria (Hans Hollein)
- Neues Museum(David Chipperfield)
- Berlin Chamber of Commerce (Nicholas Grimshaw)

- Olympic Velodrome & Swimming Halls(Dominique Perrault)
- Baumschulenweg Crematorium (Axel Schultes+Charlotte Frank)
- Heinz-Galinski School(Zvi Hecker)
- Stella Musical Theater(Renzo Piano)
- Housing at Stresemann Strasse (Zaha Hadid)
- Sony Center(Helmut Jahn)
- Photonikzentrum(Sauerbruch & Hutton)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건축기행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사이프로콘은 싱가포르 현지 건축인, 월간 건축 Poar(협찬)와 신차원여행사와 함께 <싱가포르/인도네시아 건축기행>을 기획,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출발한다. 현지 전문 건축인의 설명과 안내로 이루어질 이번 기행은 싱가포르의 센토사섬, 주룽새공원 등과 인도네시아의 원주민 마을, 중국사원 등을 관광할 예정이다.

문의: 0502-100-1011

www.cyprocon.com

서울건축학교 2002 여름워크숍

번화의 시작과 새로운 풍경 / 세계속으로 - 'reciting a city : BUSAN'

서울건축학교(sa)는 그동안 4회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촌락과 중소도시들에

대한 작업들을 통하여 이 시대 이 땅의 삶의 모습과 그 도시, 건축적인 행태를 그 현장으로부터 탐구해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2002년 여름 워크숍은 부산이라는 거대도시를 대상으로 'reciting a city : BUSAN'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부산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도시이다. 그것은 격동하는 역사의 적층을 지닌 추억의 박물관이기도 하며, 미래를 향한 급격한 변화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일상속에 흡수되어가는 새로운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관 관계 속에 부산 속에는 수많은 이질적인, 다양한 삶의 흔적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 내면적인 충돌과 흔적은 수많은 독특한 도시적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성적인 영역에 기초하지 않은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그 도시 특유의 다양한 공간적인 특성과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부산이 지니는 도시공간적, 장소적 특성에 관한 접근은 참여 건축가들의 현대도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담론을 통하여 그 풍경 속에 내재된 도시적 기능성과 그 장소적 의미를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건축가들의 집단적인 작업은 부산이라는 도시를 새로운 관점으로 그려내고 동시에 우리의 대도시에 대한 도시건축적인 접근 방법들을 모색하는 활발한 논의와 실험의 장이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현재의 도시현상과 그 변화에 대응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또한 부산과 같은 거대도시는 그곳에 내포된 한국성이나 지역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고유한 그 자체의 도시적 특질을 지니며, 그것은 오히려 세계 혹은 아시아의 다른 항구 도시들과 관련된 작업들을 통하여서도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 프로젝트 대상 : 부산
- 기간 : 2000. 08. 03.(토) ~ 2000. 08. 10. (토) 7박 8일
- 참가대상 : 국내외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150명(산학순) 내외

(일본 쓰쿠바대 건축과 학생 10명포함)

- 여름건축학교장 : 김인철/아르키움
- 코디네이터 : 한만원 (한도시건축) + 강혁(경성대건축과)
- 참가건축가 : sa건축가 20명내외 + 부산건축가3인 + 외국건축가1인
- 초청강사 : 강 혁(경성대건축과), 김애령(부산비엔날레전시감독), 외국건축가 1인
- 전시회 : 2002. 08. 17.(토) ~ 2000. 08. 24.(토) / 서울건축학교 전시실
- 참가접수 : 인터넷 홈페이지
www.saschool.or.kr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제정 공고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마침내 지난 6월 5일 제정 공고 되었다. 이 대가기준은 지난 99년 2월 보수카르텔일괄정비법 시행으로 건축사업 및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덤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성행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건축사법을 개정, 새 기준을 제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된 대가기준에서는 설계·공사감리업무 이외에 건축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을 확대 구체화하고, 설계·공사감리업무에 관한 단계별 업무내용을 세분화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이 기준과 함께 적용방법 등을 바인더 형태로 제작하여 전회원에 배부할 계획이다.

제13회 김수근 문화상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수상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김수근 문화상의 수상자는 김수근문화재단 건축전문위원회(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김준성/경기대학원, 이종호/스튜디오메타 이상 3인)와 심사위원단(김병현/창조건축,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박길룡/국민대)에서 추천된 9개의 작품중에서 의재미술관/김종규 + 조성룡, 제주서귀포월드컵경기장/황일인 2작품이 최종심사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상 심사위원회(김병현/창조건축,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박길룡/국민대 이상 3인)에서는 수상작으로 ‘제주서귀포월드컵경기장/황일인’을 최종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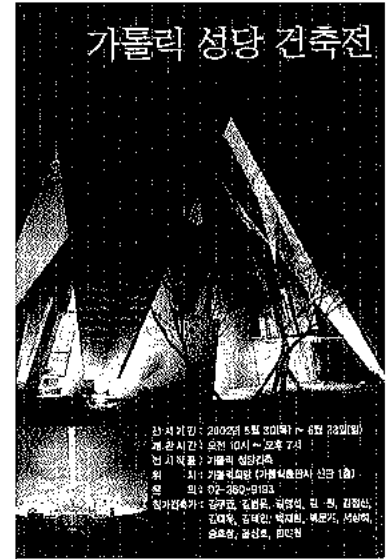
김수근문화상은 건축가이자 공간의 설립자인 고 김수근선생의 4주기를 맞이한 1989년 김수근 문화재단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이 상은 건축가이면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공간을 축으로 삼아 이 땅의 문화예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열의를 쏟았던 고인의 뜻을 기리며 건축, 미술, 공연예술의 세 분야에 걸쳐 당해 년도에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한 작가의 업적을 평가하여 수상하여 오다가 1997년부터 건축상만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시상식 및 수상자 기념강연회는 2002년 6월 14일 오후5시 공간사육마당에서 개최됐다.

작년 12회 수상작인 자로 선정된 ‘CAIS 갤러리/김종규’의 건축전시회는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공간사육전시장에서 열린다.

가톨릭 성당 건축전

가톨릭화랑에서



가톨릭화랑에서는 신앙의 자세와 의식을 반영한 가톨릭 문화의 표상으로서 다양하게 변천해 온 한국의 성당 건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건축가의 최근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하고 있다.

- 기간: 2002년 5월 30일~6월 23일
- 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 작품: 가톨릭 성당건축
- 장소: 가톨릭화랑(가톨릭출판사 신관 1층)
- 참가건축가: 김무권, 김병윤, 김영섭, 김 원, 김정신, 김태우, 김태인, 박재환, 백문기, 서상하, 송효상, 윤성호, 한만원
- 문의: 02-360-9193

◇ 큐브에서 카오스로

두 세기를 걸쳐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세기를 맞는 경험을 갖는 것은 큰 행운이다. 또한 그 만큼 불안하기도 하다. 특히 19세기에서 20세기로 오면서 면모를 새롭게 한 건축에서 세기말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무척이나 흥미롭다. 저자는 이 책에서 쉽게 현대건축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큐브와 카오스라는 두가지 개념을 토대로 현대건축을 해석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한다. 저자는 21세기의 큰 흐름으로 에콜로지 와 정보사회를 들고, 이에 대응하는 자연주의 건축과 테크놀로지 건축을 21세기를 맞이하는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누구나 궁금해 하지 않는 21세기 건축의 먼 미래에 대해서도 건축역사의 순환성이라는 견해에서 2010~20년대에 네오 아르누보를 2030~40년대에는 네오 푸리즘을 과감히 예견하고 있다.



고성룡 역/ 스기모토 토시마사 저/ 229쪽 / 4×6변형/1만6천원/도서출판 팔안 펴냄 (02-929-3546)

◇ 월드컵경기장의 스물 두 가지 이야기

1998년 경기장 건설초기부터 월드컵의 시설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 직위원회 김시형 건축전문위원(건축사)이 그 간의 경기장 준비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내용과 건설과정의 뒷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 「월드컵경기장의 스물 두 가지 이야기」를 펴냈다. 10개 경기장 소개로 시작되는 이 책은 축구경기장에서 필수 요소인 잔디, 전광판, 조명, 음향과 같은 설비를 비롯하여 동선계획, 피난계획 등 경기장 건축의 필수적인 사항과 대회 이후의 활용방안, 건설과정에서의 뒷 이야기 등에 대해 다양한 사진과 삽화를 이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위밍업,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의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밍업에서는 10개 월드컵경기장의 건축적 의미와 건설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했고, 전반전과 후반전에서는 이 책의 본론인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스물 두 가지 건축이야기를, 연장전에서는 부록 격인 10개 월드컵경기장의 건축개요와 위치도, 배치도를 실고 있다.



김시형 지음/ 240쪽/1만1천원/CA Press 현대건축사 펴냄(02-549-6444)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달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02)3071-3071 · 강동구건축사회(46)6-7475 · 강북구건축사회(03)3-3030 · 강서구건축사회(061-6909 · 관악구건축사회(0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06)4-6828 · 금남구건축사회(65) 1558 · 노원구건축사회(037-1100 · 도봉구건축사회(093)8-720 · 달매문구건축사회(067-6032 · 동작구건축사회(075 3026 · 아포구건축사회(033-6761 · 서대문구건축사회(030-303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092-6825 · 성북구건축사회(0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 8158 · 양천구건축사회(0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0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207 · 은평구건축사회(02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314 · 중구건축사회(231-6748 · 중랑구건축사회(037-53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699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9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6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강원도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34-5345 · 구미지역건축사회(031)565-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54-13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 6-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 753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인천건축사회(031)480 9100 · 인왕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시지역건축사회(031)635 0645 · 평택지역건축사회(01)857 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538 0140 · 평주지역건축사회(031)767 2204
- 강원도건축사회(03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충청지역건축사회(041)354-335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934-32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9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351-423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3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832 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6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 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2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000~2
- 경상지역건축사회(053)812-0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 666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635-86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653-0244 · 영주시역건축사회(054)654-5560 · 영월지역건축사회(054)334-9286 · 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 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제주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제주시역건축사회(055)943 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3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민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 3050 · 진주시역건축사회(055)741-6403 · 신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 43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Architecture Asia”에 게재할 작품 모집

아카시아에서 발간하는 “Architecture Asia”잡지에서는 회원국들의 우수한 작품을 게재 홍보할 예정으로 9월과 12월의 출간을 위하여 아래의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Architecture Asia”는 3개월마다 발간되며, 아카시아 전회원국에 배포되고 있다.

□ 모집부문

- 2002년 9월 : 호텔/리조트/레저시설
(작품제출기한 6월 30일)
- 2002년 12월 : 주거시설(작품제출기한 8월 15일)

□ 제출처

PAM 4&6 Jalan Tangsi, 50480 Kuala Lumpur,
Malaysia
담당 : Ms Fay Cheah

1st World Wind Energy Conference and Exhibition

일시 : 2002. 7. 2 - 6
장소 : 독일 베를린
주최 : The World Wind Energy Association
문의 : www.wip-munich.de
www.world-wind-conference.org
E-mail : Wip@wip-munich.d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rban regeneration an sustainability

일시 : 2002. 7. 3 - 5
장소 : 스페인 Segovia
주최 : Wessex University
참조 : www.wessex.ac.uk/conferences/2002/urs02/index.html

UIA Congress Pre-conferences(Essen)

일시 : 2002. 7. 19-21
장소 : 독일 Essen
주제 : The Ruhr Area - The Challenge of Change
문의 : www.essen.de

UIA Congress Pre-conferences(Hamburg)

일시 : 2002. 7. 20-21
장소 : 독일 Hamburg
주제 : Architecture - Sustainability - Environment
문의 : www.bda-hamburg.de

UIA Congress Pre-conferences(Leipzig/Dessau)

일시 : 2002. 7. 19-22
장소 : 독일 Leipzig/Dessau
주제 : Region in the Throes of Change
문의 : www.uia.bda-sachsen.de

UIA Congress Pre-conferences(Munich)

일시 : 2002. 7. 19-21
장소 : 독일 Munich
주제 : The Quality of the City
문의 : www.BDA-Bayern.de

UIA Congress Pre-conferences(Rhine-Main)

일시 : 2002. 7. 19-21
장소 : 독일 Frankfurt, Darmstadt, Wiesbaden
주제 : Resource Cityscape
문의 : www.uia.bda-hessen.de

UIA Congress Pre-conferences(Rostock)

일시 : 2002. 7. 19-21
장소 : 독일 Rostock
주제 : Migration in Europe
문의 : www.bda-mv.de

UIA Congress Pre-conferences(Stuttgart)

일시 : 2002. 7. 19-21
장소 : 독일 stuttgart
주제 : From Modernism to the European City
문의 : www.weissenhof2002.de
E-mail : info@congress-stuttgart.de

Busan Tower Complex 국제설계공모전

부산시는 부산을 상징하는 부산타워(부산 도심가의 중심지에 위치한 용두동의 꼭대기에 도시와 항구를 내려다보는 전망대)와 주변 복합시설을 재개발하여 역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념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제 아이디어 설계경기를 공모한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협회가 주최하며, UIA의 협력을 받아 진행되는 이 설계경기는 40세 이하의 젊은 건축가들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설계경기의 모든 공식언어는 영어로 통일한다. 제출서류(디지털계획, 평면계획,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스케치를 포함한 서류)는 A3용지 8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작품설명은 A4용지 4매 이내로 제한한다. 제출기간은 7월 20일까지이며, 참가회맹자는 등록신청서 제출과 함께 등록비 US\$90를 지불하여야 한다. Busan

Tower Complex는 자연과 도시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문화 휴양 시설 뿐만아니라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참가자격: 40세 이하(196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의 모든 건 축가
- 관련질의: 2002년 7월 20일 마감
- 참가작품접수: 2002년 9월 30일 마감
- 수상내역: 1등(1명)-미화 3만달러
2등(1명)-미화 1만달러
3등(1명)-미화 5천달러
장려상(10명)-미화 각 5백달러
- 문의 : 051-241-0581 www.biacf.org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문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최장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여 임대차관계 존속을 5년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나요.

답1)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사이에 임대료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 임대료 인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문2) 5년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2) 무조건 5년간 임대차관계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③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⑦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⑧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3) 상가임차인이러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답3) 상가임차인중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상인만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월세 등 차임을 함께 내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보증금액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때의 전환 비율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보증금의 범위와 전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입니다.

문4) 동창회 사무실도 보호대상인가요.

답4) 법에서 상가건물만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창회 사무실 등 비영리 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5) 보증금외에 상가임차인의 권리금도 보호대상인가요.

답5) 거래관행상 권리금은 대부분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본법과는 무관합니다.

문6)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보다는 장기간 5년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6) 상가는 주택과는 달리 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있고, 시설비가 투자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택보다는 비교적 장기간 존속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문7)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인과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가요.

답7) 상가임차인에게도 주택과 같이 일정한 임차인의 경우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영세상인에게만 보증금이야말로 최소한의 생활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주려는 것입니다. 다만 보호대상 임차인 및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문8) 상가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사실상 투자한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가요.

답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시설비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시설비를 투자한 결과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유익비상 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시설비를 반환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9) 법 시행일이 2003년 1월 1일인데 법 공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 그 시행

시기를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하고, 사업자등록 사항 중 일부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시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03. 1. 1.로 하게 된 것입니다.

문10) 최근 국세청에서는 임대료를 부당하게 과다 인상한 탈세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은 어떠한가요.

답10) 국세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할 전국 5,000여 곳의 상가임대인에 대하여 5월중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① 세무서「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자 중 탈세혐의가 있는 자
- ② 대도시 변호사, 수도권 등 중상상가의 임대인으로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
- ③ 임대료 과다인상자 중 탈세혐의가 있는 자

문11)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임차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답11) 기존의 임차인이라도 금년말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 시행일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문12)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상가건물에 대해 저당권 등을 설정한 담보권자는 법 시행에 따라 인정되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때문에 불족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12)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 등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13) 당사자간에 법률보다 불리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가요.

답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고양국제전시장 / 82

경기도 효박물관 / 86

허준기념관 및 한의학연구소 / 90

서대문 청소년수련원 / 94

울산 진장중학교 / 98

고양국제전시장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 당선작/정림 + 공간 + 원양 + 건원 + Destafano(삼성 + 현대 + 대우 + 태영)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06번지 일원
 지역지구 고양국제전시장 도시개발구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대지면적 241,586㎡ (73,079.44 평)
 건축면적 89,210.07㎡ (26,985.92 평)
 연면적 116,571.46㎡ (35,262.71 평)
 건폐율 38.54%
 용적률 45.21%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철조 콘크리트조, 철 골조

외부마감 THK3 AL 복합 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디자인총괄 박승홍

설계총괄 이형재, 조민건

설계팀 정림: 임상필, 최성우, 김대준, 김선근, 강창수 / 공간: 조성호, 황정현, 이평주, 정기홍, 김동태 / 원양: 박근우, 김영진, 김하영, 황대홍, 이수민 / 건원: 김연준, 양수현, 박진숙

蝴蝶穿花
 호 절 천 화

꽃밭에
 나비가 살포시 내려앉은
 형상을 의미하며

자연속의 도시 - 자연속에 자리잡은
 쾌적한 전원도시,
 도시속의 건축 - 자족도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시장,
 건축속의 인간 - 그 곳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인간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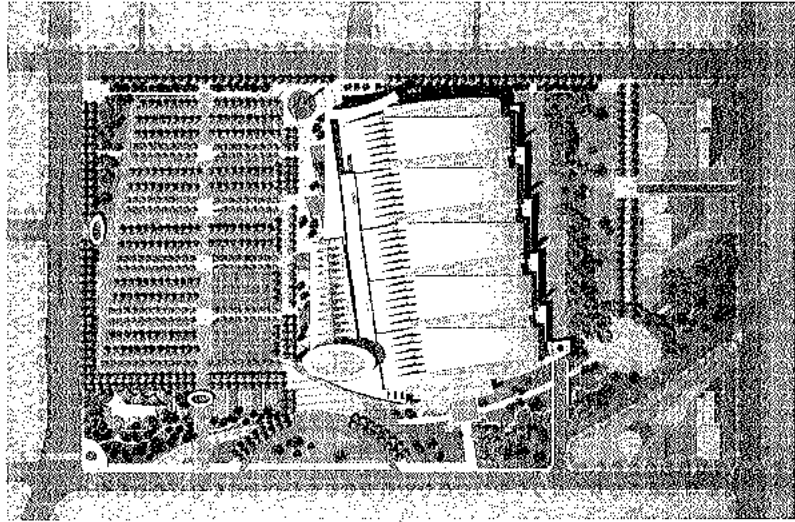
자연/도시/건축/인간의 하모니

Story: 고양국제 전시장의 MASTER PLAN은 법+선진+SOM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전시부지 10만평과 지원시설부지 13만평을 개발하여 총전시면적 54,000평 규모의 미래형 국제 전시장과 컨벤션타운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단계로 2004년 9월말까지 전시면적 17,000평 규모의 국제 전시장을 건립하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호텔, 공항서비스, 판매위탁시설 등 전시컨벤션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을 동시에 개발할 예정으로 단기를 발주하였다. 이에 삼성 컨소시엄은 7개국 14개 도시 24개 전시장 벤치마킹을 토대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Site: 고양국제전시장은 북쪽으로 일산 신사가지가 조성되었고 동쪽으로는 호수 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가깝게는 농지, 원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어 도시와 자연, 도시녹지축이 만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Concept: 도시와의 연계, Future Extension, 전시장 모듈의 적정성

Context: 일산도시체계 및 도시흐름을 대지대로 적극 수용하고 지역주민 및 관람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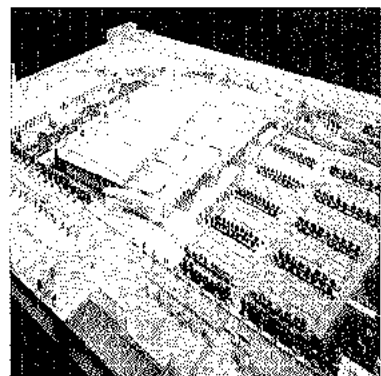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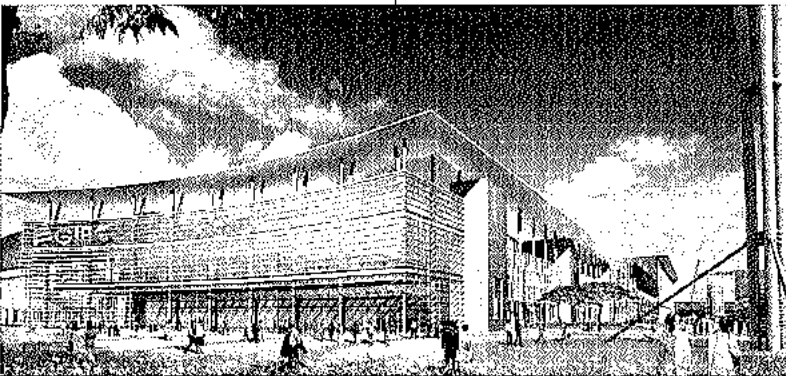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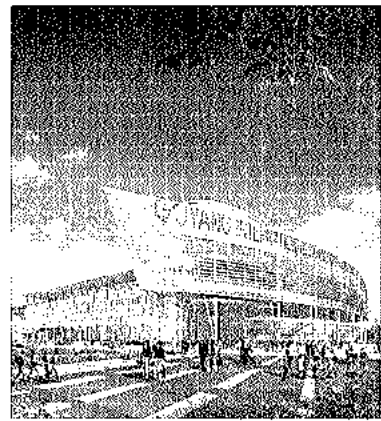
접근에 따른 출입구 계획과 지역주민을 위한 옥외공간, 푸드코트 등의 시설을 도시 쪽으로 개방

Axis: 도시와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진입축 형성과 중앙공원의 선형흐름에 대응하는 발전축으로 성장에 대한 암시와 도시의 역동성 부가

Green Network: 중앙공원과 도시를 잇는 녹도 콘코스와 호수공원의 수변녹지 요소를 내외부공간에 입입하는 친환경계획

Extention: 2단계 계획시 콘코스를 중심으로한 병렬형 증축으로 대형 아트리움 공간형성 및 경제적 효율성증대

Highway and Byways: 풀 플레의 작으로 고양 신도시의 의미 고속도로,샛길/기존 논밭의 이미지로 Form, Surface and Color의 환상적이고 은유적 이미지를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모습으로 입면에 형상화 더불어 도시와 함께하는 건축, 꽃의도시 고양시를 표현하고자 한다.



▶ 우수작 /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이영희·정영균) + 무영
건축(안길원·문정일) + 두산
건설 + 신동아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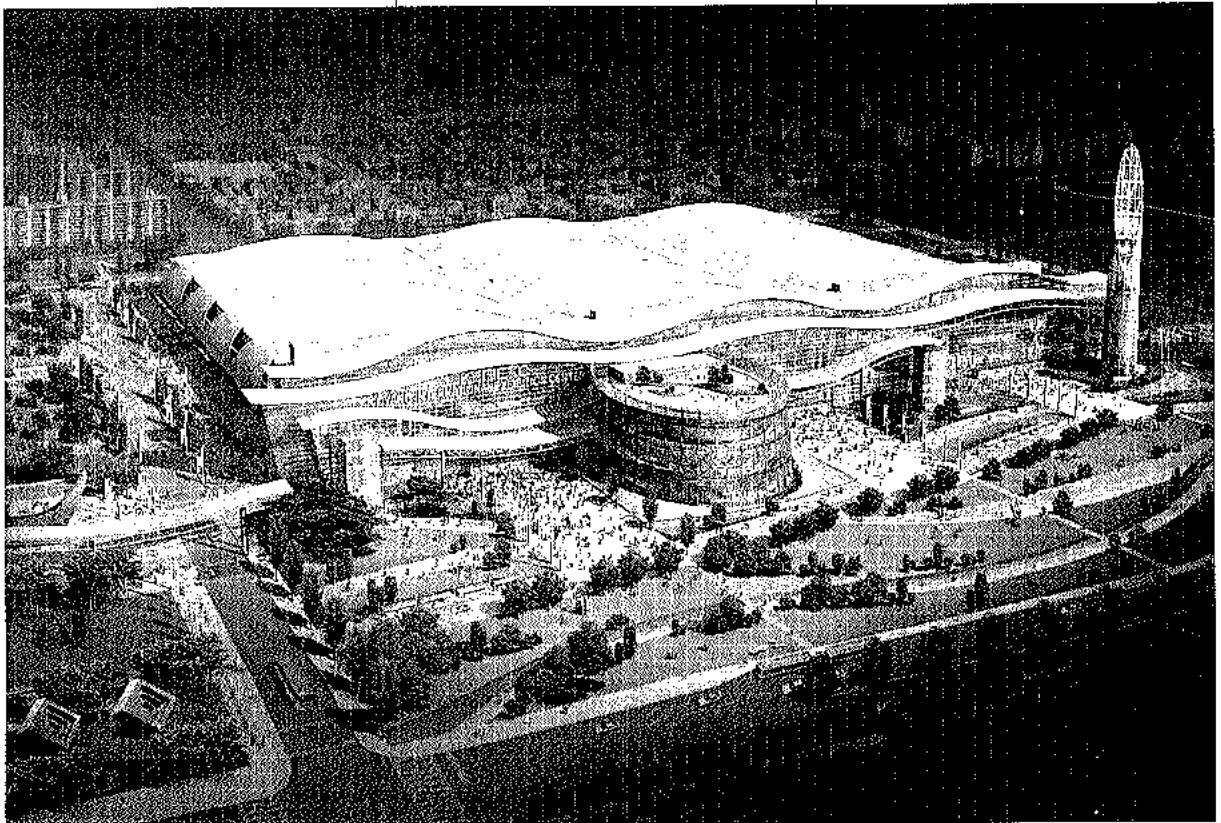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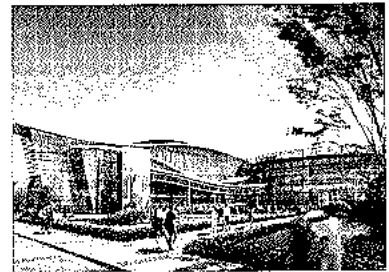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06번지 일원
대지면적	241,586㎡
건축면적	76,600㎡
연면적	120,751㎡
건폐율	31.7%
용적률	42.3%
주차대수	2,092대(대형 101대, 직원 202 대, 장애인 46대)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설계팀	김은식, 윤영구, 정진환, 이동원, 한상진, 윤서연, 민상충, 민준식, 장군식, 이남주, 허원일, 박진성, 김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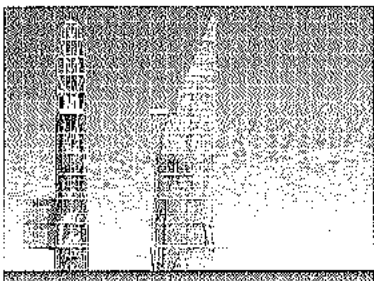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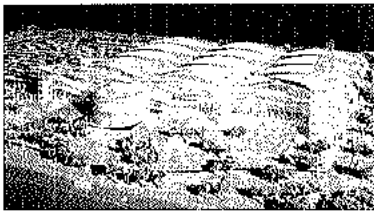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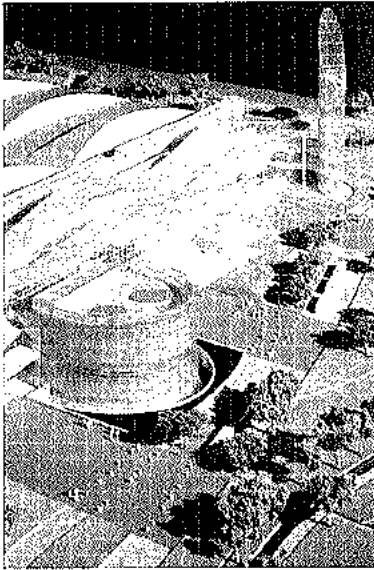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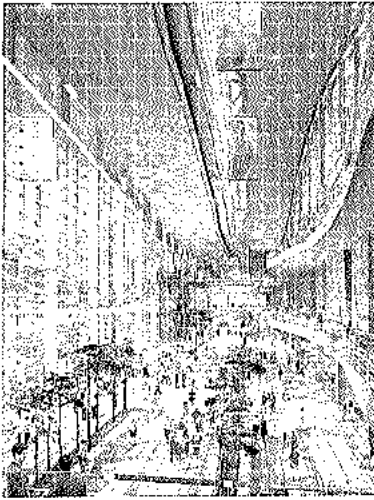
건립목적

1. 21C 국가 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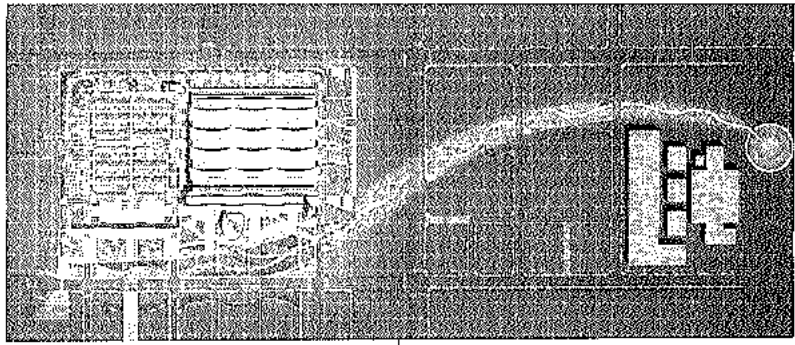
-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제 전시장 건립
- UFI 기준에 적합한 국제적 수준의 전시
공간 확보
- 2. 동북 아시아 및 국내 전시장과 차별화
- 대규모 중장비 트레이드 쇼에 적합한 전
시장
- 100,000㎡ 규모의 단일 전시공간 확보
를 위한 확장성
- 3. 친환경 국제 전시장 건립
- 그린시티로서의 고양시 이미지 제고
- 에너지 절약형 그린 빌딩 계획
- 4. 전시장 확장계획
- 1단계 전시행사와는 무관하게 2단계 확
장공사 가능
- 2단계 완료시 대형 전시회가 가능한 단
일 공간 전시장으로 계획
- 2단계 확장시에도 점진적 확장으로 융
통성 있는 성장성을 추구하여 해외 유사
전시장과와의 경쟁력 확보
- 5. 정면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 전시장 전용 진입로를 통한 30M 도시

- 계획도로에서 각 시설로의 접근이 되는
정면성 강조
- 중앙공원 녹지축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시설에 배치되어 신중심권 형성
- 신 중심권은 기존 주거생활권과 분리되
어 거주 환경성 보호 및 차량혼재 방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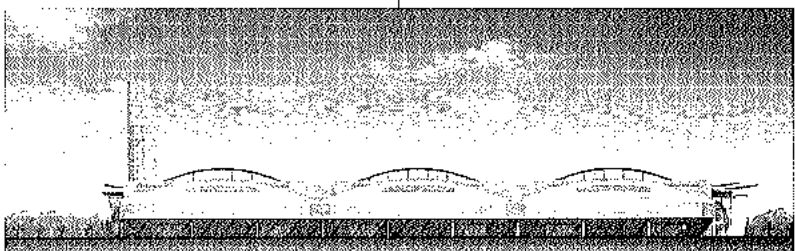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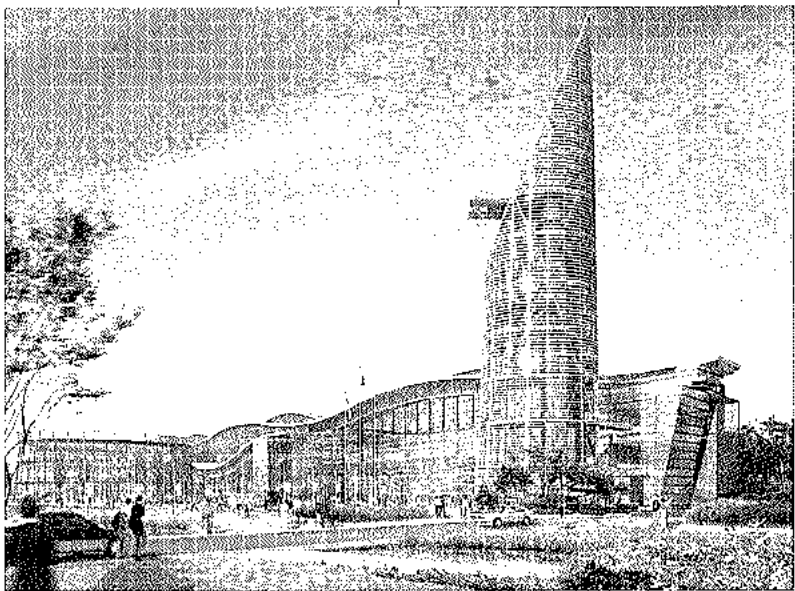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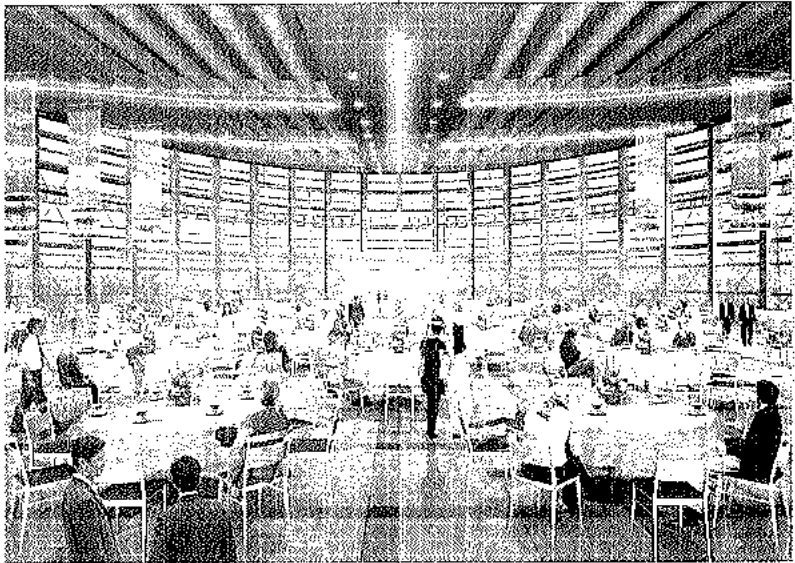




퇴원입면도



바치도



배면도

경기도 호박물관

Filial Piety Museum, Gyeonggi

▶ 당선작 / (주)진우건축(김동훈·지영호) + (주)건우사(공순구)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98-15번지외 1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 지역
대지면적	11,465.00㎡
건축면적	1,423.15㎡
연면적	3,620.65㎡
건폐율	12.41%
용적률	21.37%
구조	철근 콘크리트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대수	24대
외부 마감	화강석버너구이, 노출콘크리트,

설계팀
 알루미농복합패널
 김홍안(총괄), 김병욱, 허양순,
 안상인, 강종오, 김영규, 아자나,
 김규희
 전시설계-(주)경동TND+(주)
 시공테크

계획의 목적

경기도 호 박물관은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가치인 호 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 선양하여 한국 정신문화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21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정신문화로 개발 육성해 나감은 물론 호의 근본인 화성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계획의 기본 방향

전통공간과 조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전통성, 정조의 효행과 연관된 응릉, 응주사, 화성 등의 상징성, 주변 소음에 대처하기 위한 형태성, 박물관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효행체험 활동, 수련, 이벤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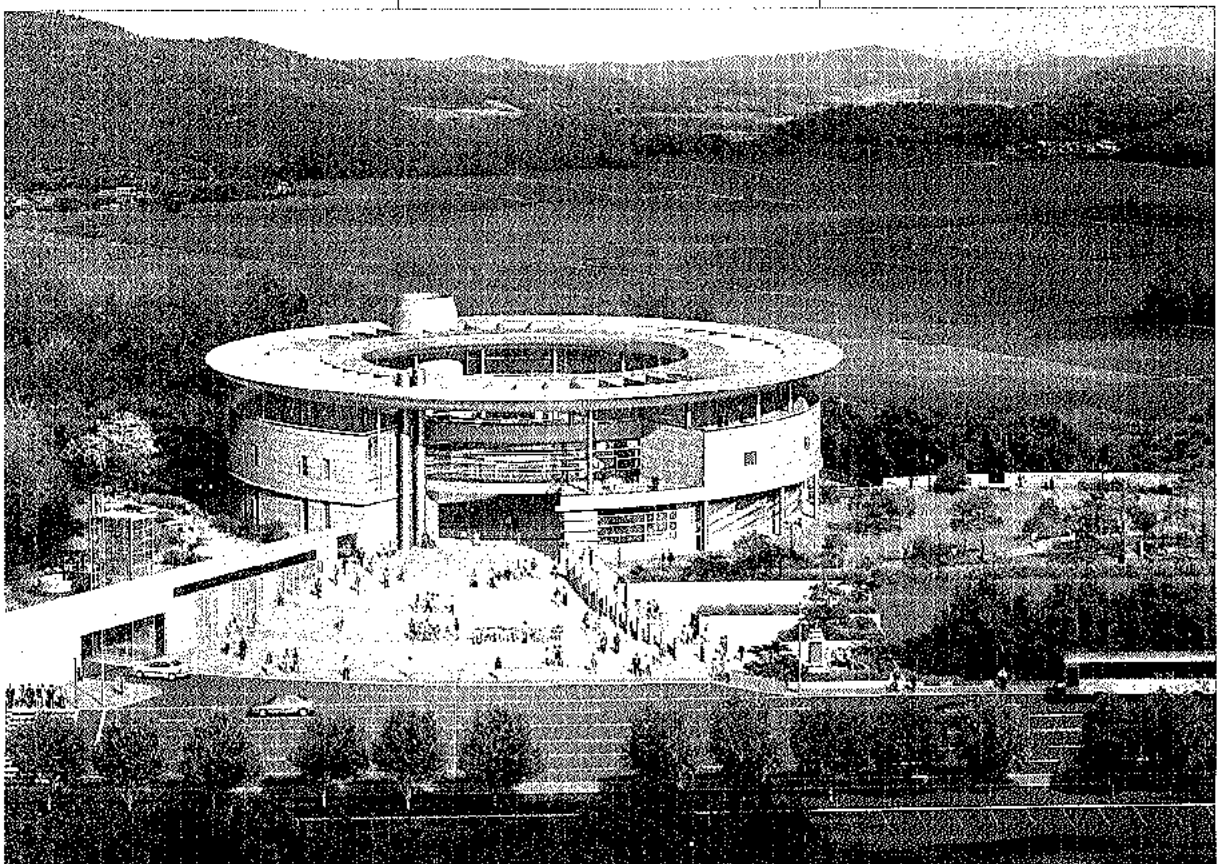
가능한 다양성 등을 박물관의 계획방향으로 삼았다.

배치 계획

기존 도로와 계획도로에서의 원활한 진입공간 확보, 전시와 교육공간의 적절한 배치, 단일 배스의 형태로 건물의 인지성을 부각시켰으며, 화성을 상징하는 봉돈, 응성 등을 현대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또한 앞마당 → 안마당 → 바깥마당으로 이어지는 전통 공간 배치 개념, 야외 공연장, 산책로 등의 적극적인 공간 활용으로 외부공간의 활력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단순히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 휴식,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 계획을 하였다.

평면 계획

평면 계획은 전시기능 뿐만 아니라 효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공간으로 전시관, 생활관, 서당 등을 두어 가족 단위 체험학습이 가능토록 하였다. 효율적 동선을 위하여 각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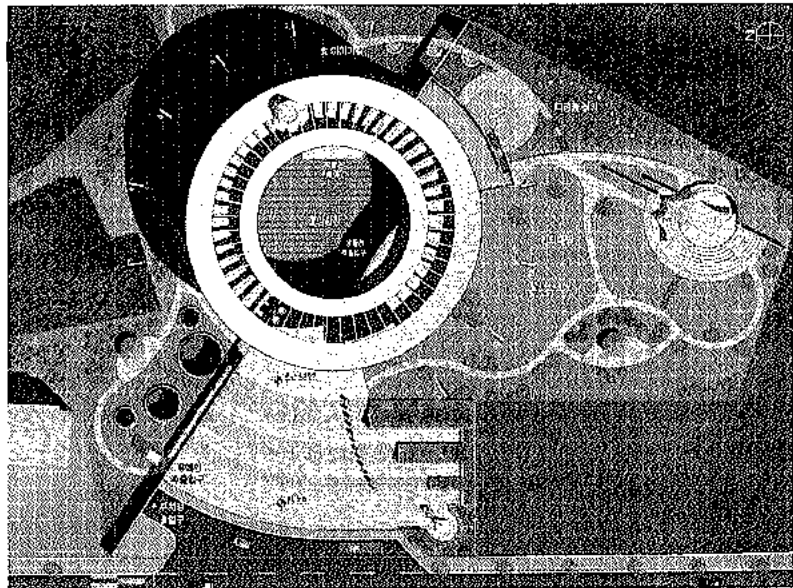
역별 출입구와 환기, 채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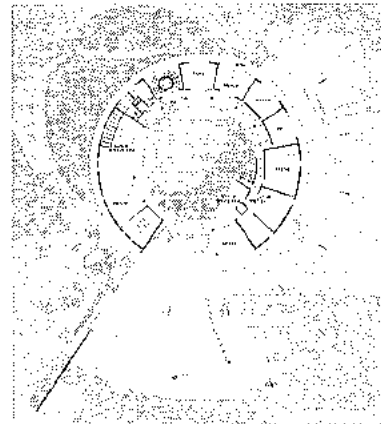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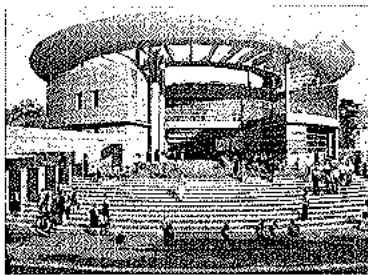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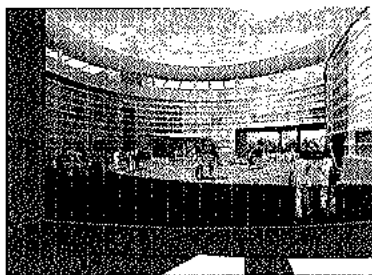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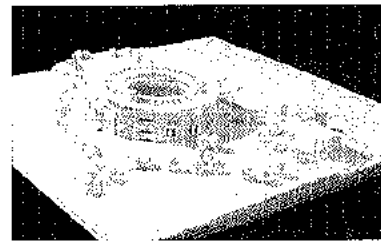
입면 계획은 화성의 특징은 웅성과 봉돈을 상징화하였으며, 당간지주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고, 지붕의 파고라 형태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미인 처마 곡선을 상징화하였다. 수평을 강조하여 안정감과 방문객에게 친근감을 유도하였다. 외장재는 화강석, 노출콘크리트,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을 사용하였다.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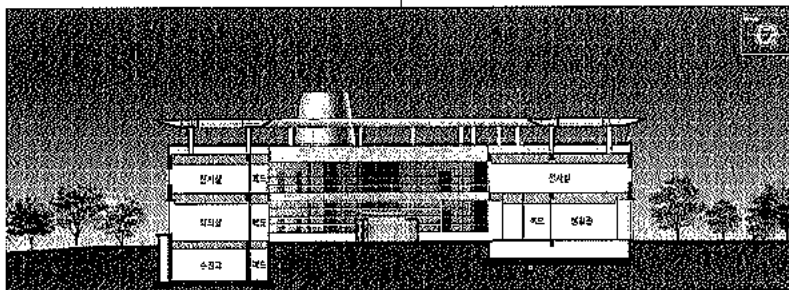
단면 계획은 경사지를 최대한 살려 지하층을 형성하는 많은 부분이 외기에 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식당이나 주방과 같이 채광과 환기가 적극 필요로 하는 공간을 동쪽면에 배치 전면이 외기에 면하도록 하여 냄새나 위생상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기능별 위계에 의한 층계획을 하였고, 연결 브릿지를 통한 동선의 연계성 및 변화성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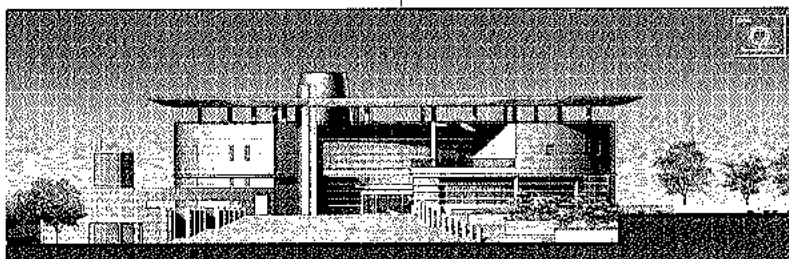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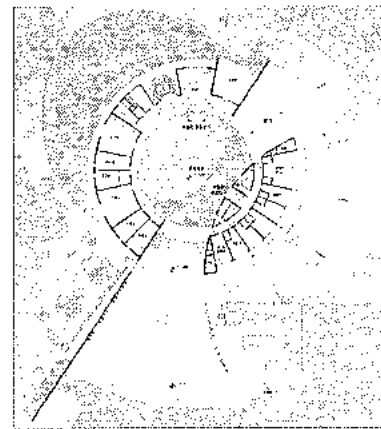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횡단면도



정면도



1층 평면도

▶ 우수작 / (주)POS-A.C.종합
감리/건축사사무소(이강우·
심성보)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98-15, 26번지
대지면적	12,899㎡
건축면적	1,885.8㎡
연면적	3,336.6㎡
건폐율	16.45%
용적률	21.90%
주차대수	40대(일반 34대, 장애인 3대, 버 스 3대), 법정 22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박물관 : 지하 1층, 지상 2층 체험관 : 지하 1층, 지상 1층

모든 호의 근원은 가정이며, 이는 우리가
생활하는 집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집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간에 그리고
형제간 이웃간에 사랑과 정을 가꾸고 키우
며 성장해간다.

우리는 호 박물관을 이러한 집의 모습에서
찾아가며 향수를 갖기 위해 설계안의 건축
개념을 마당 깊은 집으로 설정하였다.

이 마당 깊은 집을 표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의 장치를 구성하였다.

첫째, 외부로부터 영역을 갖는 두 개의 벽
을 설치하고

둘째, 중심 마당을 설정하며

셋째, 이 마당을 에워싸는 건축물과

넷째, 그 안과 밖에 전시를 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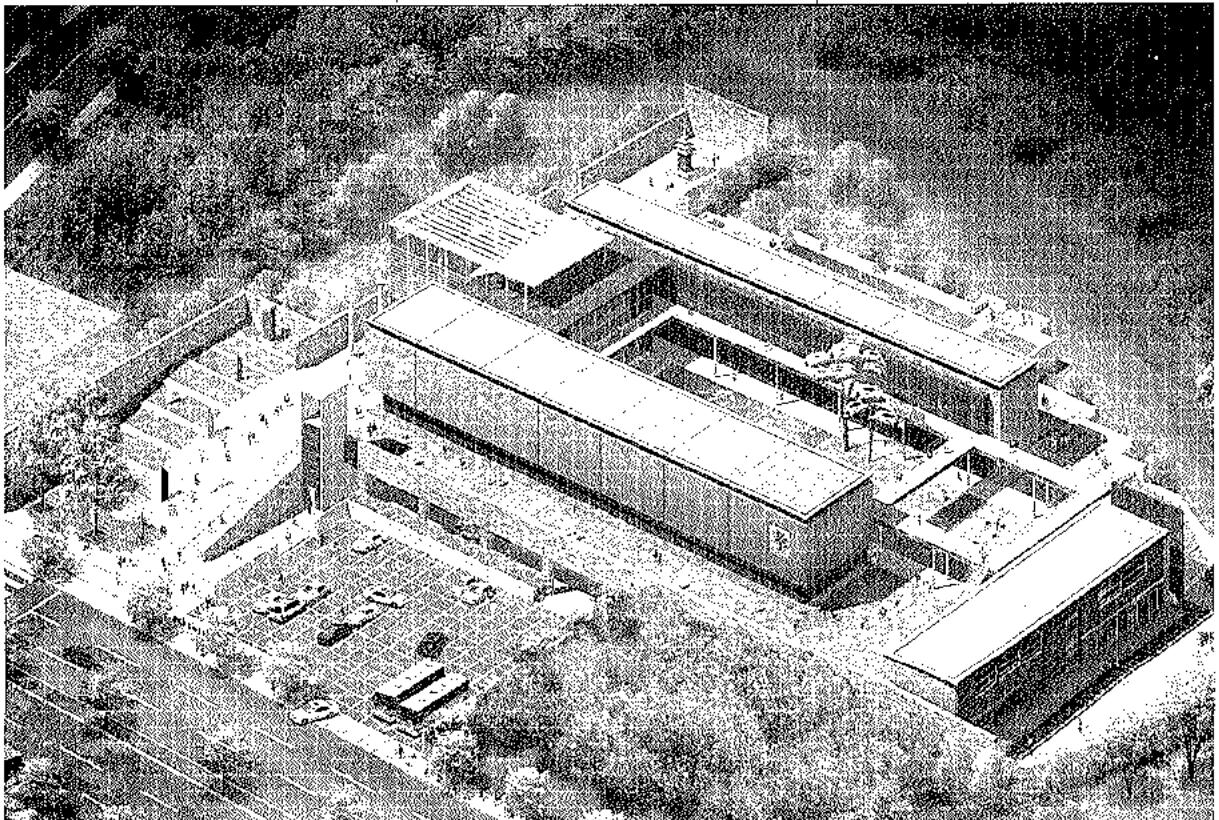
우선 박물관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하는 두
개의 긴 벽 즉, 담장은 35미터 도로로부터
발생하게 될 교통소음으로부터 차폐역할
을 하고, 인접하는 불량경관으로부터의 시
각적 차단과 대지 내 관람자에게 시각적으
로 박물관의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관람분
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또
한 대지내부에서 보면 야외전시장의 전시
벽면 역할을 하게된다. 즉 이 담장은 대지
전체가 박물관으로 쓰이게 하기 위한 건축
적 장치이다.

대지 중앙의 마당은 호 박물관의 정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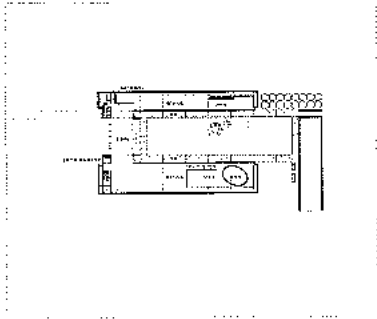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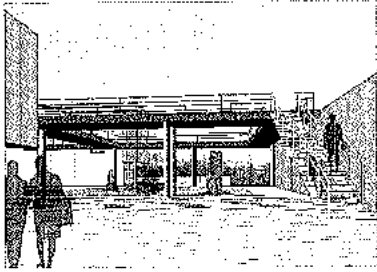
중심공간으로 설정하였다.

<ㄷ>자의 박물관과 이곳의 체험관에 의해
에워싸여진 마당은 전체대지의 중심공간
인 중정을 형성하게 되며, 이 마당의 장소
성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로 표현하는 것
으로 중정마당은 상시 비어있는 박물관으
로 우리 들에 의해서 채워지곤 한다. 즉 발
표화가 열린다던가 마당극, 창극 등이 주기
적으로 열리는 행사공간이며 때론 인근지
역주민을 위한 배려공간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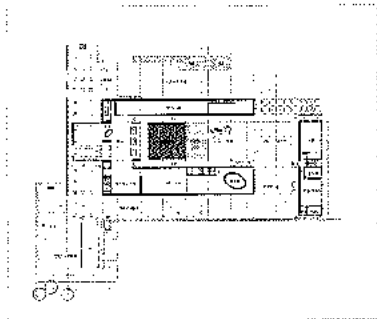
전체적인 동선은 도로레벨이 본 건물의 지
하층 레벨에 해당되며, 주차장을 도로레벨
에 설치하는 것은 박물관 고유의 영역을
혼잡함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이
다. 이곳에 설치한 수장고와 유물관리실은
차량진입이 용이하며, 본 건물과는 엘리베
이터로 연결되도록 하였고, 또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일
반관광객은 진입광장을 통하여 접근하게
되며, 진입광장은 아주 완만한 계단 또는
램프를 설치하여, 호에 관련된 기록이 실
린 조형물들과 조경공간을 거치며 접근하
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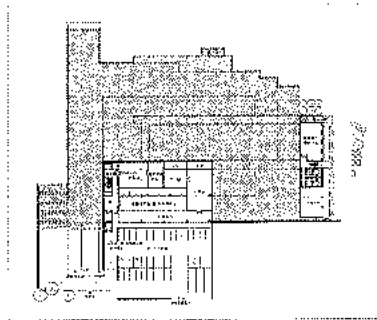
홀은 중정을 바라보도록 계획하였고, 관람 동선은 1층 좌측 통로로부터 시작하여 상·하층이 오픈된 이곳을 통해 2층으로 진입하며, 계속되는 동선은 우측 통로의 2층을 거쳐 다시 상·하층이 오픈된 대공간, 그리고 영상실과 1층의 마지막 전시실을 관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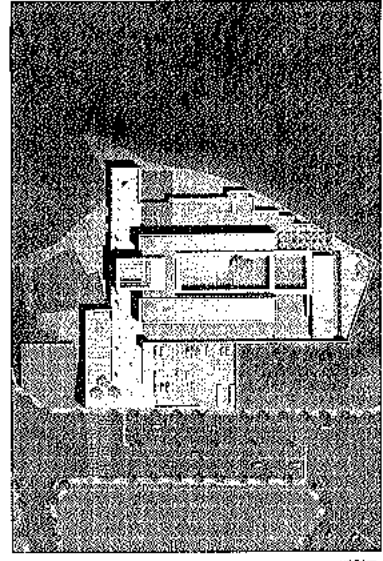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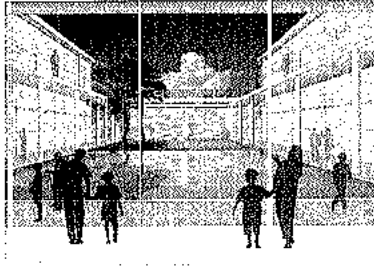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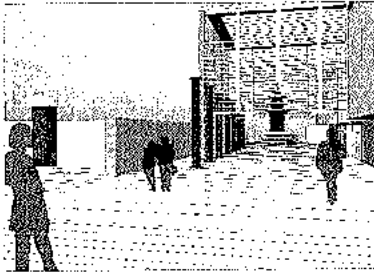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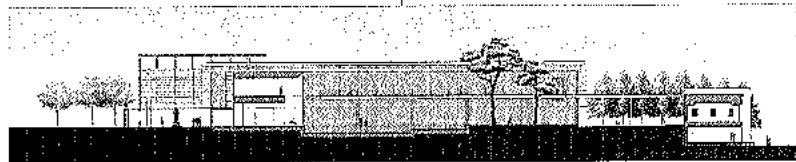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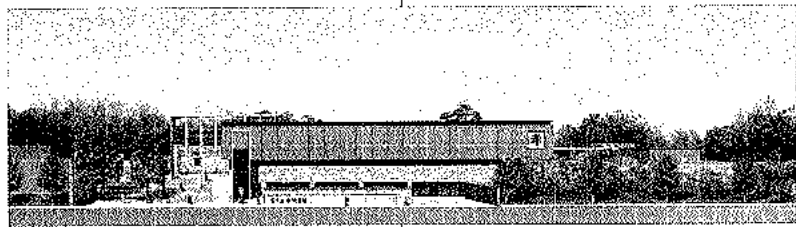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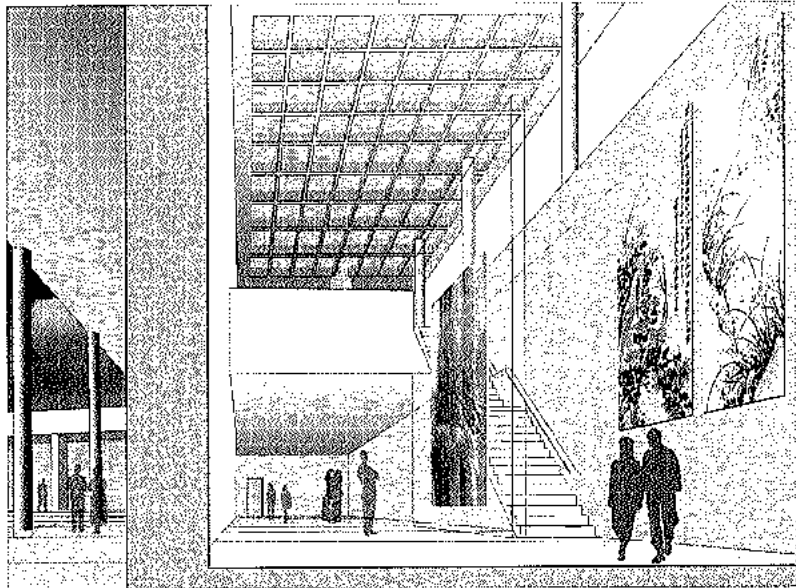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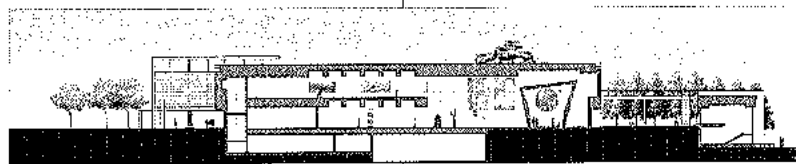
지하 평면도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허준기념관 및 한의학연구소

Heo Jun Memorial & Oriental Medical Laboratory

▶ 당선작 / 김용승(한양대학교 건축학부) + (주)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5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허준기념관 - 3,075.00㎡ 한의학연구소 - 4,000.00㎡
건축면적	허준기념관 - 1,682.29㎡ 한의학연구소 - 1,536.64㎡
연면적	허준기념관 - 3,017.27㎡ 한의학연구소 - 9,091.73㎡
건폐율	허준기념관 - 54.71% 한의학연구소 - 38.42%

용적률	허준기념관 - 98.12% 한의학연구소 - 149.81%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규모	허준기념관 - 지상 3층 한의학연구소 - 지하 2층, 지상 5층
주차대수	허준기념관 - 29대 한의학연구소 - 41대
외부미감	허준기념관 - 컬러복층유리, 화강석 한의학연구소 - 알루미늄 골강판,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김병욱, 민지승, 김영미, 황창석, 이정우, 김태형, 이규환, 김홍안, 김대현, 이수경, 이익주, 배선구 전시설계 - (주)삼덕공사

기본계획방향

허준 기념관과 한의학 연구소가 들어갈 부지는 가양동의 명소인 구암 공원과 더불어 허준의 업적과 의미를 기리는 한의학의 성지, 메카의 역할과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화를 추구하는 한의학의 미

래에 대한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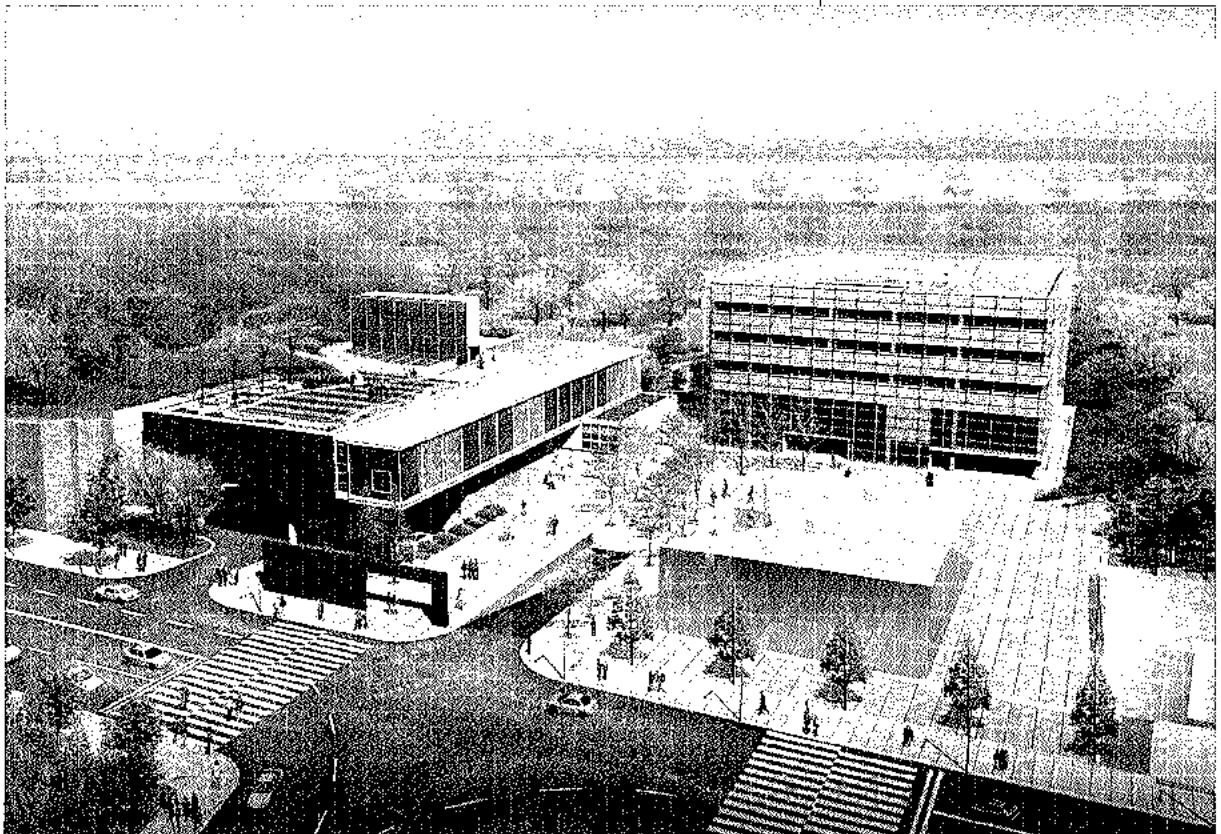
기본개념

〈한의학과 음양오행설〉

음양오행설은 한의학의 중요한 기초이론이다. 한의학의 자연관과 인체의 생리·병리에 대한 원리, 진단·치료·약물에 대한 이론은 모두가 이 음양오행으로 설명되어진다.

(1) 음양(陰陽)은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체계로서, 모든 본질은 하나이나 양면(兩面)으로 관찰하여 상대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을 표현하는 이원론적(二元論的)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이분적 틀이 아니며, 상대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사고 장치이며 개념적인 유비추론(analogical reasoning)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틀이다.

(2) 오행(五行)의 기본 개념은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원기, 즉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를 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주만물이 생성 소멸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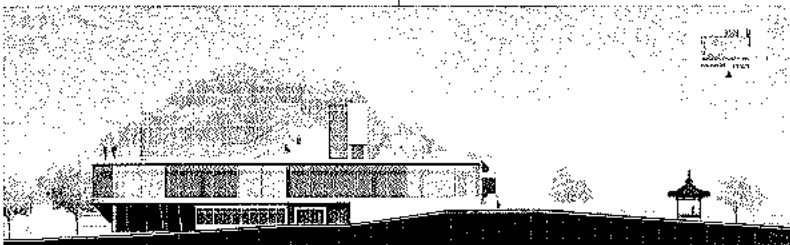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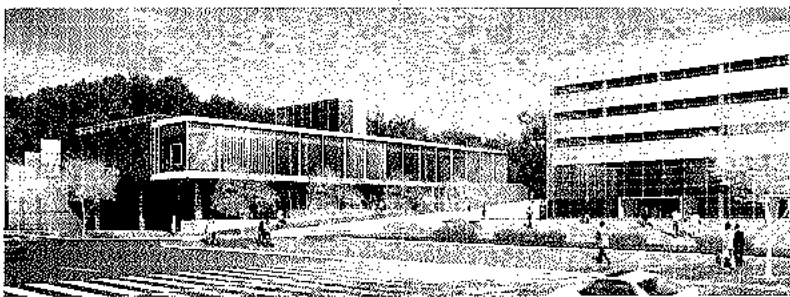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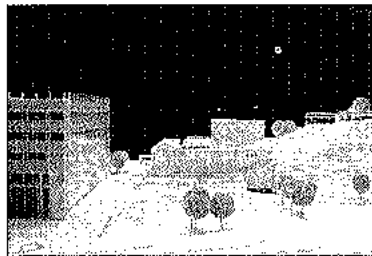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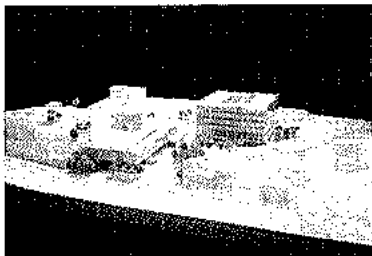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5가지 단계를 말한다.

계획의 개념은 이러한 한의학의 주요 개념인 상대적인 대응을 통한 음양의 조화를 주 골조로 하여 이러한 음과 양의 내적 복수성, 즉 양안에 음과 양이, 음안에 음과 양이 함축되는 음양의 교차적 중층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과 전체의 합일, 상충되는 것들의 조화와 균형 등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의미규정

약초공원과 허준 기념관, 한의학 연구소, 구암 공원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있어 각각의 의미를 약초라는 한의학의 원료(약초공원)들이 한의학의 큰 토대를 형성한 허준의 업적과 의성이라 칭송 받는 그의 성품에서 떠있는 묵직한 기단으로 형상화된 자연에 내재된 원석(허준 기념관)으로 환원되어, 이를 찬란히 빛을 발하는 보석으로 형상화하여 한의학 연구소가 현재의 한의학을 세계화하는 과정으로, 또한 공원과 대지는 이들을 감싸 안는 부드러운 자연으로 의미를 규정하였다.



동쪽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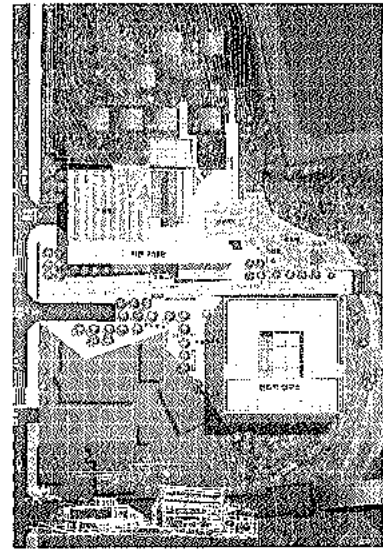
관계설정 : 대응을 통한 조화와 균형 창출

- 기념관과 연구소 건물은 각각 떠오른 기단과 같이 산자락에서 넓게 펼쳐지는 음의 형상과 빛을 발하는 솟아오른 수정체와 같은 볼륨의 양의 형상의 대응 통한 조화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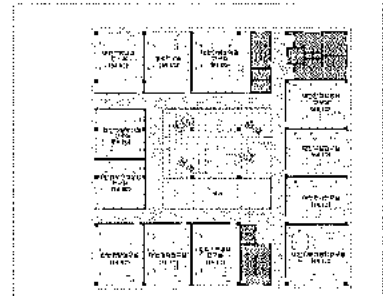
- 건물들 사이사이에 대응되는 오행공원의 자연과 오브제들은 순차적 대응을 통해 자연스러운 흐름 연계와 서로를 살리고 조화롭게 하는 상생의 의미를 상징한다.

오행의 운행에 따른 상생관계는 목생화(木生火)·화생토(火生土)·토생금(土生金)·금生水(金生水)·수생목(水生木)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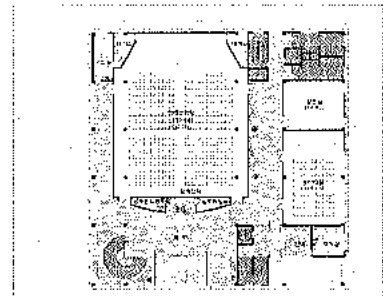
- 대지의 레벨 차를 이용한 경사로 진입을 이용하여 땅이 벽으로, 볼륨으로, 다시 땅으로 순환되는 장면들의 내적 반복성의 구성. 이는 진입부터 기념관, 약초공원, 연구소, 구암 공원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속되는 구성체계로 개별성의 의미를 드러내면서도 전체적으로 합일되는 조화를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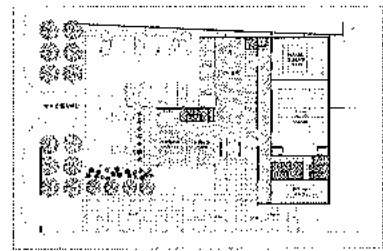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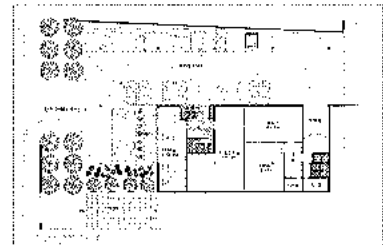
5층 평면도(한의학연구원)



1층 평면도(한의학연구소)



2층 평면도(허준기념관)



1층 평면도(약초기념관)

▶ 우수작 / (주)원도시건축 건축사 사무소(변용) + (주)한집디자인 (김희태)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기양동 26-5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허준기념관 - 3,166.00㎡ 한의학연구소 - 4,000.00㎡
건축면적	허준기념관 - 1,122.00㎡ 한의학연구소 - 1,776.40㎡
연면적	허준기념관 - 2,921.00㎡ 한의학연구소 - 9,240.00㎡
건폐율	허준기념관 - 35.46% 한의학연구소 - 44.41%
용적률	허준기념관 - 92.28% 한의학연구소 - 231.00%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규모	허준기념관 - 지하 1층, 지상 3층 한의학연구소 - 지하 2층, 지상 4층
주차대수	허준기념관 - 30대 한의학연구소 - 41대
외부미감	화강석, 티타늄아연판, 24mm 컬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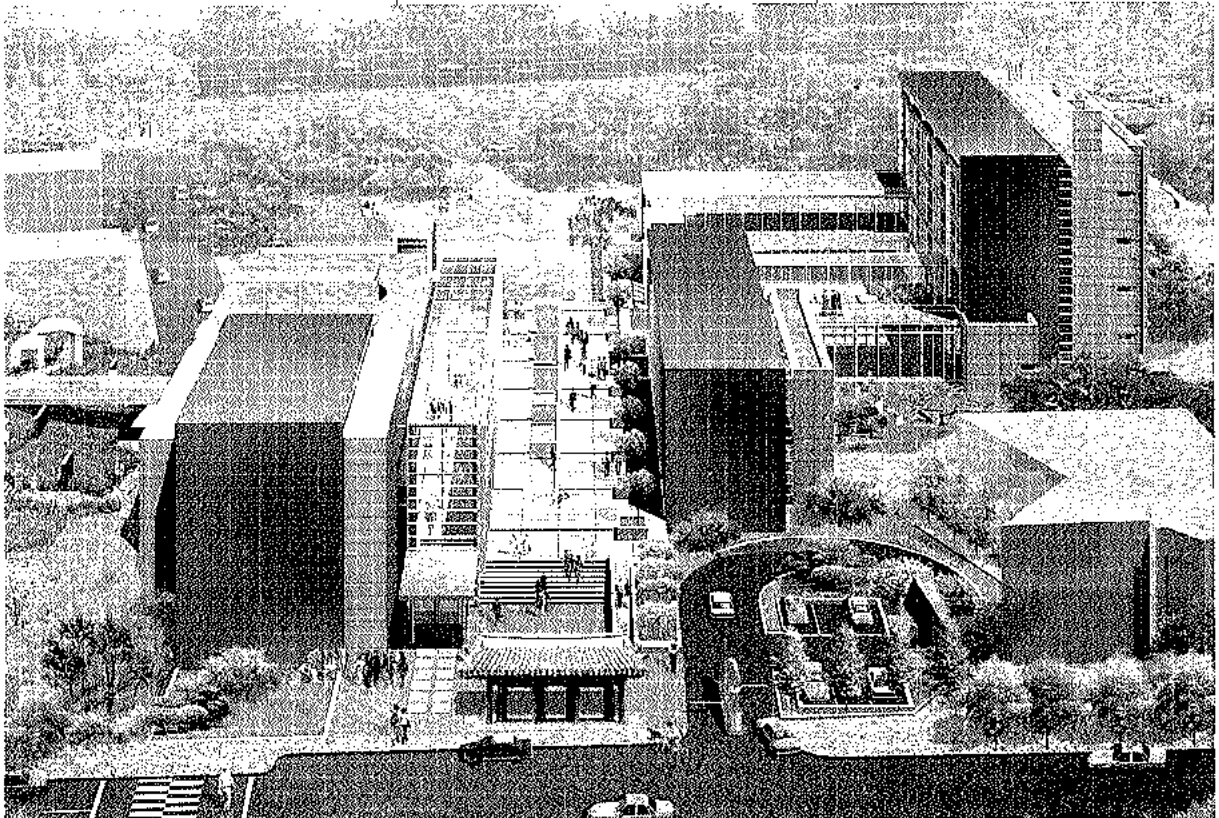
설계팀 원도시 : 김석주, 임동원, 김종수, 유은정, 이재오, 송상근, 최희섭, 심효섭, 김현수, 고대희
한집디자인 : 심효섭, 김현수, 고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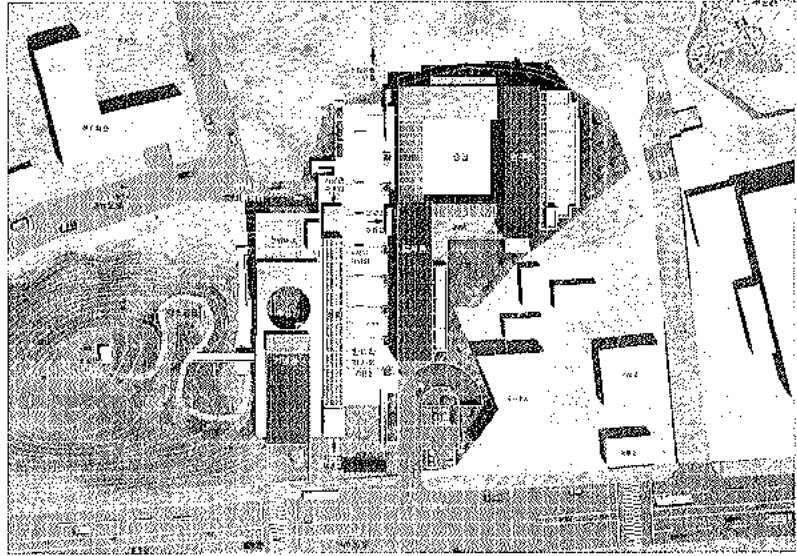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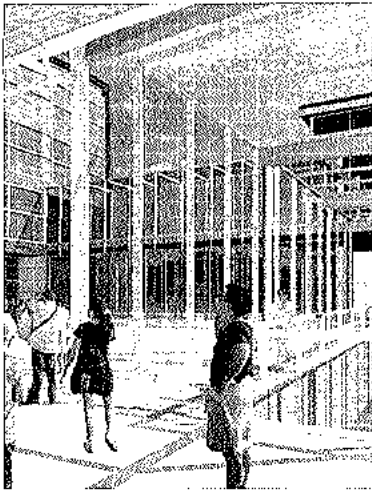
허준기념관과 한의학연구소는 현상적인 의료 행위와 가시적 가치가 만연한 지금 자연에 근간을 둔 우리 의학의 장을 조성하려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의보감>의 집필로 한의학의 체계를 성립한 허준 선생을 반추하게 될 허준기념관은 우리 의료에 대한 주체성을 성립하는 계기를 마련한 허준선생의 기록과 전통의 한의학 역사 사료를 보존 연구하는 곳이며, 한의학연구소는 지속적인 한의학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했다.

계획 대지는 역사적으로 <동의보감>의 집필지인 허가바위와 허준 동상을 세운 구암공원 옆에 위치하여 동양의학의 성지로서 의미를 가진다. 도시적으로는 북측 한강변에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아파

트 주거군이 밀집되어 자연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부에 25m 도로가 위치하고 5호선 발산역과 근접한 교통 여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와 탐산, 한강 등의 자연적 요소 등 다양한 인자를 가진 대지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이에 기본 계획은 켜의 나열을 통한 프로그램의 형상화, 순열된 켜의 중첩을 통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하여, 수평의 켜가 자연과 한의학을 통해 본 문화, 정보, 역사, 인간, 환경의 연결 장치가 되도록 했다. 한의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 할 수 있는 음양의 진리관을 통해 나열된 이 켜들은 상상과 상극의 호행 과정을 거쳐게 된다. 즉, 상응하는 공간이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음양의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며, 자연, 문화, 정보, 역사의 켜 사이로 시·공간의 흐름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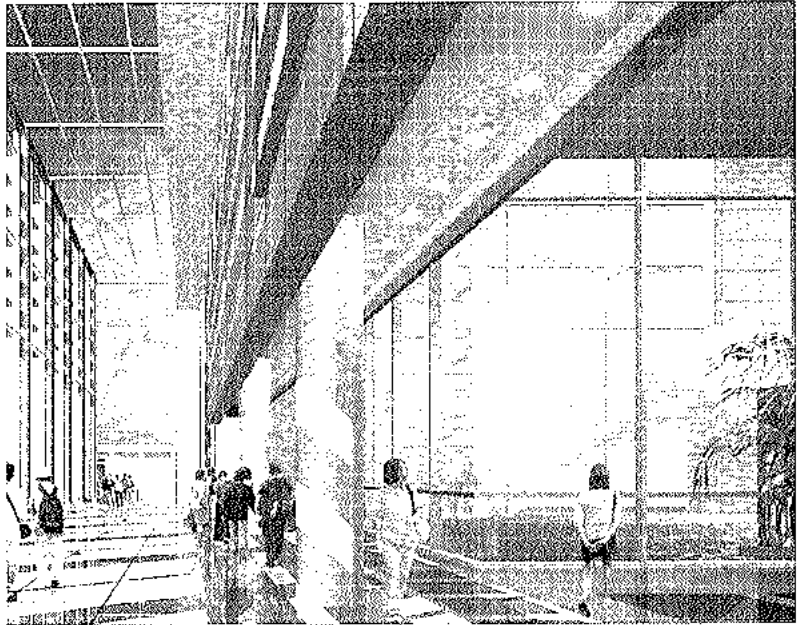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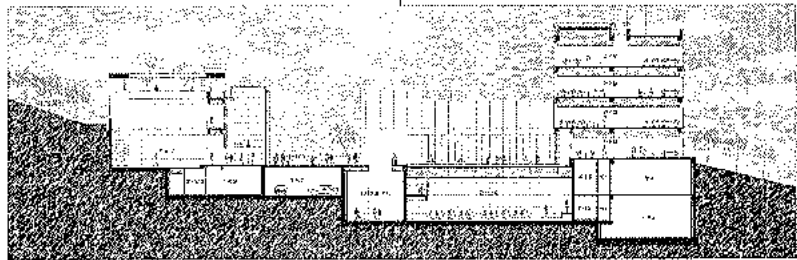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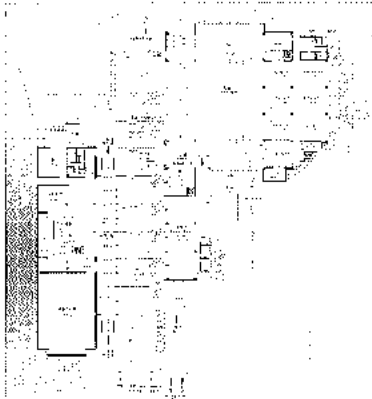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허준기 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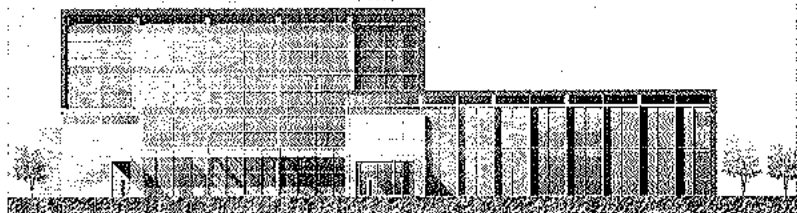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민희환 연구소)



표단면도



1층 평면도



상면도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Seodaemun Youth Training Center

▶ 당선작 / 정림건축(박승홍)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67-1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대지면적	6,257㎡
건축면적	1,520.64㎡
연면적	4,937.10㎡
건폐율	28.36%
용적률	58.7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26대
외부미감	압출성형시멘트판, 화강석 버너마감, 금속제지붕시스템
설계팀	김혁(총괄), 정관택(디자인 담당), 김기환, 이기형, 이정연, 임정택,

백수영, 박문학, 장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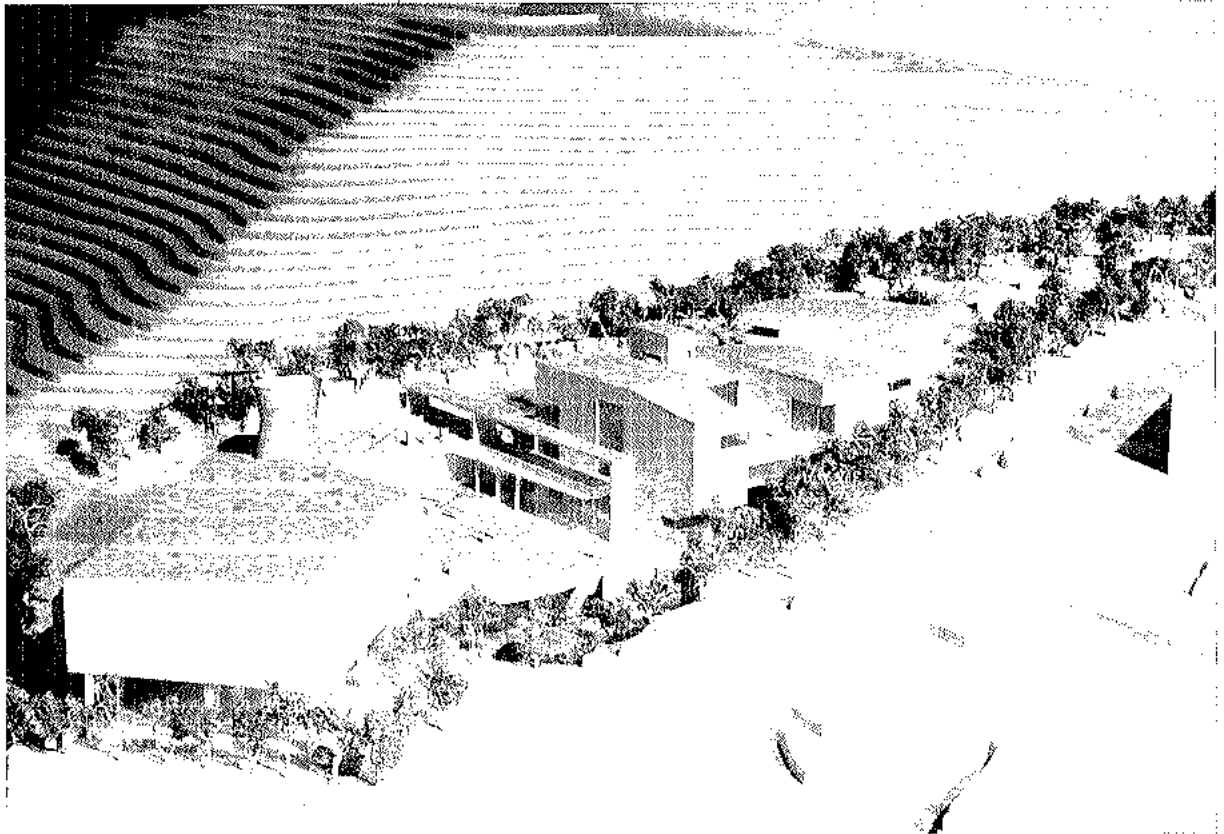
청소년문화는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다. 학습되는 것이고 통합되고 경험되는 조직의 산물이다. 또 한편으로는 전혀 새롭고 독립적인 영역을 지니는 하나의 문화이다. 새로운 세대는 그들 나름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형성하며 살아간다. 사회는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핵심적인 문화요소는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지만 세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새로운 문화요소가 형성되어 문화전반에 또 하나의 변화요소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는 한 사회의 생동적인 발전을 위한 자극인 동시에 활력소이다. 한가지로 정형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단편은 그들의 생활을 담은 그릇 역시, 한가지로 짊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대지를 읽음 - 자연
자연과 일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

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컨텍스트(context)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구조의 공통점을 찾는 데서 출발한다. 자연의 전체구조에서 부분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프랙탈(fractal) 이론은 인간의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자연현상의 모습을 유추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대지표면의 다양함은 수평선들과 수직선들을 근거로 하는 추출된 이미지들의 축적이다. 각 레이어(layer)에 구축된 선들에 의해 면들이 생성되고 이러한 면들은 대지주변의 상황을 근거로 한다.

공간의 흐름 - 여정

공간을 경험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다. 두 경로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시나리오와 같은 여정이다. 시계추의 움직임과 같이 정적이고 질서정연한 프레이즈(phrase)가 점진적으로 전개해간다. 진입마당에서 조각공원, 휴게정원, 야외공연장, 수련의 숲으로 이어지는 외부의 경로와 체육관, 소강당, 청소년수련관을 입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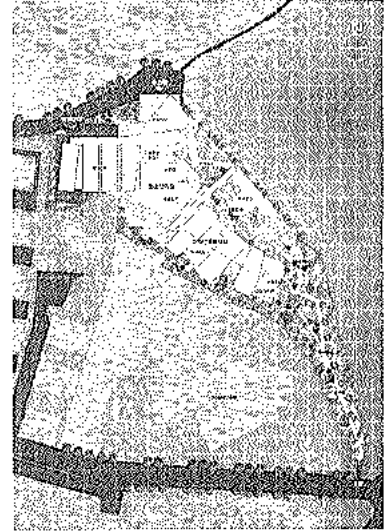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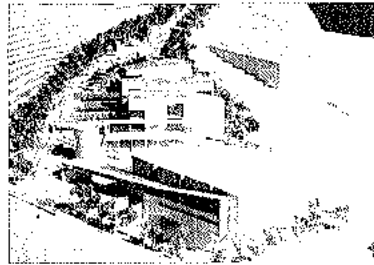
연결하는 내부의 경로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Yo! - 청소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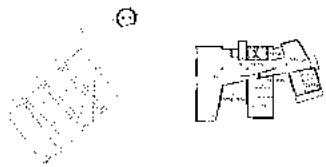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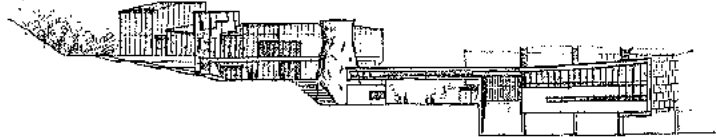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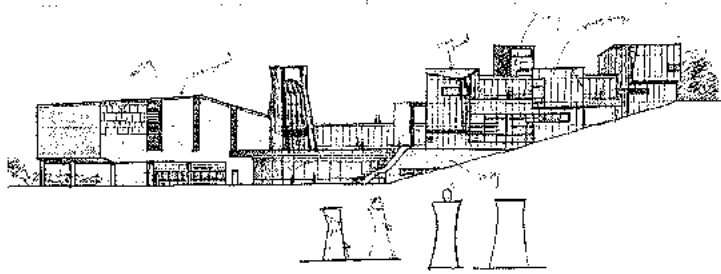
다양성과 자유, 새로움은 청소년문화의 상징이다. 그것은 개체발생과정 중 변이를 거친다. 체육관과 수련관이 서로 닮은 모습을 갖는 것은 이들이 서로 근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불완전한 변태 (metaphosis)라는 과정을 통하여 항상 과정의 상태로 남아 있다. 미완의 모습은 미래의 가능성이다.

Inner to... -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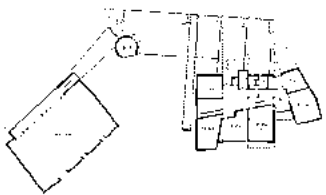
유추된 자연지형을 엮듯 가로지르는 선형의 중심축은 생활의 중심동선이다. 내부와 외부공간은 입체적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전이적 성격을 갖는다. 프로그램들은 각각 외부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방은 자기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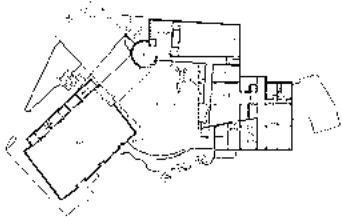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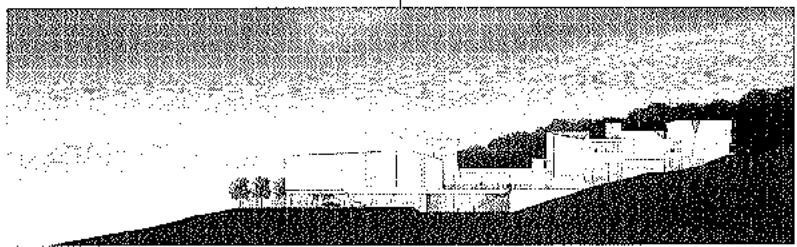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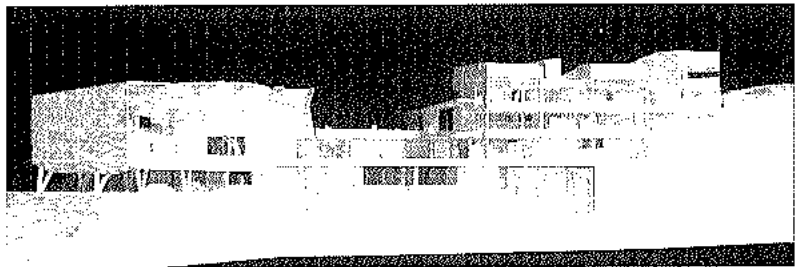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남측면도



동남면도

▶ 우수작 / (주)토우종합건축사
사무소(박형배) + 워드종합
건축사사무소(서상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대지면적	6,257.0㎡
연면적	5,115.97㎡
건폐율	29.56%
용적률	62.72%
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설계팀	이동창, 김석열, 배현섭, 김주형, 임상진, 배금아, 최창규, 조은경, 엄영섭

계획의 목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여가활동의 전당을 마련 전인교육의 배경과 사외의 구성원의 교육활동 장소를 제공

계획의 개념

- 자연환경에 순응
 - 기존 등산로유지→안산과의 조화
 - 기존의 지형특성을 최대한 고려→임목 등 자연훼손 최소화
 - 자연 속에 묻혀 있는 건축물→자연-인간-건축의 대화
- 위계
 - 부지의 경사 등 주변 환경을 중심축 설정
 - 축에 의한 공간구성을 통해 부지전체 또한 인산에 이르는 위계 형성
 - 인근 주거 군에서 인지 되는 거대 mass 의 부담감을 최소화

대지현황분석

- 입지조건
 - 계획대지는 서대문구의 중심부 위치
 - 주변 남쪽, 서쪽으로 기존 주거군 형성
 - 북쪽의 안산과 산책로 연계

• 주변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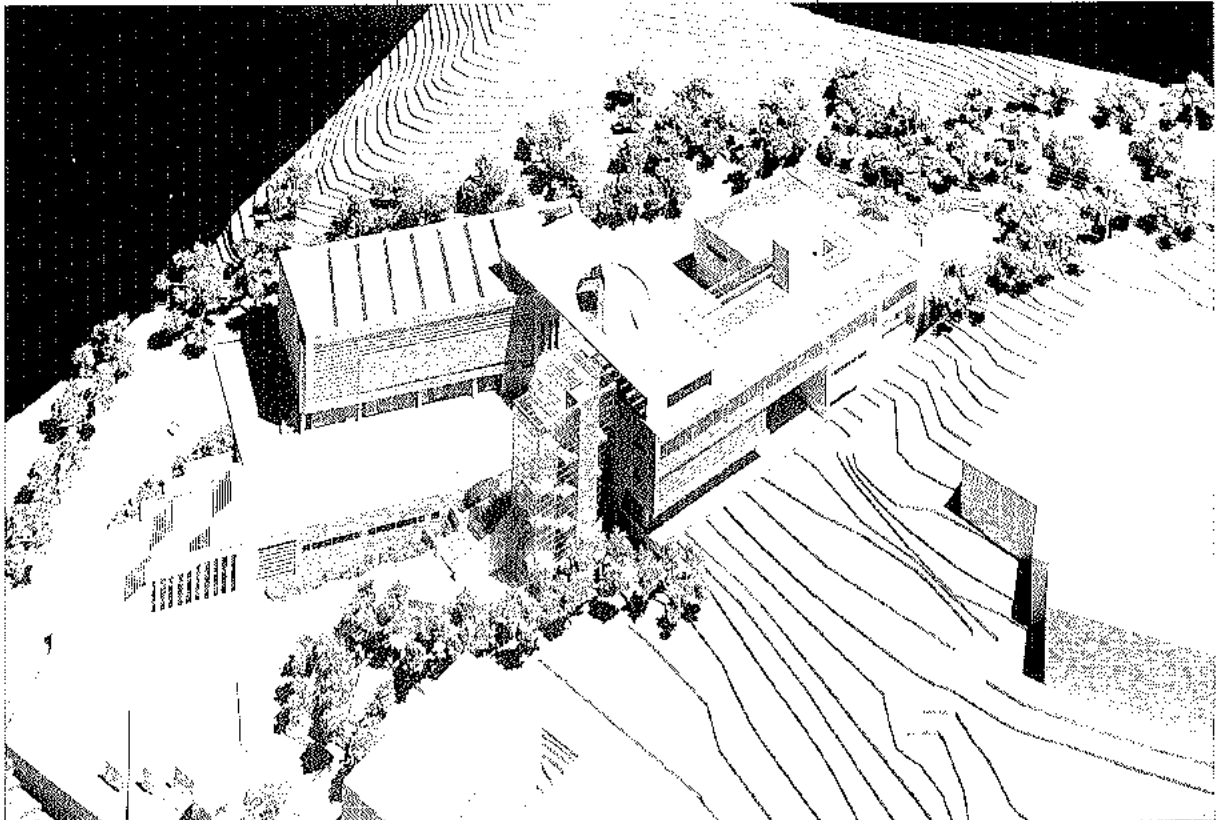
- 안산 하단부에 위치하여 수림 우거져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어지는 구릉지 하단부 위치

• 현황분석

- 삼각형모양의 동에서 서로 흐르는 경사지
- 전체: 최저점(동측)- 최고점(서측) 19m
- 동측의 공개공지부분으로 공원조성
- 경사지에 의해 남측 시야 차단
- 북서쪽으로 열린조망

•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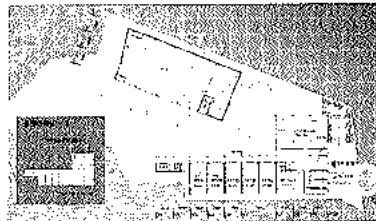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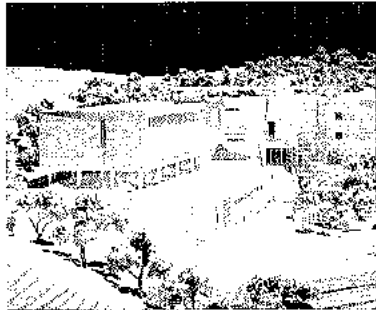
연구원의 기능에 따라 층별로 유관부서를 배치하여 기능과 구획을 명확히 하였다. 채광과 환기를 통한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중정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동시에 10여 개의 부서 배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향감 상실과 동선의 교차를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중정을 중심으로 4개 면을 확보하여 Zone을 구분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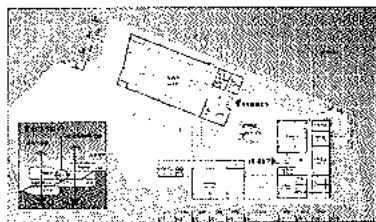
타 영역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두 개의 출입구를 두었다. 연구와 실험업무는 미래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대응하므로 수평중축을 고려하여 증축방향의 단부를 복도로 처리하였고, 내부벽체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입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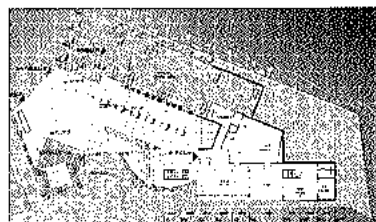
연구원 후면의 주거지는 경사지로서, 기존 지형의 고저차를 최대한 이용하여 SKY LINE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공공청사의 상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전면을 유리로 처리하여 실내의 일부를 노출하였고, 야간 실내조명의 확산에 의한 상징미를 극대화하였다. 전면의 열주는 관문으로써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부속건물을 포용하는 질서와 조화를 상징한다.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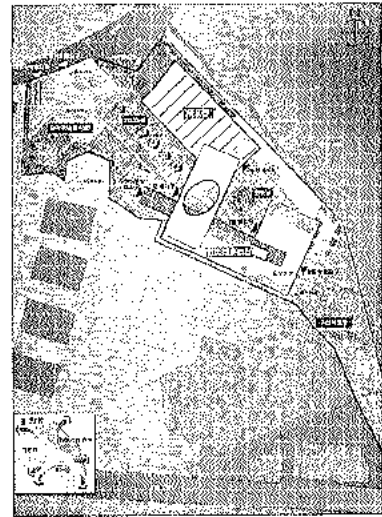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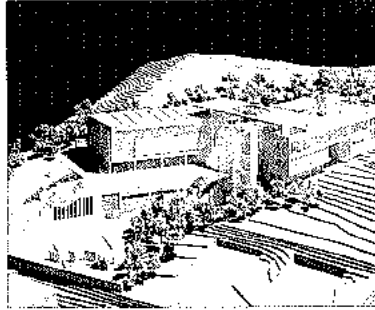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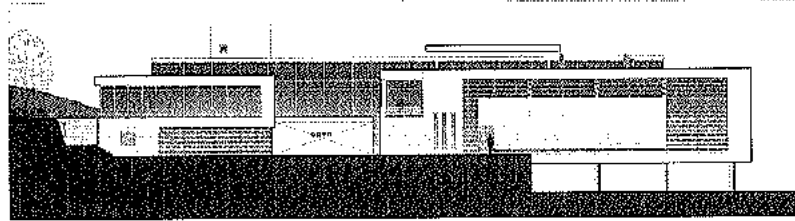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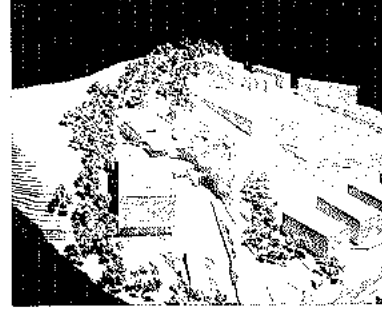
외부마감재는 첨단건축 이미지를 갖도록 알루미늄과 유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형태를 고려하였으며, 자연친화적 재료와 친근한 색상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움을 유도하였다.

• 단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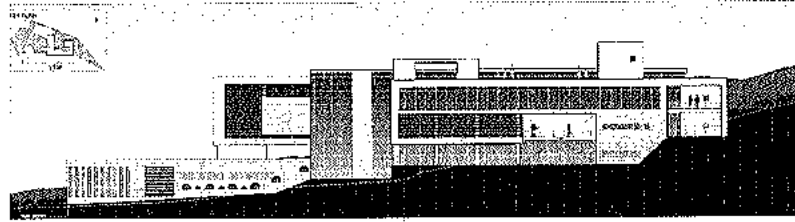
실내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상층의 슬라브를 오픈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부서별로 관련실을 하나의 유닛으로 구성함으로써 수직·수평이동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고려하였다. 기능상 수직적 위계와 조화로 안정감을 확보하였으며 방향감과 활기를 도모하도록 층간 공간적·시각적으로 연계가 되는 단면형태를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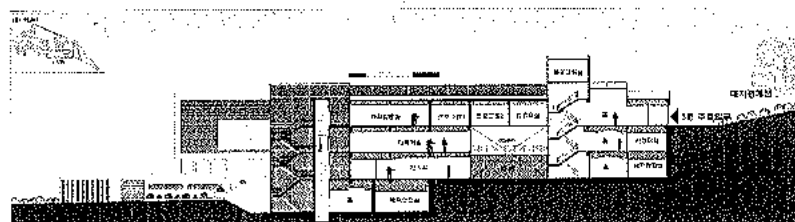
배치도



4층 단면도



전면도



5층 단면도

울산 진장중학교

Ulsan Jinjang Middle School

▶ 당선작 / (주)심·이건축사사무소 (심재익·이병혜)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49B 2N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3,500 m ²
건축면적	3,476.49 m ²
연면적	9,225.80 m ²
건폐율	25.75 %
용적률	64.85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33대 (장애인 2대 포함)
외부 마감	외벽 마감 - THK 3.0 A.I 복합 패널, 탄성 아크릴계 뽕칠, 점토

벽돌 치장생기

유 리 - THK 18 컬러 복층유리

설계팀 서동욱, 전재희, 이덕영, 이정훈
박현구(C.G)

마음먹은 대로 / 뜻대로 다 안래는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아
그러면서도 또 꿈꾸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
그것 또한 인생인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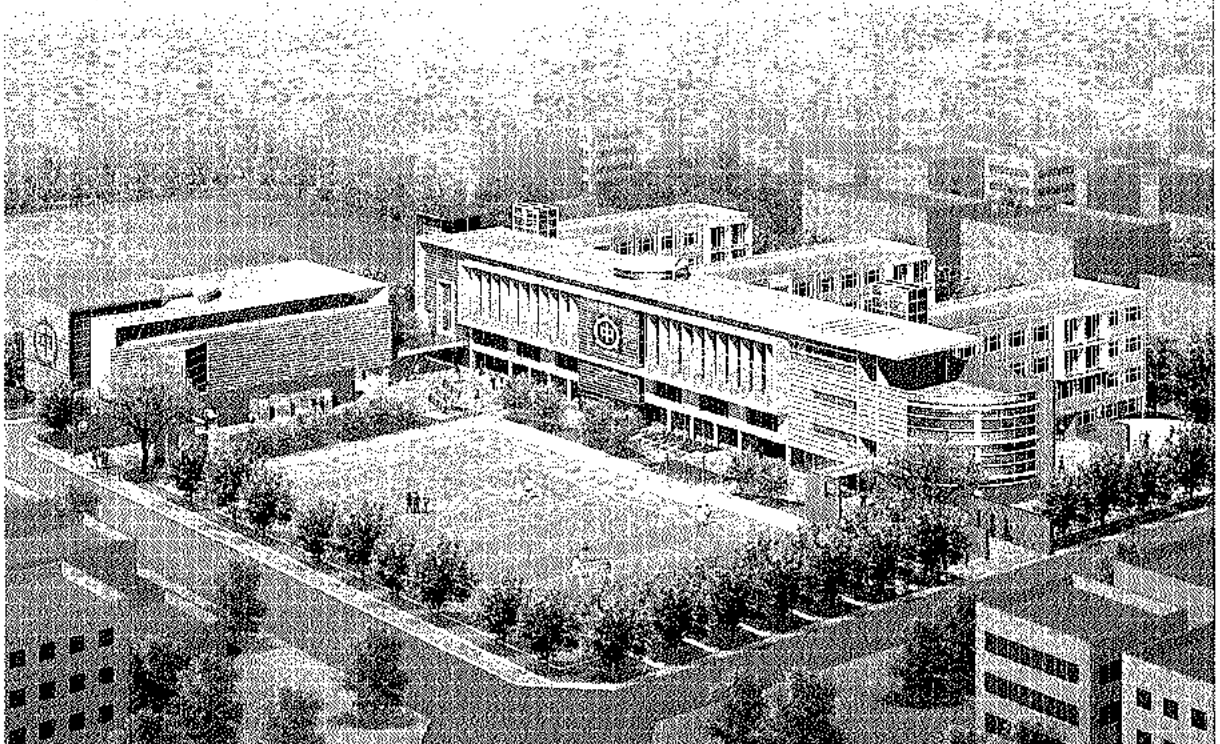
가려있었다 / 숨구치는
그랑블루 처럼

의미 잃은 잠수보다는
한걸음 / 한걸음
앞으로 나갈 것
심지를 제대로 세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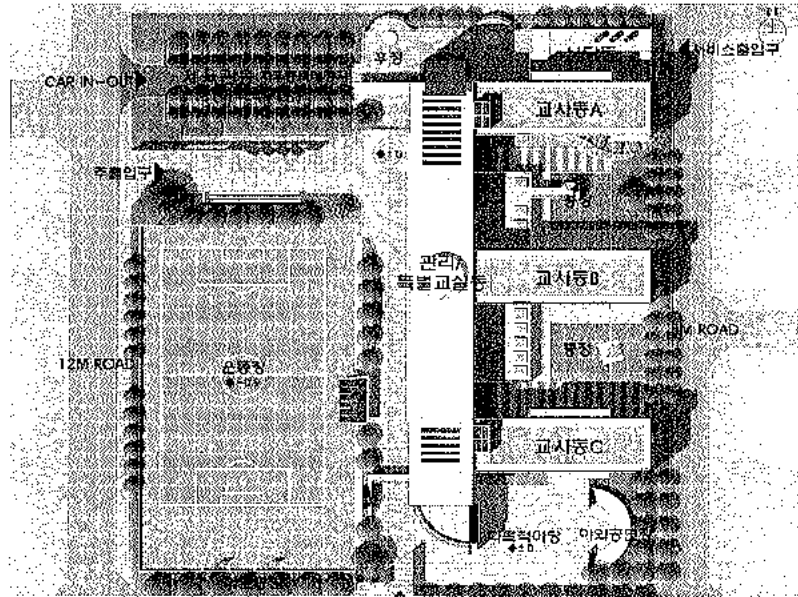
평면계획

- 교시동
- 일반교실의 남향배치로 충분한 일조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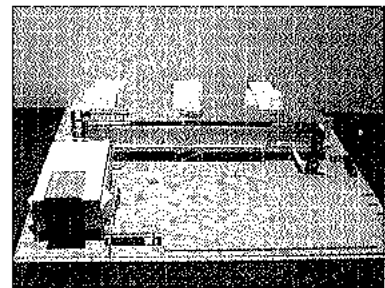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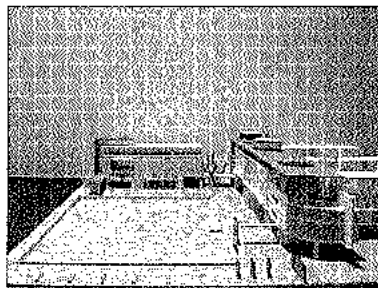
- 일반교실의 분산배치로 동선의 혼재 방지
- 열린교육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학년 별 그룹별 Zoning
- 각 동선의 결절점에 휴베이스를 설치하여 거점공간으로 이용
- 관리 / 특별교실형
 - 건물의 중심부에 배치하여 관리/이용의 효율성 증대
 - 홀을 미디어/디지털 갤러리로 이용하여 학생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 충족
 - 특별교실의 유기적 구성을 통한 동선 체계의 편리성과 다목적성 추구
 - 피로티 공간의 사용성격을 다양화 (우천시 학습 공간 / 전시, 이벤트 공간)
- 서비스동(식당)
 - 중정/후정을 공유하여 쾌적한 분위기 연출
 - 별도의 서비스 차량동선을 형성시켜 동선을 형성시켜 동선의 혼선방지
- 하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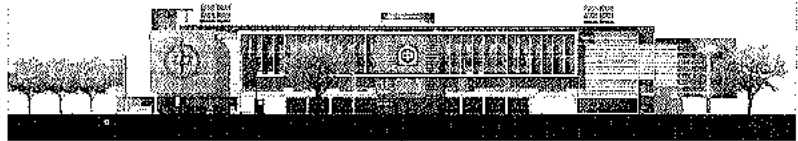
- 하늘정원의 마당은 시각적/심리적인 Ground Level의 연장선으로 프라이엄 스페이스
- 옥상층의 잔디지붕은 시각적 Ground Level의 연장선으로 환경친화적 계획
- 열린마당(Open space)
 - 물리적 성격 : 개방된 빈공간
 - 기능적 성격 : 접근의 용이함
 - 장소성 / 소유성 / ACTIVITY
- 미디어 갤러리(Media Gallery)
 - 디지털 갤러리
 - 학교 인포메이션의 시작장소
 - 학교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장소
 - 진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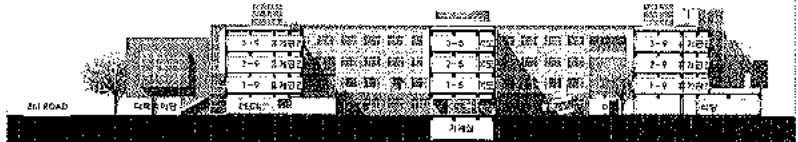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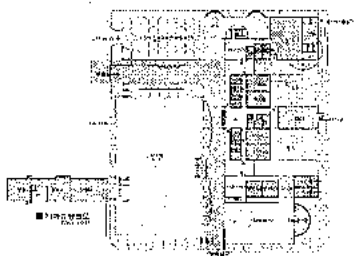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송년면도



우측면도



1층 평면도



배면도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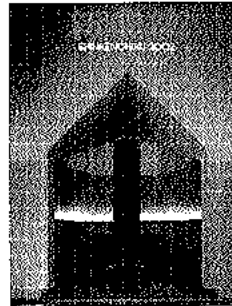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e

신건축

2002년 4월

이번 호의 특
집은 최근 晩
婚化, 少子化,
高齢化등으로
다양해진 가
족형의 출현
으로 말미암
아 생긴 새로



운 주호형의 요구에 대응한 사례들을 소개한 '도심 주거의 배리에이션 (variation)'이다. SOHO형, 동거형 등 색다른 주호평면들의 실현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기사로 다루어진 빛과 공간디자인의 가능성에서는 새롭게 소재로서 부각되는 빛에 대한 흥미로운 화두와 함께 이에 대한 건축가와 평론가의 대담내용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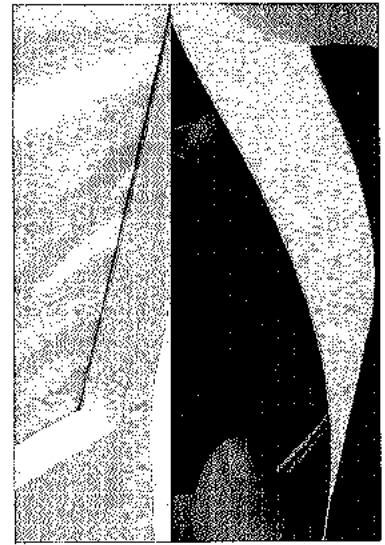
■ 기사: 빛과 공간디자인의 가능성

빛의 소재화(素材化)에 대한 논의는 작년 9월호 신건축지의 특집(제목: 素材가 된 빛)에서도 다루어져 이 테마에 대한 신건축지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이번에는 이 테마를 놓고 건축가 및 평론가 4인의 좌담회 내용을 기사화해 실고 있는데, 본 기사보다는 그 서두에 올려진 다음과 같은 편집자의 글은 최근 빛의 소재화에 대한 관심의 근원을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내주고 있다.

▶ 빛이라는 素材의 가능성

화가는 낮의 하늘을 검은 색으로 칠하는 것이 가능하다...(중략)...그러나 건축에서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다(한계가 있다). 이것은 자연광을 유일하게 진정한 빛으로서 사랑한 루이스 칸의 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화가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움직일 수 있다면, 건축의 가능성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현재 우리들의 주변에는 새로운 빛의 소



LCD나 자유자재로 변형가능한 얇은 막 형태의 EL라이트

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고휘도를 갖는 LED의 출현은 말할 것도 없이, LCD나 자유자재로 변형가능한 얇은 막 형태의 EL라이트 등이 그것이다. 아마도 지금의 21세기는 이러한 새로운 빛의 출현을 배경으로 하는 빛의 세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거의 1세기 전, 파리 만국박람회의 電飾의 제전이 지상의 은하수인 뉴욕 마천루의 출현을 시작으로 하는 電飾도시의 출현을 예언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새로운 빛의 재료들의 출현은 금세기 빛의 의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의 예고인지도 모른다.

이 커다란 변화의 하나는 빛과 물체 사이의 경계선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들은 차차 물질과 광원을 보다 동등하게 하나의 평면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금 탄생하고 있는 광원은 매우 작거나, 때로는 도로처럼 물질전체에 이음매 없이 덮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질과 동화된 빛은 도시 속에 확산되어 금기야 '조명하기/조명 받기'라는 주종관계는 유명무실해지고, 보다 평면적인(혹은 일체화된) 존재로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변화의 벡터는 물체를 비추는 빛이라는 존재로부터 '정보로서의 빛'으로의 이행이다. 예를 들어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나 휴대전화의 디스플레이, 건물 전체를 덮는 LED스크린 등에서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빛은 물체를 조명하는 존재로부터 정보 그 자체로서의 존재에 대해 더 힘을 싣고 있다. 정보화 속에서 빛을 매개로 하는 정보는 보다 리얼리티를 증가시켜, 빛은 정보세계에 있어서 '제2의 신체'이며 '제 2의 피부'가 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빛은 우리들과 도시, 우리들과 건축 사이에 존재하는 제 2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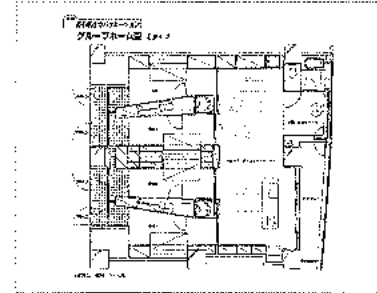
만약 자연 소재만이 건축의 재료라 한다면 우리는 오직 자연의 빛만이 빛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빛을 소재로 받아들여 새로운 빛에 대한 논리를 가지면서 그에 뒤따르는 표현을 향한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실, 현재는 분명히 이러한 빛의 세계'의 입구에 다라 있는 것이다.

■ 특집: 도심주거의 배리에이션 (variation)

일본에서는 최근 도심 집합주거의 다양화가 폭넓게, 그리고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晩婚化, 少子化, 高齢化라는 가족구성이나 사회구조의 변화는 표준세대라는 개념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nLDK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생활 스타일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기반정비공단의 東郷이나 汐

溜에서의 프로젝트에는 SOHO나 '그룹홈'을 위한 주호가 제안되었다. 또한 조망, 채광, 통풍 등 接外氣性を 높인 하이 터치'형 주동형태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한 집합주거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제껏 우리가 보아오지 못한 주호 평면의 디자인들이 많이 소개되고있는 점은 매우 흥미로우며, 단지 개념적인 작업이 아니라 완공된 사례들이라는 점도 놀라운 점이다.

일본의 '都市基盤整備公團'은 우리나라의 대한주택공사와 같이 주택고급을 위해 설립된 공영기업이나, 양적인 공급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문화의 선도에 노력하고 있다. 東郷A·B지구주택 프로젝트나 汐溜인필프로젝트는 이러한 공단의 활동내용을 잘 보여준다. 東郷A 지구에서는 사무실과 주택을 겸하는 SOHO용 주호와 한 주호안에 가족이 아닌 여러 개인들을 거주시킬 수 있는 '셰어링타입(동거형)'의 주호를 선보였다. B지구에서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널찍한 테라스를 사이에 두고 주된 주호와 어넥스(annex)가 배치된 주호와 SOHO형 주호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주호타입이 메조넷 형식으로 이루어진 예가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汐溜인필프로젝트에서는 전망이 좋은 건물의 전면부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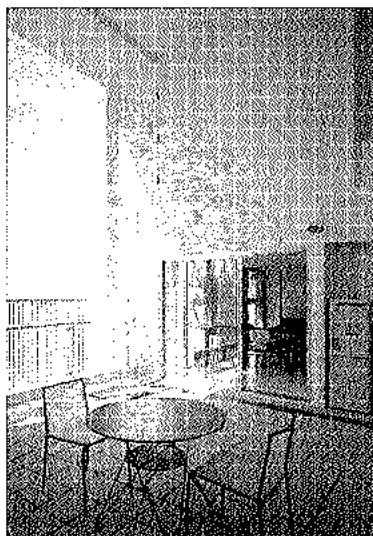
욕실과 LDK를 공유하는 그룹홈형

유하기 위해 주호를 길게 만들고 메조넷 형식으로 만들어 전면부를 각기 다른 층에서 더 많이 점유하는 형식의 주호(일명 '조망의 욕망형')과, 거실과 홈, 침실의 벽에 여닫이문처럼 힌지를 달아 만든 가변형 플랜, 프로젝트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구조체와 간격이 벽이 분리됨(Skeleton-Infill 방식)에 따라 가능한 다양한 주호형상으로 된 '알코브형', 그리고 여러 명이 개인 침실을 가지면서 욕실과 LDK를 공유하는 '그룹홈형' 등 다양한 주호가 꾸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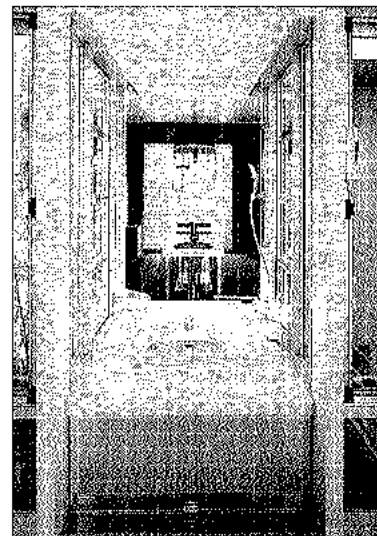
이 밖에도 좁고 긴 주호의 중앙에 욕실(특히 욕조)을 배치하고 모든 불박이 가구를 중심축을 따라 배치한 리네아, 배치계획에서 건물을 관통하는 골목길을 계획한 'PASSAGGIO', 다양한 모양의 테라스 디자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해주는 유리 커튼월이 장착된 '神宮前시티타워' 등이 소개되어 최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집합주택 계획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東郷A지구에서는 사무실과 주택을 겸하는 SOHO를 수표



어넥스(annex)가 배치된 주호



모든 불박이 가구를 중심축을 따라 배치한 리네아

신건축

2002년 5월

이번 호에서는 최근 달라지고 있는 집합주택의 수요-공급구조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중요시될 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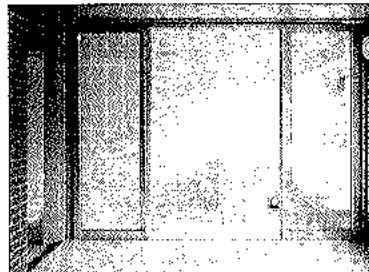
주택에서의 테마를 공급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특징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도시 집합주택의 변화는 신건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분양, 민간임대, 공영주택 등으로 나누어 실제 사례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 있다.

■ 특장: 집합주택/ 그 공급형식과 디자인의 在處

일본 도시의 모습은 지금 커다란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종래의 법적 제약을 넘어 도시개발을 촉진하려 하고 있고, 간호보험제도는 고령자의 재택화를 촉진시켜가며 복지부문에 비즈니스를 들여왔다. 한편 都市基盤整備公團과 住宅金融公庫는 폐지·민영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까지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온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일본과 비슷한 궤적을 그려온 우리로서는 이러한 일본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들에 관심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일본에서 집합주택은 일찍부터 民官이 공동으로 공급주체로서 공존해왔던 발당타입이었다. 민간의 분양주택, 민간의 임대주택, 공영의 집합주택 등이 공존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의해 집합주택의 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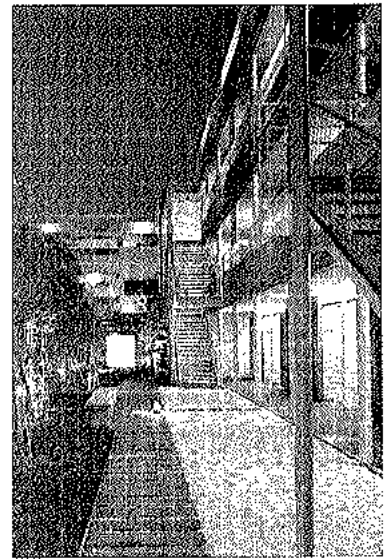
인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이제까지 건축가의 적극적인 협동작업이 이미 했던 분양집합주택의 공급지가 최근에는 건축가의 능력에 보다 많이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민간의 임대주택에서 건축가는 이미 '브랜드'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것이 테마가 될 것인가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한편 공공의 집합주택에 있어서도 무엇이 디자인의 주된 테마가 될 것인가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공급주체별로 디자인 테마의 각기 다른 방향성을 살펴보고 또 어떤 점이 집합주택으로서 공유되는 테마인지도 살펴보려는 것이 이번 특집의 내용이다. 소개된 작품은 민간분양 1사례, 민간임대 3사례, 공영공급 3사례, 주거단지내 공공시설 1사례이다.

▶ 토시마에 맨션 (모리야마 요시유키/건축설계사무소 Baqueratta)은 독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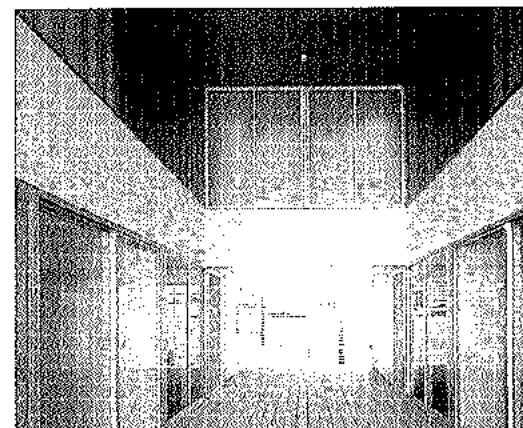
토시마에 맨션 모리야마 요시유키/건축설계사무소 Baqueratta

형 주호 15개와 오너의 주호 1개로 이루어진 집합주택이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주호와 주호 사이에 3평 정도의 외부공간이 마련되어있다는 점. 발코니가 주호의 전면부가 아니라 측면에 붙어 앞뒤로 관통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주호의 중앙에 욕실이 섬처럼 배치되고, 1개의 침실과 주방겸 식당은 이 발코니로부터 진입이 가능하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찾는, 그리고 값싼 임대주택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된 이 주택의 실제거주자들도 대부분 독신의 2·30대 들이다. 櫻新町の 집합주택 (오카베 노리아키 아키텍처 네트워크)은 도로면에 건물을 밀착시키고 그 안쪽에 정원을 만들어 입주자들만을 위한 아



櫻新町の 집합주택 (오카베 노리아키 아키텍처 네트워크)

늑한 공동 정원을 제공하였다. F+協和스퀘어 (이토오 히로유키 + O.F.D.A)는 SOHO형 집합주택으로, 주호를 메조넷형식으로 만든 후, 사무실공간은 한 층에 모이도록 설계하였다. 이처럼 사무실들이 모인 층에는 공용홀을 마련하고, 각 주호의 거주부분은 사무실층의 아래 위층에 위치하게되는 구성을 갖게 한 것이다. SOHO형 집합주택이 풀어야 하는 업무공간의 효율화와 주거부분의 프라이버시 확보 문제에 대한 해답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번역/강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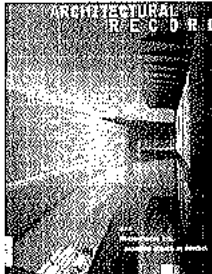


F+協和스퀘어 이토오 히로유키 + O.F.D.A

Architectural Record

2002년 4월호

지난해의 우수 주택 작품을 선정하는 Record Houses 특집호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유명 건축 작품들을 소개하는 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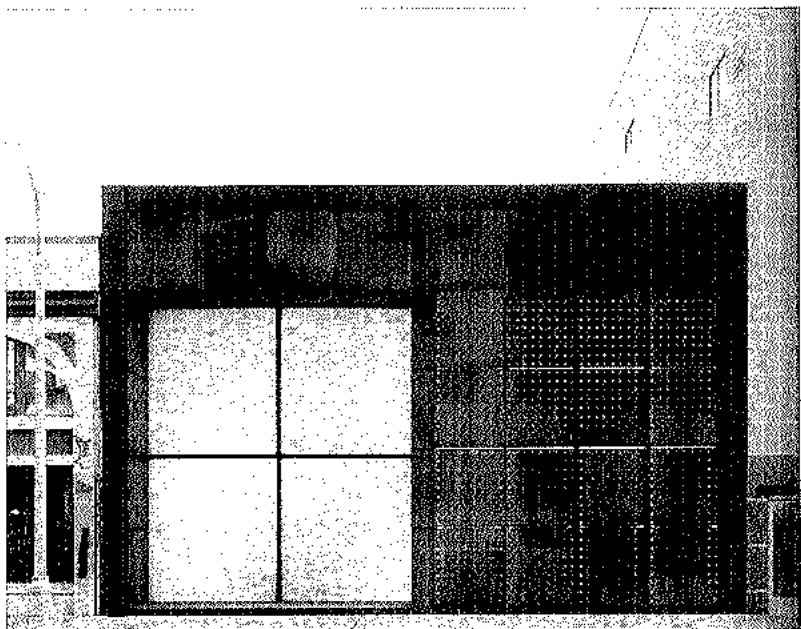
너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기술 관련으로는 유리를 대체할 각종 천 재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Record Houses 2002

▶Patkau Architects의 밴쿠버 하우스 언덕 위의 좁고 긴 대지 위에 지어진 이 저택은 길이 방향으로 수영장을 둠으로써 이 광경이 먼 해안까지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수영장의 바닥면 중 일부는 유리로 처리함으로써 물결의 그림자를 지하 공간으로 침투시키고 있다. 단면적으로 복합적인 구성을 취하여 대지 형상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층고의 부분 공간들을 얻어내고 있다.



Patkau Architects의 밴쿠버 하우스



Jim Jennings의 샌프란시스코 Howard Street House

▶Jim Jennings의 샌프란시스코 Howard Street House

도심에 위치하여 도로를 바로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해주는 것이 중요했다. 이 작품은 도로를 향해 천공 코르텐 패널을 위치시키고 반투명 유리를 넣음으로써 거리의 활기찬 모습을 내부에 도입시켰다. 거대한 반투명 유리가 개방적인 느낌을 전달하면서도 그 배면의 정원에 대한 아무런 암시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길이 방향 전체에 걸쳐 2층 높이의 거실이 위치해 있으며, 이를 내려다보는 침실은 햇빛을 받아들이는 천창이 있을 뿐 외부 광경과는 차단되어 있다.

그 외에 ▶Jim Cutler의 로페즈 섬 Reeve 저택, ▶Jacques Moussafir의 파리 근교 Stein-Fleischmann House, ▶Daly, Genik Architects의 산타모니카 저택 등이 소개되어 있다.

■ 영화 속의 근대 건축

1950년대 이후 영화가 세트를 벗어나 실제 로케이션에서 촬영되면서 많은 유명 건축물들이 영화 속에 등장해왔다. 특히 캘리포니아 근교에 있는 근대의 작품들이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보통 건축가

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조명되곤 했다. 자유, 융통성, 빛, 공기 등 긍정적인 가치를 표현하고자 만들어진 집들이 차갑고 사악하고 위협적인 주인공의 거주지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는 근대의 도구적 합리주의에 수반된 특성들을 공간을 통해 보여준 결과로, Jacques Tati 감독의 <나의 심혼>과 같은 작품에서는 코믹한 기법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Jean-Luc Godard 감독의 <경멸>에 나오는 Adalberto Libera의 Casa Malaparte, ▶Woody Allen의 <슬리퍼>에 나오는 Charles Deaton의 Sculpture House, ▶<L.A. 컨피덴셜>에 나오는 Richard Neutra의 Lovell Health House 등이 소개되고 있다.

Architecture

2002년 3월호

8.7에이커에 걸쳐 새롭게 조성된 미국 L A 의 Hollywood & Highland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



며, Rem Koolhaas에 대한 Joan Ockman의, 그리고 시카고 Taylor Homes에 대한 Gwendolyn Wright의 비평이 수록되어 있다.

■ Joan Ockman이 본 Rem Koolhaas의 근작

▶Koolhaas가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에서 수행한 도시 관련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최근 출시된 책이 Great Leap Forward와 The Harvard Design School Guide to Shopping이다. 이 중 후자는 그의 논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쇼핑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공항, 박물관, 테마 공원, 심지어 학교와 도서관, 교회까지 쇼핑 센터의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에스컬레이터, 에어컨 시설 등 과학 기술의 발달을 직접 적용하여 발달해온 상업 건축 양식이 이제 건축 전반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와 병행하여 실제 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가 뉴욕 맨해튼의 Prada 상점이다. 4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된 이 건물은 Koolhaas가 Prada를 위해 계획한 세 상점 중 하나로, 쇼핑이라는 경험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를 반영하고 있다. 모든 것이 쇼핑 행위가 된 상황에서 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친 사치를 추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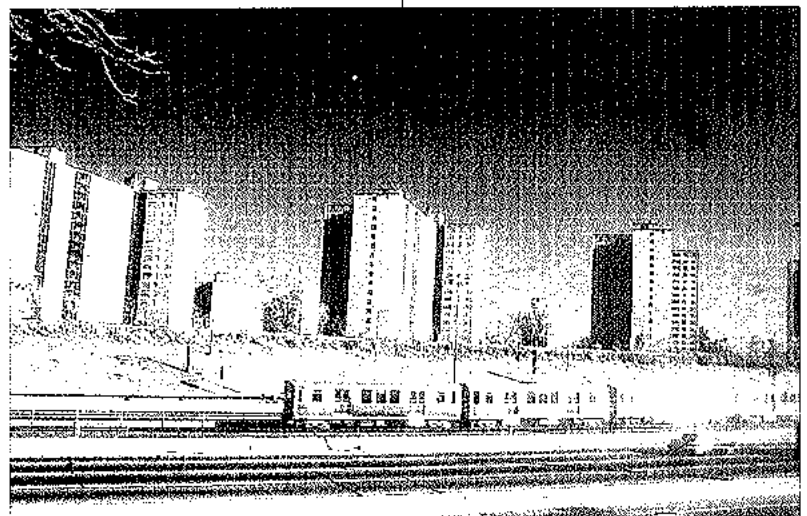
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사물과 경험이 일용품적인 가치로 전락하면서 문화가 쇼핑 속으로 녹아들었다면, 그 역도 가능하지 않을까 Koolhaas는 반문하고 있다. 상업 시설을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여기에 동조한 것이 좌파적 취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는 패션계의 갑부 Miuccia Prada다. 하지만 지적 문화와 쇼핑 산업 사이의 유희적인 만남은 인텔리전스와 프롤레타리아의 공조만큼이나 순간적인 것 같다. 한 철학자는 권력의 불균형과 세상의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손을 쓸 수 없다고 여기는 지식인의 자세를 '계몽된 거짓 의식'이라고 부르바 있다. 비록 믿음이 너무 순진했고 실천 방향을 잘 못 잡았을지언정 세상에 대한 마음가짐만큼은 바로 잡고 있었던 모더니즘은 Koolhaas의 차가운 냉소주의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뉴욕 Prada 상점에 도입된 각종 건축 재료와 설비들을 상세하게 소개한 글이 잡지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다.

■ Gwendolyn Wright가 본 시카고 Taylor Homes

1962년에 완공된 시카고의 Taylor Homes는 하나의 슈퍼블록 안에 16개 층의 아파트 타워 28개를 배치시킨 거대한 주거 프로젝트였다. 4300여 세대

를 수용하는 이 계획은 1960년대 에는 르 꼬르뷔제의 빛나는 도시 계획안의 요소들을 도입한 시도로 평가받았지만 곧 최악의 공공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주위 도시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 계획되고 지나치게 높은 밀도를 지향한 결과, 애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거주자는 점점 흑인 빈민층으로 변모해갔고, 그나마 지금은 2500여명이 남아있을 뿐이다. 점차적으로 철거 후 저밀도 주거로 대체될 이 단지는 도심의 공공 주거 계획에 있어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번역 / 전신영)



Gwendolyn Wright가 본 시카고 Taylor Homes